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효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정 연 동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재학)

서 문

최근 새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문화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건립한 문화시설이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문화시설의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사후평가를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역의 당위적 요구에 의해 문화시설을 확충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많은 지역에서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소비 형태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시설은 시설 노후화와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OECD 주요국가의 문화서비스 수준을 갖추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왔고, 그 결과 시대변화에 따라 정책도 조금씩 바뀌기는 하였지만 일정 수의 문화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제는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시설의 기능 및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2014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연구개요 ● ●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0년 이후 문화시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다변화되어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문화시설의 경우, 초기 조성목적과 달리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대구미술관 운영 ‘부실 투성이’

개관 7개월동안 겨우 3차례의 기획전시만 여는 등 대구시민의 문화적 갈증해소에 전혀 도움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업무처리마저 확인/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늦기 전에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최모(38)씨가 “7개월 동안 기획전시회를 3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대구미술관이 전시장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감사결과를 보니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시민의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고말함. (2011.11.27, 김상일기자)

■ 실적위주 문화시설, 과잉투자 우려

전남지역의 공공문화시설 투자가 전국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전남에 있는 도서관은 60개, 박물관과 미술관은 56개, 문예회관은 16개 설치,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4배, 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각각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에만 치중하고 운영은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2012.4.30, KBS광주)

- 이에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화시설을 공급함에 있어 행정구역별 균형적 배분방식이 아닌 문화수요와 연계한 공급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문화시설을 재배치 또는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장충체육관 ▶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리모델링

1963년 국내최초 돔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한 이래 레슬링/복싱/씨름 경기장으로 운영되어온 장충체육관이 개관 50년 만에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변모함.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1,378㎡ 규모에 관람석 5,248석을 갖추고 전문경기 뿐만 아니라 공연까지 가능한 복합시설로 2013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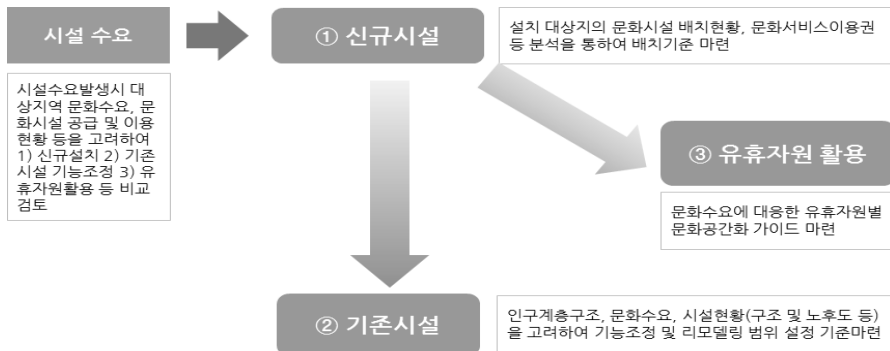
-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259㎡ 규모의 헬스장(지하2층)과 스포츠 활동실(지하1층)을 조성하여 요가, 에어로빅 등 단체 실내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의 대형공간은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문화공연장으로 활용. 이를 위해 1층 주경기장의 관람석을 공연 관람이 가능한 수납식 좌석으로 1,528석 설치

나. 연구 목적

- 문화시설 설치 및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문화융성시대에 대응한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 조정 방안 모색
- 노후화되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제 기능 활성화와 신규 문화시설 설립의 필요성 간의 적정성을 모색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인 문화시설 정책 수립

2. 주요 연구내용

- 문화시설 공급 등 정책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기반과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이슈 및 쟁점 등을 토대로 문화시설 설치 등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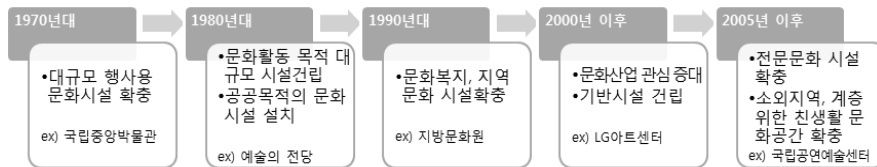
〈표 1〉 연구내용

구분	연구진행 방향
신규시설	대상지역의 기본현황, 문화시설 및 문화이용권 현황, 문화수요 등을 고려한 배치기준 마련 중심
유희자원	대상지 여건 및 문화수요, 투자효과 대비 유희자원별 활용 가이드 중심
기존시설	문화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인구계층 등 고려 기존시설 활용 가이드 중심

3. 문화시설 정책동향

가. 문화시설 흐름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부터 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공립 문화시설이 일반적인 문화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이러한 문화기반시설들은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독서 및 도서관 진흥법 등에 명시된 시설들로 국가가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에 한정하여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관리·운영되어 왔음



나. 문화시설 동향

- 최근 문화시설은 단순 시설물 조성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중심 생활밀착, 도시 마케팅적 요소, 다양한 기능복합형, 도심 폐공간 리모델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이 재조정되고 있음



4. 모형개발 방향

가. 필요성

- 문화시설별로 OECD 주요국가의 평균 설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수 및 행정구역에 의한 최소기준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수 보다는 지역 간의 수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인구대비 문화서비스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음
- 아울러 도시 간 인구이동이 증가 또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인구 계층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한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문화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서비스 수요 발생
- 최근 도시재생 및 도시브랜드 정책의 하나로 폐산업시설이나 학교, 업무 시설 등 지역 유휴자원을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대응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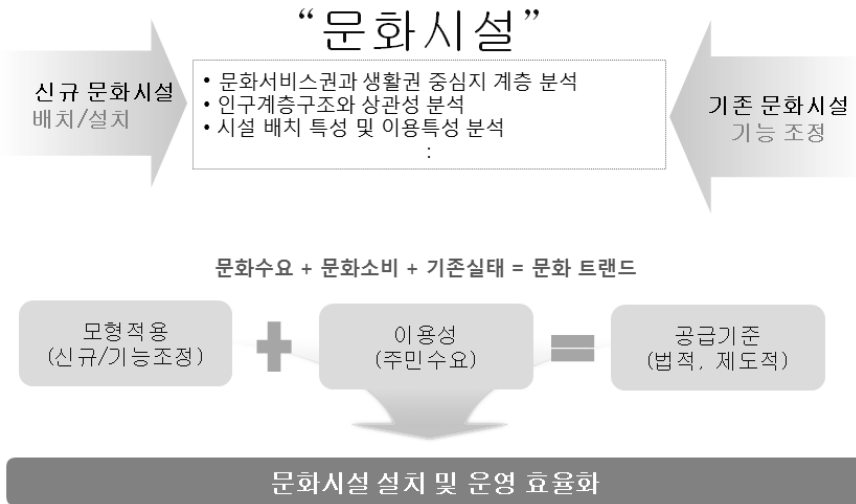
나. 쟁점 및 가설

- 문화시설 공급 및 설치, 기능 조정과 관련한 이슈 및 쟁점과 이를 토대로 개발하려는 문화시설 기능 및 배치 모형의 기본가설은 다음과 같음

〈표 2〉 쟁점 및 기본가설

구분	내용	
쟁점 및 이슈	문화시설 구축형태	- 신규시설 조성에 대한 요구와 기존문화시설 운영부실간의 갈등 - 기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수요 충족 가능성 확대 - 기능조정을 위한 업무지침 유무
	시설 공급/설치기준	- 공급자중심/성과목표에 의한 공급방식과 수요자간의 온도차 - 문화시설 분류 및 관리 체계 혼재 - 문화시설의 특수성 반영 여부
기본가설	1. 신규(신축)와 기존시설 활용은 다른 기준을 가진다. 2. 문화시설의 유형별 설립목적 및 서비스 대상에 따라 설치 기준 등이 다르다. 3. 문화시설 이용은 일상 생활권과 문화집적도, 거리와 관계있다. 4. 인구계층에 따라 문화수요가 다르다.	

다. 기본방향



5. 모형개발

가.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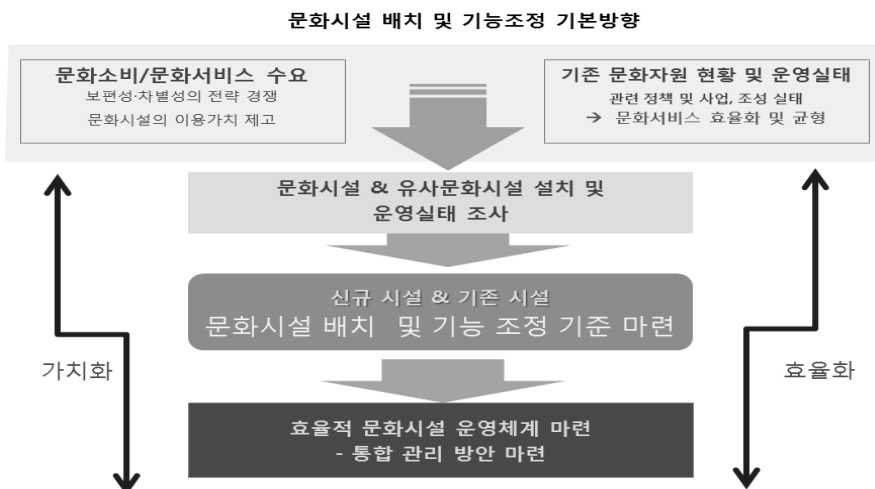
-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모형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시설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생활권과 생활 중심지계층, 교통접근성 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별 문화이용권을 설정하여 시설의 적정 위치를 판단함

나. 문화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모형

- 문화시설의 기능 조정 및 재배치 결정요인은 신규(신축)시설과 달리 ‘새로운 기능’을 기존 시설에 어떻게 대입하는 가하는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은 시설의 물리적 상태, 지역의 문화수요 및 이용행태, 주변 문화시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판단함

6.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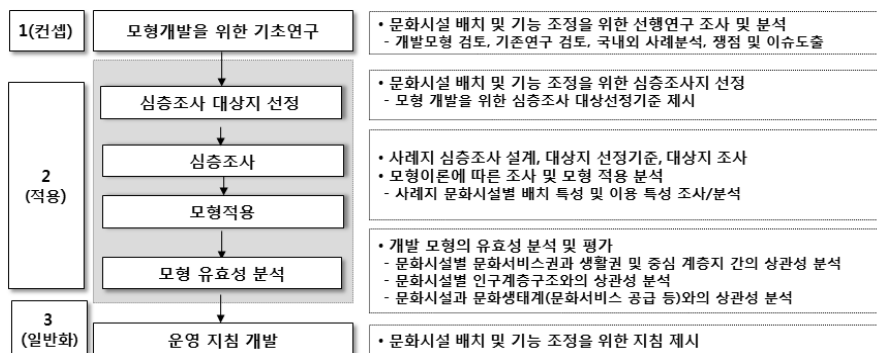
가. 기본방향



-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유희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에 따른 예산 등을 최소화
- 범 부처 문화시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 각 시설별로 설치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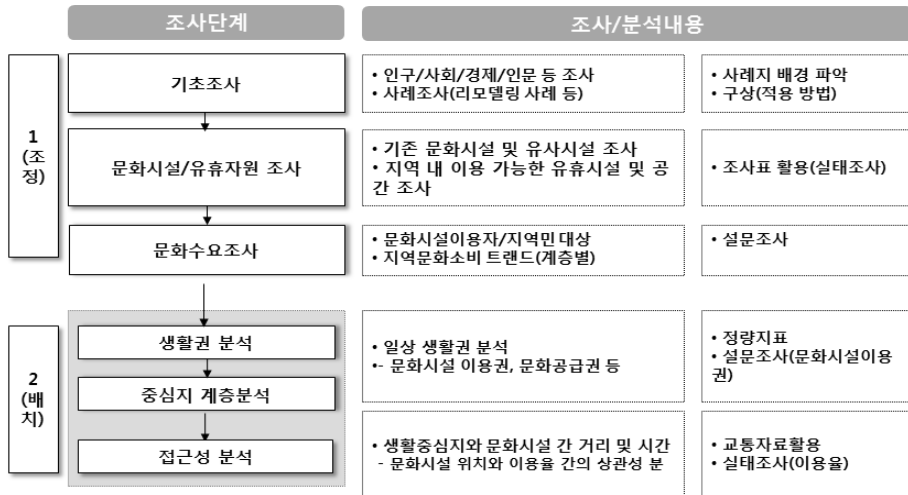
나. 정책과제

1)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의 실증화



① 심층사례 분석을 통한 모형의 구체화 작업

- 컨셉 모형의 구체화 및 검증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진행하며, 사례지는 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적합한 곳으로 선정함
- 사례지 선정은 최근 외부적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 인구변화가 뚜렷한 곳이나 문화시설이 타 시도보다 증가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함



②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된 모형을 정책적으로 또는 사업화에 있어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 문화시설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유흥공간 문화공간화를 위한 업무가이드라인, 관련 사업비 분석 기준 등 세부 영역별로 지침을 마련하여 나감

〈표 3〉 업무지침 내용(안)

구분	내용	
정책지침	목표 및 방향	문화시설 공급 목표 및 방향
	공급기준(우선순위)	시설별 공급기준 및 우선순위, 제외대상 등
	계획지침 내용	계획서 확인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사전준비, 사업비 조달 등
	진행방법 및 일정	업무처리 일정
계획지침	사업개요	사업배경 및 목표
	기초조사	인구조사/문화시설/유흥자원 조사/문화수요-트렌드조사
	생활권, 중심계층, 접근격차	대상지의 문화생활권 설정, 문화중심계층, 문화접근성격차
	제안시설	제안시설 개요 및 내용
	사업비 검토	총사업비, 사업비조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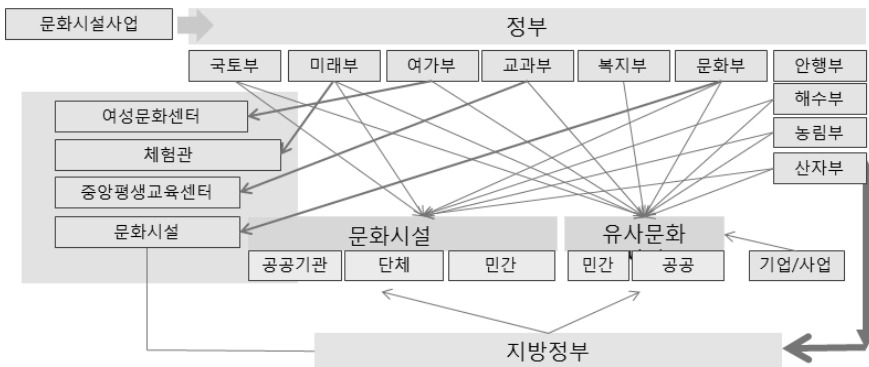
2) 전국문화시설 노후화 실태조사 추진

- 전국문화시설 활성화/운영정상화를 위한 현 시설에 대한 노후도/안전도/문화대응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문화시설이 44.6%에 이르는 등 문화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신규 문화시설 확충에 비해 시설 리모델링 사업 및 시설정비 사업비는 부족한 편임

3) 문화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협력체계 구축

- 문화시설의 공급정도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시설 및 시설이용도, 효용도를 함께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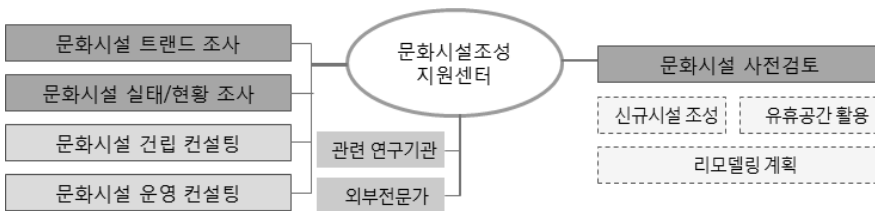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시설 설립 관계도

② 제도정비 및 개선

- 문화시설을 통합관리 운영차원에서 문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도 및 관계법 개선/정비함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수의 문화시설의 경우 관계법을 적용하기 모호하거나 관계법에 의해 설치의 어려움이 발생

4) 문화시설 조성 지원센터 설립

- 문화시설 조성단계부터 조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문화시설 조성의 적정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함



[그림 2] 문화시설 조성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3절 연구내용	7
1. 주요 연구내용	7
2. 선행연구 및 조사	8
제2장 문화시설 정책동향	13
제1절 이론적 고찰	15
1. 문화시설	15
2. 유희공간(시설)	20
제2절 문화시설 정책 동향	24
1. 문화시설 정책의 변화	24
2. 국내·외 문화시설 설치 동향	27
제3장 문화시설 현황	35
제1절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37
1. 개요	37
2. 문화시설 설치 기준	38
3. 공급 및 설치기준	41
제2절 문화시설 설치 현황	47
1. 문화시설 설치 현황	47
2. 문화시설 운영현황	54
3. 소결	59

제4장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을 위한 모형개발 61

제1절 이슈 및 쟁점	63
1. 문화시설 구축형태	63
2. 문화시설 공급 및 설치 기준	69
3. 지역 및 수요자 관점에서 문화시설 재배치	73
제2절 모형개발 방향	75
1. 모형개발의 필요성	75
2. 모형개발의 방향	76
제3절 모형개발	83
1. 신규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모형	83
2. 기존문화시설의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모형	102

제5장 정책과제 115

제1절 기본방향	117
1. 기본방향	117
제2절 정책과제	119
1.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의 실증화	119
2. 전국 문화시설 노후화 실태조사 추진	123
3. 문화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124

참고문헌 129

부 록 131

ABSTRACT 141

표 차례

〈표 1-1〉 연구내용	7
〈표 1-2〉 문화시설 관련 기존연구 내용	9
〈표 1-3〉 유희시설(공간)관련 기존연구 내용	10
〈표 1-4〉 연구 및 조사의 한계	12
〈표 2-1〉 문화시설의 정의	15
〈표 2-2〉 문화시설의 기능 및 운영방법에 의한 분류	18
〈표 2-3〉 규모별 문화시설 특성	18
〈표 2-4〉 문화시설 법적 종류	19
〈표 2-5〉 유희공간 정의 및 분류	21
〈표 2-6〉 유희공간(시설)의 문화공간 조성의 의미	21
〈표 2-7〉 유희공간(시설)의 활용유형	23
〈표 2-8〉 시대별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24
〈표 2-9〉 시대별 문화정책 및 건립시설	25
〈표 2-10〉 문화시설 설치 동향	27
〈표 2-11〉 관계법 및 사업	29
〈표 2-12〉 생활문화시설조성 사업	30
〈표 2-13〉 유희공간 문화공간화사업	31
〈표 2-14〉 문화시설 설치특성	32
〈표 2-15〉 국내·외 문화시설 입지경향	33
〈표 3-1〉 문화시설 설치 관계법	38
〈표 3-2〉 문화시설 설치사업 현황	39
〈표 3-4〉 유사문화시설(예)	40
〈표 3-5〉 문화시설 공급기준	41
〈표 3-6〉 리모델링 관련 법적 정의 및 범위	44
〈표 3-7〉 리모델링 요인 분류	45
〈표 3-8〉 유형별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47
〈표 3-9〉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증가추이	48
〈표 3-10〉 시기별 창작스튜디오 공간조성방법 및 현황	49
〈표 3-11〉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총괄표	50

CONTENTS

〈표 3-12〉 지자체별 문화시설 현황	51
〈표 3-13〉 시도별 인구10만 명당 문화시설 수	51
〈표 3-14〉 지자체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52
〈표 3-15〉 지자체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	53
〈표 3-16〉 시도별 문화시설 1개당 평균서비스 인구	54
〈표 3-17〉 문화시설 1개당 평균서비스 인구	55
〈표 3-18〉 시도별 문화시설 1개당 평균이용객 수	56
〈표 3-19〉 문화시설 1개소당 운영현황	57
〈표 3-18〉 남원대표 5개 시설물 건립비용/유지비용	57
〈표 3-19〉 종로구 문화과 예산편성	58
〈표 3-20〉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58
〈표 4-1〉 문화시설 개관년도(개, %)	65
〈표 4-2〉 도시재생 선도지역(2013) 사업현황	67
〈표 4-3〉 문화시설 공급자 VS 수요자 측면에서의 유형분류	71
〈표 4-4〉 희망 참여 프로그램(최고 사례수)	79
〈표 4-5〉 문화예술교육 경험(최고 사례수)	79
〈표 4-6〉 지자체간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종류	84
〈표 4-7〉 통근통행 O-D행렬	86
〈표 4-8〉 문화/여가/체육활동분석결과	88
〈표 4-9〉 지역별 중간재화 조달비율(예)	89
〈표 4-10〉 독일 브린덴부르크 주의 생활서비스 표준	90
〈표 4-11〉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의 구분(2013년 전화번호부)	92
〈표 4-12〉 문화중심성을 나타내는 업종구분	93
〈표 4-13〉 입지계수 분석 방법(예시)	93
〈표 4-14〉 기능지수 분석 방법(예시)	94
〈표 4-15〉 천안시의 중심지 계층구조	96
〈표 4-16〉 천안시의 문화중심지 계층구조	97
〈표 4-17〉 지역별 교통네트워크 체계분석 대상	99
〈표 4-18〉 지역규모별 인구증감율(2014.6 기준)	106
〈표 4-19〉 전국성별/연령별 인구증감율	106
〈표 4-20〉 문화소비 트렌드	107
〈표 4-21〉 문화시설 실태조사표(안)	108

〈표 4-22〉 유희자원(시설 및 공간) 실태조사표(안)	109
〈표 4-23〉 문화수요조사(지역주민)표(안)	109
〈표 4-24〉 문화시설 기능변경 고려시점	110
〈표 3-25〉 문화시설 기능변경 시 고려사항	110
〈표 4-26〉 유희공간(시설) 활용 방법	112
〈표 4-27〉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 시 고려사항	113
〈표 5-1〉 업무지침 내용(안)	122
〈표 5-2〉 법적 고려 사항	12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방법	6
[그림 2-1] 문화시설의 정의 및 기능	17
[그림 2-2] 유희공간(시설) 활용방법	23
[그림 2-3] 문화융성의 패러다임 가치	28
[그림 3-1]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유형	37
[그림 3-2] 기본구상 단계 진행절차	42
[그림 3-3] 장기수선 계획 개념도(건물 리모델링 매뉴얼, p26 참조)	43
[그림 4-1] 리모델링 시장 규모 및 전체 건설투자에 차지하는 비율	66
[그림 4-2] 도시재생 기법개발 단계 및 내용	68
[그림 4-3] 문화시설 공급자 VS 수요자 간 격차	70
[그림 4-4] 지역차원에서 문화시설 설치 방향	74
[그림 4-5] 충청북도 내 박물관/미술관 이용시 애로사항	78
[그림 4-6] 기본방향	80
[그림 4-7] 모형개발 틀	82
[그림 4-8] 조사 및 분석 내용	83
[그림 4-9] 생활권의 개념	84
[그림 4-10] 충남 및 주변 사·도의 시·군간 통근통행량 분포도	87
[그림 4-11] 충청남도 중심지의 공간 분포	95
[그림 4-12] 문화중심지 공간분포	96
[그림 4-13] 지역중심과 문화시설 간 최소통행거리 예	100
[그림 4-14] 모형 설정시 검토사항	102
[그림 4-15] 기능조정 모형 분석내용	103
[그림 4-16] 문화시설 기능조정 및 재배치 방향 및 내용	104
[그림 4-17] 인구계층(구조)에 따라 시설기능조정안	111
[그림 4-18] 신규기능 재배치-유희자원 활용	114
[그림 4-19] 신규기능 재배치-유희자원 활용	114
[그림 5-1] 정책 방향	117
[그림 5-2] 모형 일반화 단계	119
[그림 5-3] 사례지 선정방향	120
[그림 5-4] 조사/분석내용	121
[그림 5-5] 문화시설 설립 관계도	124
[그림 5-6]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125
[그림 5-7] 문화시설 조성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127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1	문화소비 시대를 맞아 지역별로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 증가
2	일부 문화시설의 활용도 및 기능 저하에 따른 공급과 수요간 격차 발생
3	문화시설 설치 및 활용 간의 균형마련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제기

○ 2000년 이후 문화시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다변화되어 가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일부 문화시설의 경우, 초기 조성목적과 달리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문화시설 개관 이후 목적과 달리 운영/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문화시설 공급과 운영/관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공급의 필요성에 의해 다수의 문화시설이 공급되었고 또한 여전히 공급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급된 문화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 양의 문제인지 서비스의 양과 질의 문제인지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공공문화시설 1관 당 평균 인구는 도서관이 65,649명, 박물관·미술관이 137,232명 (사립 포함 시 6만 명 수준), 문예회관이 253,022명 수준으로 나타나 박물관·미술관 시설 수(사립 포함)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2012 보고자료)

* OECD 국가의 도서관 1관 당 평균인원 수는 2~4만 명 수준, 박물관·미술관은 약 5만 명 수준(사립 포함)

■ 대구미술관 운영 '부실 투성이'

개관 7개월동안 겨우 3차례의 기획전시만 여는 등 대구시민의 문화적 갈증해소에 전혀 도움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업무처리마저 확인/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늦기 전에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최모(38)씨가 “7개월 동안 기획전시회를 3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대구미술관이 전시장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감사결과를 보니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시민의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고말함. (2011.11.27, 김상일기자)

■ 실적위주 문화시설, 과잉투자 우려

전남지역의 공공문화시설 투자가 전국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전남에 있는 도서관은 60개, 박물관과 미술관은 56개, 문예회관은 16개 설치,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4배, 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각각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에만 치중하고 운영은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2012.4.30, KBS광주)

- 이에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화시설을 공급함에 있어 행정구역별 균형적 배분방식이 아닌 문화수요와 연계한 공급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문화시설을 재배치 또는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박물관 12개, 작은 도서관 36개를 추가확충 할 계획임
- 아울러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내용 중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내 지역의 유희시설이나 노후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활동 공간(공연장이나 작은 도서관 기능을 하는)인 생활문화센터 20곳을 만드는 사업 추진

■ 장충체육관 →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리모델링

1963년 국내최초 돔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한 이래 레슬링/복싱/씨름 경기장으로 운영되어온 장충체육관이 개관 50년만에 복합문화체육설로 변모할.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1,378㎡규모에 관람석 5,248석을 갖추고 전문경기 뿐만아니라 공연까지 가능한 복합시설로 2013년 개관.

-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259㎡ 규모의 헬스장(지하2층)과 스포츠 활동실(지하1층)을 조성하여 요가, 에어로빅 등 단체 실내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의 대형공간은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문화공연장으로 활용. 이를 위해 1층 주경기장의 관람석을 공연 관람이 가능한 수납식 좌석으로 1,528석 설치

■ 새로운 형태(민간시설이용)의 공공문화시설 공급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품격 높은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청계천로 279)의 지하 1층 내 일부(1337㎡)를 문화시설로 조성함.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은 흥인지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럭셔리 호텔로 2014.2.4일 개관. 종로구와 동승 HMC 측은 문화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3일에 체결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함. 협약 내용은 호텔 내 지하 1층 내에 조성한 문화시설을 종로구가 무상으로 이번달 부터 오는 2034년 1월 말까지 사용하고, 종로구는 지하 1층 일부에 조성되는 문화시설을 국악공연장, 전시홀, 문화교실로 꾸며 올해 상반기 중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

나. 연구 목적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을 위한 모형 개발

- 신규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정책 분석을 통한 이슈 및 쟁점 도출
- 문화소비자의 생활 및 형태, 문화서비스 공급자 간 다층적/심층적 분석을 통한 관련성 도출
- 문화수요와 문화소비 등 트렌드에 맞는 신규 문화시설 설치 및 기존 문화시설 기능 조정 모형 제안

- 문화시설 설치 및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문화융성시대에 대응한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 조정 방안 모색
 - 새로운 문화수요에 대비하여 문화시설의 적절한 공급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틈새 없는 문화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노후화된 문화시설 기능 재생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문화 시설에 대한 요구를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는 문화시설 정책 수립
- 노후화되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제 기능 활성화와 신규 문화시설 설립의 필요성 간의 적정성을 모색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인 문화시설 정책 수립
 - 각 지역에서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적절성 판단 필요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문화시설 정책 현황 및 쟁점과 이슈 분석
-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조정 모형 개발
- 정책 제언

2. 연구 방법

○ 문헌자료 및 현황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문화시설 정책 및 제도 시행 기대효과
-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대상 : 관련전문가, 정책관계자 등 자문회의
- 내용 :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조정에 관한 이슈 및 쟁점, 모형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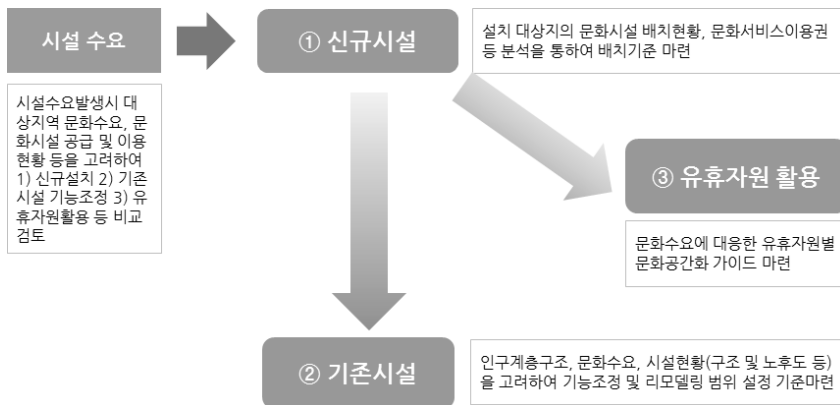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1. 주요 연구내용

- 문화시설 공급 등 정책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기반과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이슈 및 쟁점 등을 토대로 문화시설 설치 등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 연구
 - 신규 문화시설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필요 기능을 충족시키는 방안
 - 신규 문화시설 수용에 대응하여 신규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방안 등에 필요한 기준 연구



〈표 1-1〉 연구내용

구분	연구진행 방향
신규시설	대상지역의 기본현황, 문화시설 및 문화이용권 현황, 문화수요 등을 고려한 배치기준 마련 중심
유휴자원	대상지 여건 및 문화수요, 투자효과 대비 유휴자원별 활용 가이드 중심
기존시설	문화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인구계층 등 고려 기존시설 활용 가이드 중심

2. 선행연구 및 조사

가. 연구 및 조사내용

1) 문화시설 관련

-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정책, 시설 및 운영현황,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공급자적 측면에서 문화시설 현황에 대하여 매년 발간되는 <전국문화시설 총람>과 시설이용자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2년마다 발간되는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있음
 - 다만, 이들 연구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로서 각 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또는 각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별 이용률, 지역 내에서 각 시설 간 인접도 등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 한 지역에서의 문화시설의 양적/질적 충분 정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그 외 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준이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영효율화 기준 마련 연구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연구>, <공공문화시설 타당성사전평가제 운영세부기준연구>, <문화시설 운영효율성 지표개발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시설 운영개선방안, 2012> 등이 있음
 - 이들 연구는 전국단위 또는 사례지역별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국내외 동향/정책동향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및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 된 연구 대부분에서 다루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1) 지방문화시설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조명과 함께 문화시설 건립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제기, 2)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운영에서의 전문화/체계화/효율화/대중화 중심의 개선의 필요성과 시설건립보다는 운영중심의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친주민 지역형 및 주민향유 창조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주민/접근성/활용도를 고려

한 모델을 강조하고 고착식이 아닌 이동식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둠

- 문화시설 정책방향으로 1) 새로운 형식의 문화시설 수요에 따른 공급확대, 2) 문화시설 관리의 전문성 강화, 3) 지역문화공동체 활동거점으로서 문화시설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1-2〉 문화시설 관련 기존연구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시군별 문화시설 통계 • 문화기반시설 세부운영실태(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 시설현황(위치, 시설규모, 시설내용), 소장 자료, 운영프로그램, 관람료, 관람인원, 운영인력현황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으로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매년 작성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향유(관람률, 만족도 등),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이용(이용실태,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율 및 만족도 등), 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동호회활동,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지역축제관람 등 조사	16개 시도별 5,000명(2012) 대상 2년 주기로 조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개선 방안(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 계획단계/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계획단계 : 지역여건 부합(건립필요성, 시설과 지역여건의 부합, 전국평균 대비지역수급 확인), 주민의견 수렴 및 수요예측, 건립 B/C분석, 디자인, 법규, 운영계획의 충실성 • 운영단계 : 콘텐츠의 지속성, 기존시설 용도 전환을 통한운영활성화, 운영인력재교육, 대외홍보, 주민만족도조사, 자체평가시행	• 문화시설 투자, 운영,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적 관리, 제어, 환류기능 극대화 -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문화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확인
공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16개 시도소재 공립박물관 288개관 조사 • 조사내용: 기본현황(인력, 예산, 소장유물), 관람인원, 개관일수, 프로그램운영실적, 수지현황 등	2011.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
지역문화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 문화시설 동향, 정책방향 • 문화시설 현황 및 향후 과제	• 문화시설의 새로운 진화,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구분	내용	비고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세부운영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1	-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정책 및 계획 - 문화시설 건립추이 및 운영현황조사	건립사전평가에 대한 기준
문화시설 운영효율성 지표개발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10	- 문예회관(객석점유율, 공연장가동율, 공연가동률) - 박물관/미술관(인력/예산 효율성)	운영주체별 문예회관/미술관 등 가동율 실태조사 진행
전국문화기반시설최소 기준수립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04	-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분석을 마련 -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수요분석	- 원단위분석(인구인/㎡/직원1인당 서비스 내용) - 시설현황, 프로그램운영현황, 가동율, 이용율, 이용객 조사

2) 유희시설(공간) 활용

- 지역의 유희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공간)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 대부터 나타나며 유희공간의 발생원인과 적용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통하여 공간화 방안을 고찰하는 형태의 연구가 다수임
- 초기 연구는 도시환경, 디자인 등 도시 및 지역 환경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역재생 등의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다 2010년 이후부터는 예술문화 전 공자 등이 예술과 지역민의 소통수단으로서 가능성 모색 연구가 나타남
 - 대부분 국내외 유희시설 및 공간의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유희시설(공간)의 활용 가능성과 가치, 활용 시 유의사항을 지적함

〈표 1-3〉 유희시설(공간)관련 기존연구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백나영, 2002	도시공간 속 유희공간의 개념과 유형 정리 국내 및 국외 사례의 예시를 통해 유희 공간 활용방법 연구	유희공간의 활용방안으로 소공원, 도시광장, 보행전용 가로, 교량, 거리 시설물 설치, 도심 속 전원형성 국내외 국외 사례 제시
유희공간의 문화공간 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곽수정, 2007	국내 및 해외 유희공간의 문화공간 재생의 성공사례 유형 정리 및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콘텐츠를 평가하여 문화공간 조성방향을 제시	해외의 많은 문화공간들 중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역으로 각광 받는 사례들을 범위로 한정

구분	내용	비고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김연진, 2009	유희공간의 발생 원인별 구분 및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현황 및 사례 정리	국내/국외, 활용과정과 내용, 활용의 지역 사회적 의의 중심으로 정리 · 고찰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 개선 방안 연구, 오세경·전영은, 2010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 가치 검토 및 해외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프로그램 사례 연구	아트플랫폼의 공간 현황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토대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공간 제안
산업유산으로서 폐정수장의 공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다혜, 2011	폐정수장시설을 공원화한 사례를 통해 설계 과정과 현상을 조사·분석하여 산업유산 재활용 특성을 도출하고 산업유산의 공원화 방안 제시	산업유산 재활용 과정을 '보존범위 설정-보존방식설정-활용방식설정'의 단계로 나누어 각 사례별 공원 설계 과정을 통해 분석
도시재생을 위한 유희산업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조연주, 2011	시각예술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유희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로 도시재생을 이룬 성공사례 분석	2010년 6월 16일~27일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조사
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연구, 신정이, 2011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의 현황 및 사례,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광주대인예술시장의 2008년~2010년까지의 운영현황과 성과에 관한 사례 분석
서울시 컬처노믹스 사업현황에 관한 연구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다연, 2012	컬처노믹스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 국내·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유희공간의 성공적인 문화공간화 방안 모색
도시재생 맥락에서의 유희 산업시설 재활용 계획 방법 연구, 김현주, 201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희공간 재활용 계획의 전개와 변화를 고찰하여 특징 제시 유희 산업시설의 재활용과 문화공간 조성의 배경과 효과를 고찰	국내와 국외 사례를 통해 건축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재활용 방법 사례 조사 및 분석

나. 연구 및 조사 한계

- 문화시설의 필요성 및 각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방향 등에 대한 담론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이용권에 따른 배치 및 이용방안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지역별 인구계층이나 생활권, 문화서비스이용권 등에 따라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 등의 차이발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미흡
- 유희공간 및 시설의 문화공간화와 관련해서는 개별 시설에 대한 사례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지역의 유희공간의 실태나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접근이 미흡함
 - 지역별로 분포된 유희공간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사업별로 유희공간 활용을 제한함에 따라 문화시설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1-4〉 연구 및 조사의 한계

구분	내용
정책연구	- 문화시설 확충방안(증장기, 최소기준 연구), 문화시설(각 시설 별) 운영방안(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검토, 각 문화시설 프로그램 개선방안(방문객 조사) - 시설별 유희공간의 활용방안 또는 개별 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 진행
학술연구	- 개별문화시설의 건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례연구, 유희시설의 유형에 따른 문화공간화 사례연구에 초점을 둔 연구 진행
실태조사	- 각 시설별 개수 및 시설규모, 시설별 운영주체, 운영인력, 운영예산, 사업 및 프로그램 - 이용객수, 가동일 수, 매출액(수입), 만족도(일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대상으로 시행) -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희시설 및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함(단, 폐교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이루어 짐)
한계	- 문화시설 간의 근접성은 고려하였으나 일상생활/경제권과의 관계성 파악 미흡 - 행정 자치별로 문화시설 설치(예: 각 시군 당 문예회관 1개소 설치), 문화서비스 이용권 고려 미흡 - 인구계층변화와 문화수요변화에 대한 상관성 파악 미흡: 정성적 접근 - 문화시설 설치 후 운영(프로그램 기획/공급) 문제 발생하고 있으나 문화서비스 공급성(공급자 위치)에 대한 고려 미흡 -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CASE BY CASE로 접근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절차/과정/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함

제2장 ●●

문화시설 정책동향



제1절

이론적 고찰

1. 문화시설

가. 문화시설의 정의

-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로 구분 가능함
- 사회적으로 문화시설은 ‘문화’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곳, 즉 개인의 내면적인 세계를 남에게 표출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 내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인 잠재력을 실현시켜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표 2-1〉 문화시설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3호)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의미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6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시설 그 체와 그 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조)」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12, 13호)」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육성법(제2조 제 1호)」규정에 의한 과학관 등을 의미

- 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함
- 그 외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본으로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있음
 -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 시설이 포함되며,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기능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문화시설 기능과 역할

- 문화시설의 정의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른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창조의 공간

- 문화시설은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콘텐츠의 생산에서부터 향수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임
 -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다양한 발표와 전시, 교육과 체험의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

2) 집적의 공간

- 문화시설은 수많은 종류의 예술적 생산품과 예술인, 향수자, 체험자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이 집적이 이루어졌을 때, 문화 시설로서의 가치가 있음
 - 다양한 문화유산, 유적, 유품 등을 보존/전시/전수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짐

3) 전달의 공간

- 문화시설 공간 속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및 예술품과 활동으로 향수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임
 - 문화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문화전수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4) 매개의 공간

- 현대에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기능으로는 창조, 교류, 집적, 전달에 문화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연계되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가 활성화하는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문화시설 정의

사회적 정의
• 개인의 내면 표출을 위한 문화적 행위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 • 도시 내 인간의 모든 복합적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공간 • 이를 통해 문화적 잠재력을 실천시켜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설
법적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의한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문화시설 기능

창조의 공간(직접적)
•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공간 -> 다양한 콘텐츠 생산
집적의 공간(직접적)
• 수많은 예술적 생산품, 예술인, 향수자, 체험자들이 교류하는 공간 -> 다양한 집적/보존/전수
전달의 공간(직접적)
• 다양한 체험과 지식정보 제공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전수공간의 역할
매개의 공간(간접적)
• 기능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교류/지역문화/지역 경제 활성화 -> 현대에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능

[그림 2-1] 문화시설의 정의 및 기능

다. 문화시설 분류체계

1) 기능 및 운영방법에 의한 분류

- 문화시설은 일반적으로 기능 및 운영방법, 시설규모 등에 따라 분류 가능
- 기능 및 운영방법에 따른 분류와 시설규모에 따른 기능 및 운영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대규모 문화시설은 그 분야의 문화를 집적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전파, 교류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의 중심이자 거점역할을 수행함

〈표 2-2〉 문화시설의 기능 및 운영방법에 의한 분류

분류	유형	
기능별	전시시설, 공연시설, 정보시설, 문화보급시설, 등	
운영별	소유주체	국립시설, 공립시설, 사립시설(민간비영리시설, 민간시설)
	운영방법	기획시설, 대관시설, 전용시설
	시설규모	대규모 문화시설, 중소규모 문화시설, 생활권 문화시설
	시설형태	복합시설, 전용시설

자료 : 건설교통부 「품격높은 문화인프라구축 및 도시문화조성방안」, 2006

〈표 2-3〉 규모별 문화시설 특성

시설 규모	대규모 문화시설	중소규모 문화시설	생활권 문화시설
시설단위	거점시설	예술시설	생활문화시설
설치단위	국가·도시	민간	공공
설립주체	국가·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재단	기초지자체·지역개발사업자
시설입지	거점지역(상징지역) 도심이나 밀집지역	밀집지역 도심	생활권 (기초지자체별)
주요역할	주요 장르의 발표/전시 세계와의 교류	예술품의 발표/전시 소비자와의 교류	문화교육 및 체험 시민과의 교류
주요기능	국가적인 문화력 상징	예술의 시장적 가치 창출	시민문화권 형성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2004, 재정리

2) 법적 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문화시설 총람을 토대로 문화시설과 관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총 6개로 분류함
 - 관계법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 있음

〈표 2-4〉 문화시설 법적 종류

문화시설 종류		근거법	규정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공연시설	문예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소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구민회관	지방자치법	구민의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의 제공, 문화의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문화의 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시설 종류		근거법	규정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에는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용도별로 건축물을 구분한 것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구분을 따름

2. 유희공간(시설)

가. 유희공간(시설) 정의 및 분류

- 유희공간(시설)은 유희(遊休)와 공간(空間)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는 ‘쓰지 아니하고 놀리는 비어있는 곳’으로, 이러한 유희공간은 ‘존재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비활용 공간 및 시설’과 ‘변화에 따른 기능 상실로 폐 시설 또는 폐 공간으로 존재’하는 공간(시설)으로 구분 가능함¹⁾
- 도시계획 부재로 인하여 도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쓰임 없이 방치된 공간 즉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의미하거나 도시의 발전과 산업화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이제는 기능을 상실하고 비어있는 공간이나 시설 등을 의미함
- 외부환경변화에 의한 유희공간(시설)은 생활양식이나 새로운 문화조류, 사회구조 및 목적,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시대적 변화와 함께 시설 노후화, 지가 및 유지비 상승,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적/물리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함

1) 김현주, 도시재생맥락에서의 유희산업시설 재활용 계획방법연구, 2013, p25 재정리

〈표 2-5〉 유휴공간 정의 및 분류

공간구분	유형	발생원인	발생형태	예
도시계획 부재에 의한 유휴공간	비활용 공간(자투리공간)	도시계획 부재로 인하여 일정한 용도 없이 방치	-	교각하부, 가로 자투리
외부환경변화에 의한 유휴공간	건축물	시설노후화, 기능 확대/축소	이전, 폐쇄, 축소	학교, 공공시설, 근린 생활시설
	산업시설	산업구조변화		공장, 조선소, 창고, 채석장, 제철소
	기반시설	시설노후화, 교통수단발전		터널, 발전소

나. 유휴공간(시설) 활용의 의의

- 도시의 역사와 시간을 공유한 유휴공간(시설)의 재활용은 역사적/상징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아울러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축물이나 시설 등의 신축-철거-신축 등의 반복에서 오는 도시 피로감 및 도시환경, 도시 경제적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 및 건축물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동시대의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과거의 도시를 미래로 투영하는 매개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
- 특히 유휴공간(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도시이미지 개선과 지역 정체성 구축,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제고, 문화적 교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지역주민에게 익숙한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표 2-6〉 유휴공간(시설)의 문화공간 조성의 의미

구분	내용
도시정체성 및 지역활성화	낙후된 도시이미지 개선 차별화된 지역의 문화정체성 구축 및 관광활성화
지역주민 문화향수 제고 및 문화교류 확대	교육 및 전시 등 지역문화향유/창작공간,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주민-예술가 간의 소통과 지역-지역, 지역-국가, 지역-해외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다. 유휴공간(시설) 활용 대상 및 유형

1) 활용대상

- 유휴공간의 활용 대상은 초기에는 폐교, 공공시설 이전적지, 근대건축물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발전소, 채석장, 철도, 터널, 농협창고 등 산업 및 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음
 - 산업시설, 기반시설, 이전적지/폐부지 등 대규모 부지를 활용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대역사건축물, 폐교 등 단일 건축물보다는 주변 가로, 인접지역 연계 계획 등을 고려함에 따라 지역 파급효과가 범위가 커 단일 건축물에서 면적계획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크기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한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시설) 등으로 검토대상을 한정함
 -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도시 공동화, 산업기반시설인 발전소, 공장, 철도(역사시설) 등이 폐쇄 또는 이전, 행정구역 개편·체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행정시설과 군사시설의 이전적지, 농촌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폐교 및 농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2) 활용유형

-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유휴공간의 재활용 방법은 대부분 상실된 기능과 폐기된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형태임
- 대상시설 및 공간에 따라 용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민복지시설, 지역 커뮤니티시설, 문화복지시설, 창작 및 체험시설, 박물관 및 전시관,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문화예술복합시설, 공원 및 야영장 등으로 나타남²⁾
 - 유휴 산업시설의 경우 공장, 제철소 등 부지면적이 큰 시설의 경우 시민공원과 함께 창작센터, 전시 및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 동사무소, 보건소 등 지역 행정/복지/교육시설로 활용된 시설은 주민복지/문화/교육시설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2) 부록#1. 참조

- 최근 들어 예술작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창작스튜디오 형태의 시설과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문화복합시설의 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2-7〉 유희공간(시설)의 활용유형

대상	활용유형	내용	예
공장/발전소/제철소	공원	시민공원, 과학공원 등으로 조성	영등포 OB맥주공장, 독일델타뮤직파크/라인엘베과학공원, 일본로리타게가든
	미술관/박물관	미술관, 박물관으로 조성	미국매트릭 스팩토리, 호주파워하우스, 데터터모던미술관, 서울역사 284
	창작스튜디오	창작센터/스튜디오 운영	국립농산품질병관리원, 영국 커스터드제조 공장, 문래절채상가, 미국P.S.I, 중국 다산츠
창고 등	박물관	전시/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	신안소금박물관
	창작스튜디오	창작공간으로 활용	완주삼례예술촌
상가/백화점/시장	창작스튜디오	작가레지던스 운영	안양석수시장, 신당창작아케이드, 독일타헬레스
업무/학교 시설	복합예술공간	시민창작센터, 시민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대복합문화예술공간, 성북아트팩토리
	창작스튜디오	작가지원, 창작센터	연희창작스튜디오 등

라. 활용방법

- 유희공간(시설)의 활용은 새로운 용도의 수용을 위한 개조/보수/수선/보강 등 물리적 건축행위와 새로운 용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남
- 필요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형태와 문화프로그램을 확보/운영하는 형태에서 접근하나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 유희공간(시설) 활용방법

제2절

문화시설 정책 동향

1. 문화시설 정책의 변화

가.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부터는 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공립 문화시설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화기반 시설들은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독서 및 도서관 진흥법 등에 명시된 시설들로 국가가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에 한정하여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관리·운영되어 왔음
- 민간 문화시설과 달리, 시장의 영역을 벗어난 문화향유의 기본권을 제공 하기 위해서 공공이 문화시설의 공급이란 정책을 수행하고 함께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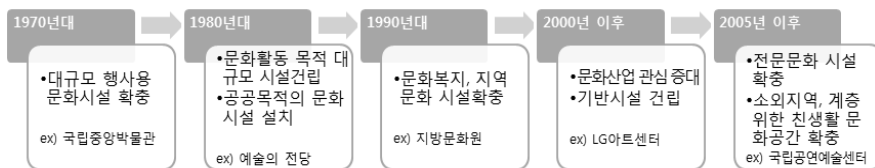
〈표 2-8〉 시대별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구분	문화정책에서의 문화시설
문화정책확대기 (1981~1990)	• 1984년 ‘지방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 조성 시작 •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문화정체성 확립,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등이 제기됨.
문화정책성장기 (1990~1998)	• 문화교육,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문화정책의 궁극적이 목표로 설정 •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정책에서의 문화복지 개념과 함께, 지역의 문화향수를 위한 ‘예술감상공간’의 역할이 강조됨. • 1995년 지방자치의 도입과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많은 지역문화축제 양산
문화정책발전기 (1998~현재)	• 2000년대 문화민주주의적 가치의 확대로 지역주민을 관람자에서 참여자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변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나가야 할 시설로의 기능 확대 요구

자료 : 문예화관운영가이드(2008)의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변천에 관한 표를 문화예술화관과 연관된 부분을 추출하여 재구성

나. 시대별 문화시설

- ‘문화가 미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캐치프레이즈³⁾처럼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화도시, 창조도시, 문화산업 등 다양한 개념 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 함
- 사회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외 문화시설의 구축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기별로 국내 문화시설 확충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70년대 초에는 대규모 행사용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90년대 이후부터 문화복지와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표 2-9〉 시대별 문화정책 및 건립시설

시기	정책 내용	주요 현상	건립 시설
1970년대	- 대규모 행사용 문화시설 확충	- 대규모 시설 건립정책 - 상징 및 행사목적 시설로서 건립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극장/세종문화회관
1980년대	- 문화활동 목적 대규모 시설 건립 - 공공 목적의 문화시설 설치	-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 민간시설 건립 활성화	- 예술의 전당
1990년대	- 문화복지, 지역문화 시설 확충	-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 지방문화원
2000년 이후	- 문화산업 관심 증대 - 기반시설 건립	- 문화산업관련시설, 지원센터 건립 - 민간전용공연장 건립 - 창작기반시설 건립	-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 LG아트센터 - 고양시 창작스튜디오

3) 캐치프레이즈는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라는 뜻으로 독립된 표어나 슬로건의 의미로 쓰임

시기	정책 내용	주요 현상	건립 시설
		- 문화지구 등 문화시설 밀집화	- 문화지구 추진
2005년 이후	- 전문문화 시설확충 - 소외지역, 계층 위한 친생활 문화공간 확충	- 전용시설조성 계획 -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유휴 공간 리모델링	- 국립디지털도서관 / 예술인화관 - 국악종합정보자료관 -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2004, 재정리

- 최근, 지역발전과 활성화차원에서 문화를 이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징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랜드마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2014. 3월 개관, 디자인/창조산업의 발신지로서 새로운 생각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교류되며 융합되어 생각이 '빅뱅'되는 장소 지향
- 알림터(컨퍼런스홀, 전시장, 국제회의장 등), 배움터(디자인홀이터, 디자인박물관, 디자인전시관 등), 살림터(세미나실, 비즈니스거리 등), 어울림광장, 동대문역사공원으로 구성
- 미래를 향한 거대한 우주선 모습으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함



■ 유휴자원 활용: 인천아트플래폼(2005-2008)

-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가 및 2-1번지 일대
- 규모: 2단지, 13개동, 지하1층-4층 (대지면적: 8,450.3㎡, 건축면적: 4,165.06㎡)
- 근대 항만창고를 이용하여 예술 창작공간, 전시공간, 교육공간, 커뮤니티공간, 다목적공간으로 구성되어 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작가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운영

2. 국내·외 문화시설 설치 동향

가. 문화시설 동향

○ 최근 문화시설은 단순 시설물 조성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중심 생활밀착, 도시 마케팅적 요소, 다양한 기능 복합형, 도심 폐공간 리모델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재조정되고 있음

– 대규모 행사용 시설이 아닌 주민의 이용성과 접근성, 프로그램을 고려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향이 나타남

커뮤니티 중심 생활밀착	장소마케팅적 요소	다양한 기능 복합형	도심 폐공간 리모델링
• 대규모 시설보다 이용성과 접근성 중심 • 소통/교류 중심 시민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기능복합 및 프로그램제공	• 장소활력요소, 매력요소로 작용 • 매력적인 장소경관 연출 효과 • 방문객유인 요소로서 관광자원화	• 문화시설의 투자 및 효율성 제고 • 다양한 기능 복합화로 시너지 효과 • 시설의 패키지화, 편리성 이용률 증대 • 집약된 시장성, 특화된 경쟁력 확보	• 역사성 지닌 건축물의 가치 재인식 • 건축문화유산의 공장, 작업소, 도살장, 창고, 학교, 도시공지 등 활용 • 삶의 질 제고에서 문화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주 시민네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롯데 KT&G 상상마당]	[독일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표 2-10〉 문화시설 설치 동향

구분	설치목적	설치유형
커뮤니티 중심 생활밀착	•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여가활용 및 문화복지 향상 • 대규모시설 보다 이용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커뮤니티 중심시설 요구 •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시민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기능복합 및 프로그램 제공	커뮤니티+문화+교통+상업
도시 마케팅적 요소	• 도시 활력요소, 매력 요소로 작용 • 매력적인 도시경관 연출 효과 • 방문객 유인 요소로서 관광자원화	커뮤니티+문화+편의

- 문화융성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시설의 형태를 크게 기능 및 활용
 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는 생활문화시설과
 창작공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설치 방법 측면에서는 신규공간보다는
 지역 내 유헴시설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를 강조함

〈표 2-11〉 관계법 및 사업

구분	내용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구성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지역문화진흥 법 시행령 제2조(안) •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문화의집,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동 법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문화융성정책- 생활속 문화공간구성 등 지원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 신규공간이 아닌 지역의 유헴공간 및 기존시설을 활용(리모델링)한 생활권 단위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문화참여 접근성 제고 - 거점형(시/군/구 단위)과 생활권(읍/면/동 단위) 커뮤니티센터로 구분 • 생활 속 작은 영화관 확대 - 지역에 관계없이 최신영화관람가능한 작은 영화관 설치
유헴시설 및 공간 활용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 3,4항) •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헴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유헴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음
	문화융성정책- 문화융복합창작 공간구성 등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산업단지 및 지역에 방치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폐산업시설을 창의/문화의 공간으로 전환 - 문화공간 조성 10개소 100억원 지원, 예술/산업/지역 등이 융복합된 예술프로그램에 25억원 지원 - 문화로 공간만들기 • 학교, 교도소, 병영 등 내 유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 문화로 학교만들기

자료 : 문화융성정책, 문화가 있는 삶 8대 과제 등 재구성

- 실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한 문화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과 2009년부터 추진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하게 시도/논의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보여짐
- 생활문화는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용’으로 90년대 ‘문화복지’라는 용어에서 2010년대 ‘생활예술’이라는 정책용어가 새롭게 등장함⁴⁾

〈표 2-12〉 생활문화시설조성 사업

구분	내용
생활공간문화적 개선사업	다양한 생활공간의 발굴과 인간중심이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확산을 목표로 추진 - 구조/형태/디자인/질감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심미적 쾌적성 제고 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서의 개선 - 지자체내 일정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 2006(110억), 2007(9억)으로 진행하다 2008년부터 학교문화공간조성사업을 중점추진하다 2014년부터 ‘문화로 공간만들기’ 사업으로 확대추진
생활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2008-2012) 중장기 계획〉에 근거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측면에서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문화소외지역 주민대상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공동체예술형, 공동체문화동아리형, 생활문화네트워크형, 문화예술교육형 등 ▶ 정책개념: 마을단위 생활권 내에서 주민이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자발적으로 생활속 문화를 조직하고 만들어 가는 형태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연구, 2013, 재구성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간화하는 사업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도시재생측면에서 강조되었던 문화도시/창조도시조성 수법의 하나로 소개되면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적 시범사업을 거쳐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시설 조성정책의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관련 사업으로는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이 추진되다 현재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전환 추진

4) 이춘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본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융성 토론회 자료집

〈표 2-13〉 유희공간 문화공간화사업

구분	내용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 2008년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 시범사업〉 국정과제로 추진되다 2009년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 근대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리모델링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리며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기반 및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기여 – 리모델링 등 물리적 문화환경 조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총5개 지역 400억 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연구, 2013, 재구성

다. 문화시설 특성

1) 설치형태

- 지금까지의 문화시설 설치흐름을 살펴보면 시설의 형태면에서는 종합형 대규모 시설에서 중소규모의 전문시설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면에서는 발표/전시시설에서 창작/제작관련시설로, 설치단위는 거점시설에서 생활권 문화시설로 다양화되고 있음
 - 향후 시설의 형태는 전문시설, 지역시설, 창작시설과 교육시설, 특화/테마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시설의 규모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의 시설, 생활권시설을 지향하며 밀집지대에 위치하거나 생활권에 위치한 시설로 다양화 되고 있음
- 설치방법은 신축에서부터 유희공간(시설), 근대역사건축물 및 특화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공간 및 시설 확충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
 - 시설 내용적 측면에서 전시/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예술가 및 시민 창작 스튜디오, 문화예술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추세임

〈표 2-14〉 문화시설 설치특성

분류	기본흐름	내용 및 방향
시설형태	전문화	전용공연장 등 전문문화예술시설
	특성화	테마박물관, 콘텐츠 공연장 등
	기반화	창작기반시설, 지원센터 등
시설규모	대규모	상징적 문화시설, 전문문화시설
	중규모	전문문화시설, 지역의 거점시설 종합 문화시설
	소규모	생활권 문화시설
설치목적	시장성	시장창출형 문화시설
	문화권	시민의 문화복지권 강조
설치장소	밀집지역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
	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강조점	지역특화와 이미지	각 지역별로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활용대상	지역의 유휴공간(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설치목적	지역민 문화향유인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문 유인시설인가?
	밀집유도	지역별로 어떤 종류의 시설을 어떻게 밀집시킬 것인가?

자료: 도시경영연구원, 「공공 지역문화시설 공급기준 설정 기준에 관한 고찰」, 2012, 재정리

2) 입지특성

- 국내·외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문화시설은 편의성 및 상징성 제고 등에 유리한 도심이나 부도심에 주로 위치하며, 교통접근성은 주로 양호하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된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
 -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있는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미술사박물관, 오스트리아 공예미술관, 신왕궁, 부르크정원, 구왕궁, 시민정원, 국회의사당, 미술아카데미(대학), 빈공과대학, 음악가협회,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하고 있음
 -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을 비롯하여 서울과학관, 인사동 거리, 탑골공원, 종묘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되어 있음

- 또한, 문화시설은 공항, 고속도로, 터미널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
 뿐 만 아니라 지하철, 도로 등 지역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하며, 문화
 시설의 대부분은 주위에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계성을 지님
-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관광객의 국제적 접근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함

〈표 2-15〉 국내·외 문화시설 입지경향

지역	국가	도시 / 문화시설 유형	위치	교통 접근성	문화시설 연계성
유럽	프랑스	파리 / 국립박물관	부도심	양호	양호
		파리 / 기메미술관	부도심	좋음	좋음
		파리 / 루브르미술관	도심	좋음	좋음
		파리 / 바스티유오페라극장	부도심	좋음	좋음
		파리 / 팔레가르니에	도심	좋음	좋음
	영국	런던 / 국립자연사박물관	부도심	양호	양호
	오스트리아	비엔나 / 자연사박물관	도심	양호	양호
	스위스	제네바 / 자연사박물관	부도심	양호	양호
		베른 / 자연사박물관	도심	양호	보통
미주	미국	뉴욕 / 자연사박물관	도심	양호	보통
		시카고 / 과학산업박물관	도심 외곽	나쁨	나쁨
		시카고필드 / 자연사박물관	부도심	보통	보통
		워싱턴 / 국립자연사박물관	도심	양호	양호
		LA / 자연사박물관	부도심	나쁨	나쁨
		캘리포니아 / 과학원	부도심	보통	보통
		뉴욕 / 구겐하임미술관	도심	좋음	좋음
		뉴욕 /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심	좋음	좋음
	캐나다	오타와 / 자연사박물관	부도심	보통	보통
	멕시코	멕시코시티 / 인류학박물관	부도심	보통	보통

지역	국가	도시 / 문화시설 유형	위치	교통 접근성	문화시설 연계성
아시아	대만	대중 / 국립자연사박물관	도심	양호	양호
	중국	베이징 / 자연박물관	도심	양호	양호
		상해 / 자연박물관	도심	보통	양호
	일본	동경 / 국립과학박물관	부도심	양호	양호
		사쿠라 / 역사민속박물관	도시 외곽	보통	나쁨
	한국	서울 / 서울시립미술관	도심	좋음	좋음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	도시 외곽	보통	좋음
		서울 / 예술의 전당	부도심	좋음	나쁨
		서울 / 세종문화회관	도심	좋음	좋음

자료 : 대한건축학회, 「복합문화시설의 입지결정요소 조사분석」, 2005, 인용

제3장 ●●

문화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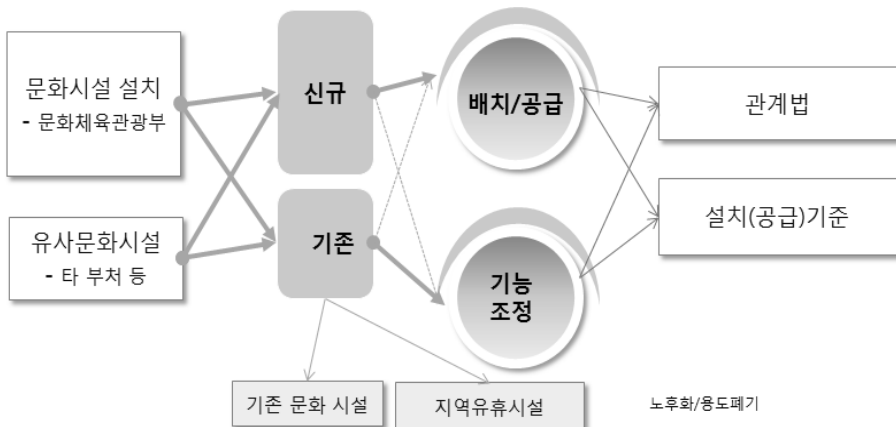


제1절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1. 개요

- 문화시설은 법적으로 규정 여부와 문화시설의 정책 관리 주체에 따라 문화 시설과 유사문화시설로 구분하며, 시설 설치 방법에 따라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을 활용한 기능설치로 구분 가능함
 - 신규설치(신축) : 문화시설의 신규설치는 형태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신규기능을 설치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신규 설치 및 공급을 위한 관계법과 기준을 정리
 - 기존시설을 활용한 기능설치(리모델링) :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기능 조정과 지역내 유희시설 및 공간 등 유희자원을 활용한 설치 등으로 구분 가능하여 이것을 위한 현재의 정책 기준 정리



[그림 3-1]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유형

2. 문화시설 설치 기준

가.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은 다음의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으로 설치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하며, 각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함
 -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의 포괄보조비율은 40%로 규정함

〈표 3-1〉 문화시설 설치 관계법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의무와 책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문화시설의 종류 및 관계법, 설치구조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공연법/도서관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각 시설별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와 책무

■ 광특회계 예산안 신청시 유의사항 (※세부지침 별도 통보)

- (1) 시도자율편성사업(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집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조정
 -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내용이 있을 때는 협의결과를 첨부
- (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개발계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도에 신청하고 신규소요는 신청한도와 별도로 사도에 신청
 - * 기초생활권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선택
 -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내용이 있을 때는 협의결과를 첨부

〈표 3-2〉 문화시설 설치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96~계속	'12년까지 2,100억원	'13년 : 11개관 (계속 5, 신규 6)	국고 40%, 지방 60% ※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91~계속	'12년까지 4,233억원	'13년 : 47개관 (계속 24, 신규 23)	국고 40%, 지방 60% ※ 농어촌공공도서관 80% 최대 16억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	'99~계속	2,276억원 (13년까지 1,918억원)	'13년 8개관 (계속 5, 신규 3) 14년 7개관	국고 40% 지방 60%
문예회관 건립지원	'97~계속	'12년까지 2,936억원	'13년 19개관 (계속 8, 신규11)	정액보조 1개관당 20억원이내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89~계속	304억원	'13년 7개관 (계속 4, 신규3)	국고 40%, 지방 60%
문화예술인 기념시설조성	'02~계속	'12년까지 290억원	'13년 4개관 (계속 2, 신규2)	국고 40%, 지방 60% ※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지원
민간사업정부 지급금(BTL)	'08~계속	10,779억원 ('12년까지 1,214억원) 323억원 국비 891억원 지방비	'13년 25개관 (계속 25)	국고 40%, 지방 60% ※ '09년 이전 계속사업은 30% 국고지원

나. 타 부처 : 유사문화시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폐교재산의 활용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부처 중 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박물관,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등 설치 운영
-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설치 목적은 다르지만 특정 주제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박물관·미술관 등과 유사하게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홍보관 등을 설치하여 조사, 연구, 전시,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유사문화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서 국·공립 또는 사립 형태로 조성·운영 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사문화시설은 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등을 포함하여 지역 커뮤니티 및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설정하고 수행하고 있음

〈표 3-3〉 유사 문화시설 설치

구분	관리주체	내용
과학관	미래창조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과학관을 설치
생물자원관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15)〉에 의거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조사, 표본을 만들고 전시하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지속적 이용/보전의 필요성을 알림 -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등에 의거 운영
체험관	산업통상자원부	개별 산업별로 산업진흥 및 홍보 측면에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별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관	농림식품부 지자체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교육관 및 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일부지자체에서 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여 설치운영(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제정)

〈표 3-4〉 유사문화시설(예)

건립·운영주체	시설내용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관, 제주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해녀박물관, 부산해양자연박물관
안전행정부	장생포 고래박물관
미래창조부	과천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통일부	통일관, 통일전망대
환경부	순천만자연생태관, 국립생물자원관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상설체험관, 문경석탄박물관, 고령진화제품 종합체험관 등
지자체	구미탄소제로교육관, 김해 재활용품 홍보 교육관

3. 공급 및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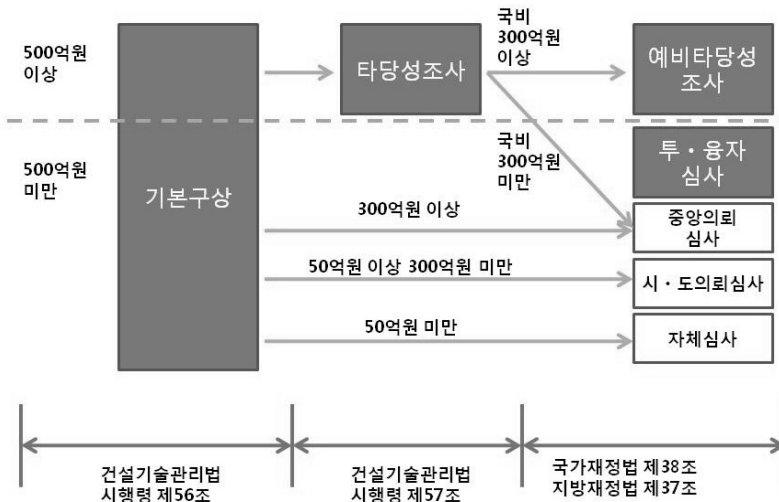
가. 신규시설(신축)

- 국내 문화시설의 공급기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연구(2004)>가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연구는 2001년 수행한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정 보완 한 연구임
 - OECD 주요국가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근거로 문화시설 확충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시설배치 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음
 -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시설의 경우 시설의 배치 기준 등이 없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공급을 결정하고 있음
- 유사문화시설 즉 타 부처에서 추진 설치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공급) 기준은 없으며, 지역적으로 문화체육부와 타 부처의 문화시설이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 관리/운영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문화시설을 신규로 사업 신청할 경우 시설운영, 조직,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방안, 이용대상 및 유사시설 여부 등을 토대로 한 수요분석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받아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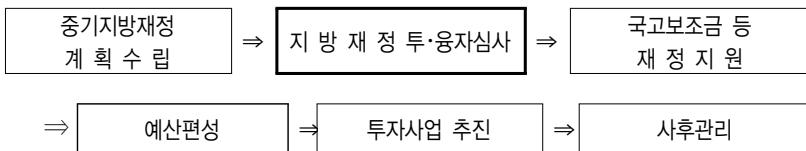
〈표 3-5〉 문화시설 공급기준

구분	내용
도서관	- 매5년마다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의해 설치 - 2018년까지 1,100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4만 5천명당 1관) (OECD 주요국가 서비스 기준인구 2~4만당, 기존 5만명당에서 상향조정) -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 도서관 입지: 인구밀집지역, 도보 15~20분(반경 1~1.5km)접근 규정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05~11, 04년 수립)에 의해 설치 - 박물관/미술관: 인구 5만명 당 1관(OECD 평균 기준 3.7만명당 1관) - 문예회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당 1개소 기준 * 광역시/도청소재 1관 추가가능,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 시 단위 기초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인구 50% 증가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 군단위 기초는 최소기준(자치단체당 1관 및 인구 50% 증가시 1개소 추가 건립 가능) - 공연장: 별도의 시설배치기준 없음

- 문화시설의 건립 과정 중 계획 구상 단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심사 진행
- 문화시설의 건립시 기본구상 또는 타당성 조사가 발주청에 의해 수행되고 투·융자심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정 투입의 타당성 판단
 - 기초지자체에서 시설 건립 시 진행절차를 공사비(또는 사업비)⁵⁾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음⁶⁾



[그림 3-2] 기본구상 단계 진행절차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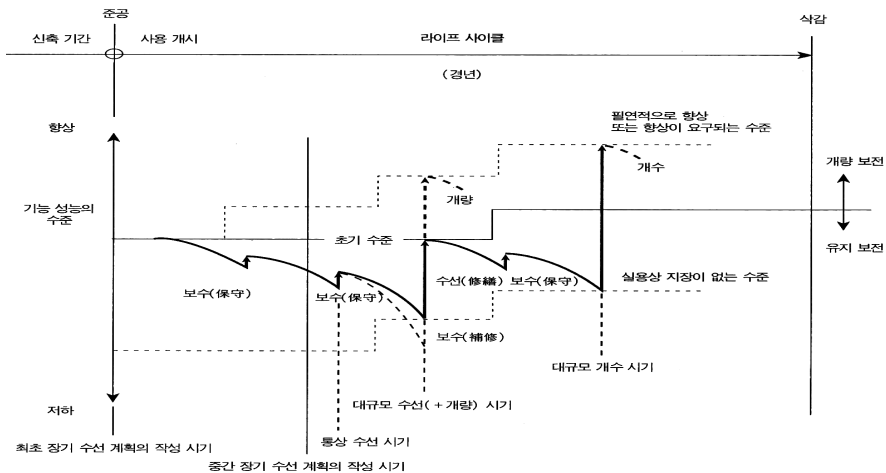
5) 건설기술관리법 제57조의 타당성 조사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행여부가 결정되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대상여부가 결정됨

6) 김홍규,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기존시설(리모델링)

1) 리모델링 정의

-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 또는 지역의 유희시설 활용 모두 법적으로 시설의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변경에 따른 법적 정의 및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 건물의 기능 및 성능의 노후화나 진부화에 대응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 기능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그림 3-3] 장기수선 계획 개념도(건물 리모델링 매뉴얼, p26 참조)

2) 리모델링 법적 기준

- 기존시설 용도변경의 기능 및 내용, 사업절차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절차 및 과정에 준하여 진행
 - 리모델링(건축행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건축법에 의한 입지가능시설 및 리모델링 범위, 기타 법률에 의한 저촉 상황 등 검토가 필요함

〈표 3-6〉 리모델링 관련 법적 정의 및 범위

구 분		내 용		근 거
대수선	정 의	•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축법 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의미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제3조
증 축	정 의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건축법시행령 제2조
	규모	•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이때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0이내 •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단,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범위	공동주택	• 승강기·계단 및 복도 •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이외 건축물	•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외부벽체 •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구 분		내 용	근 거
	허가/신고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용도 변경	허가/신고	-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 및 판매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주거 및 업무시설군, 산업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군 등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 군수 등에 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 신청	건축법 제29조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용도 변경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 용도변경할 바닥면적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 설계	건축법 제18, 19조

3) 리모델링 목적

-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용도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 리모델링 추진요인은 물리적으로 노후화한 요인과 사용성과 쾌적성의 향상이 필요한 성능적 요인, 용도의 변화 요인으로 구분 가능함⁷⁾
 - 사례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228개 중 용도변경인 것 7개, 노후화된 것 27개, 이미지 개선이나 신기능 부가 등 성능향상을 위한 것 50개로 단순 노후화 방지에서 벗어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표 3-7〉 리모델링 요인 분류

요인	내용			
노후화	• 설비 갱신 - 열원 설비 갱신 - 공조기 갱신 - 전원 설비 갱신	• 안전의 확보 - 외벽타일 낙하방지 - 철근부식 대책 - Conc.중성화 대책	• 방수 성능 확보 - 옥상방수 갱신 - 외부창호 갱신 - 실 갱신	• 오염 제거 - 외벽 청소 - 녹 제거 - 백화현상 대책
성능 향상 요구	• 구조보강 - 내진보강 - 설비기기 내진성능 향상	• 방재, 방범의 향상 - 소방설비 향상 - 발전기 설치 - 경비기계 설치	• 노약자 대응 - 장애인화장실 설치 - 바닥문턱 해소	• 환경 배려 - 프레온 대책 - 중수 이용 - 석면 제거

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물 리모델링 매뉴얼, 2000,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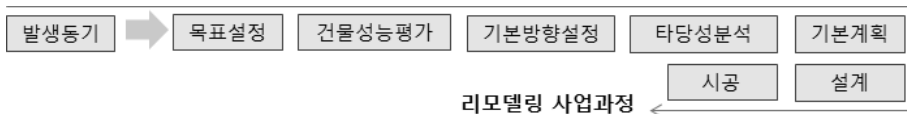
요인	내용			
	• 정보화 대응 - OA기기 대응 - 전원용량 증가	• 에너지 절감 - 에너지절감 공조시스 템 - 친에너지 활용	• 이미지 향상 - 외관 일신 - 인테리어 개선 - 조명 개선	• 공간 변화 - 실 높이 조정 - 시설 면적 증감 - 시설 연결
용도 변화	• 주용도 변경 - 전면적으로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이용 방법의 변경		• 용도 복합화 - 부분적인 용도 변화 - 용도의 추가	

4) 리모델링 사업 대상 및 과정

- 리모델링 대상은 법적 기준과 사업의 필요성(위의 표 참조)에 근거하며, 사업과정 사업목표 규정하는 사업목표 설정 단계, 설문조사와 전문가에 의한 시설평가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단계, 사업기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기본계획 단계, 설계 및 시공 단계로 이루어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1항 1. 급수/배수/오수설비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1항 2.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 등이 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2항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3항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제2절

문화시설 설치 현황

1. 문화시설 설치 현황

가. 유형별 문화시설

○ 2012년 12월 기준, 문화시설 법적 분류를 기반으로 전국의 문화시설 수는 16,869개이며,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8〉 유형별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영역	시설	포함내용		2009	2010	2011	2012
공연 예술	공연 시설	등록 공연장	공공 등록 공연장	406	418	420	443
			민간 등록 공연장	231	213	448	501
		계		637	631	868	944
시각 예술 및 공예	전시 시설	박물관	공립박물관	311	319	342	358
			사립박물관	234	251	262	287
			대학박물관	85	85	90	95
			소계	630	655	694	740
		미술관	공립미술관	33	35	39	40
			사립미술관	102	105	110	124
			대학미술관	6	5	5	7
			소계	141	145	154	171
문학	도서 시설	도서관	국립도서관	3	3	3	4
			공공도서관	4,449	4,191	871	828
			대학도서관	426	434	430	585
			학교도서관	10,937	11,464	11,506	10,719
			전문도서관	586	589	595	634
		계		16,401	16,678	13,405	12,770
기타	지역문 화복지 시설	문예회관		182	193	209	214
		지방문화원		227	228	229	229
		문화의 집		147	156	125	117
		계		556	577	563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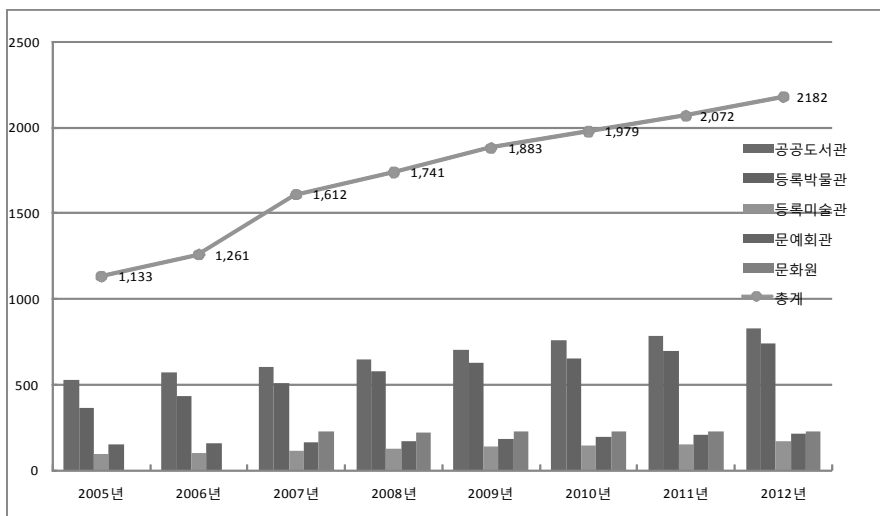
자료 : 2013전국문화시설 총람, 2013공연예술실태조사 재정리

※ 문예회관(공공 등록공연장) 중복 적용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3)을 기반으로 주요 유형의 문화시설은 총 2,182개이며, 증가추이는 2007년 1,612개에서 135% 570개 증가하였음
 - 2012년 총람기준 110개 증가하여 5.7% 증가을 보이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의 경우는 자치단체별 1개 설치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남

〈표 3-9〉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증가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2/07	비고
공공도서관	572	600	644	703	759	786	828	▲228	2
등록박물관	431	511	579	630	655	694	740	▲229	1
등록미술관	103	115	128	141	145	154	171	▲56	3
문예회관	155	161	167	182	192	209	214	▲53	4
지방문화원	-	225	223	227	228	229	229	▲4	5
총계	1,261	1,612	1,741	1,883	1,979	2,072	2,182	▲5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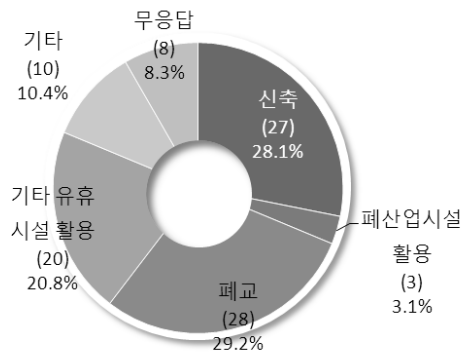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재정리

- 최근 문화시설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96개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신축이

28.1%, 유희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경우가 53. 1%로 타 시설에 비해 비교적 많은 빈도수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2004년을 기점으로 2008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0〉 시기별 창작스튜디오 공간조성방법 및 현황

구분	85	88	97	99	00	01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신축	0	1	1	0	1	1	1	1	0	1	3	3	6	2	0	2	3	1	27
폐산업시설	0	0	0	0	0	0	0	1	0	0	0	1	1	0	0	0	0	0	3
폐교	1	0	2	0	1	3	4	3	3	0	1	3	2	1	1	1	1	0	28
유희시설	0	0	0	1	0	0	0	0	0	2	0	1	2	2	2	5	4	0	20
기타	0	0	11	0	0	1	1	0	1	0	4	0	6	1	1	0	3	0	18
합계	1	1	14	1	2	5	6	5	4	3	8	8	17	6	4	8	11	0	96

자료 : 김연진(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지역별 문화시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문화시설 406개, 서울 299개, 경북 180개 순이며,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수 역시 경기, 서울, 경북 순으로 많고 미술관은 경기, 서울, 전남/제주 순이며, 문예회관은 경기, 경북, 전남/경남, 지방문화원은 경기, 경북, 강원 순임

- 수도권에 총 문화시설의 35.9%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서관 40.6%, 박물관 35.0%, 미술관 42.1%, 문예회관 24.9%, 지방문화원 27.9%가 설치되어 있음

〈표 3-11〉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총괄표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 예 회 관	지 방 문 화 원
	합계	계	지 자 체	교 육 청	사 립	계	국 공 립	사 립	대 학	계	국 공 립	사 립	대 학		
합계	2,182	828	576	232	20	740	358	287	95	171	40	124	7	214	229
서울	299	116	90	22	4	110	22	64	24	32	2	28	2	16	25
부산	76	31	15	14	2	16	6	4	6	5	1	3	1	10	14
대구	61	27	10	12	5	14	6	5	3	3	1	—	2	9	8
인천	78	36	28	8	—	22	10	11	1	4	2	2	—	8	8
광주	46	17	12	5	—	10	5	2	3	7	1	5	1	7	5
대전	51	22	20	2	—	16	4	6	6	5	2	3	—	3	5
울산	29	12	8	4	—	8	6	1	1	—	—	—	—	4	5
세종	6	1	—	1	—	3	1	2	—	—	—	—	—	1	1
경기	406	184	167	11	6	127	58	59	10	36	11	24	1	28	31
강원	167	47	24	22	1	74	43	26	5	10	1	9	—	18	18
충북	111	36	21	15	—	43	26	9	8	7	2	5	—	13	12
충남	132	50	31	19	—	43	27	13	3	8	—	8	—	15	16
전북	117	49	30	18	1	34	24	6	4	3	1	2	—	17	14
전남	162	59	38	21	—	44	29	12	3	18	4	14	—	19	22
경북	180	62	33	28	1	63	38	13	12	7	2	5	—	25	23
경남	160	58	34	24	—	55	37	13	5	8	4	4	—	19	20
제주	101	21	15	6	—	58	16	41	1	18	6	12	—	2	2

출처: 2013 전국 문화시설 총람(총괄표)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지자체별로는 평균 9.49개의 문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서울 종로구가 57개소로 가장 많고 인천 옹진군이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특성으로 인하여 도서관 1개만이 설립되어 있어 가장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남
- 공공도서관은 전국 230개 지자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지방문화원은 5개, 문예회관은 52개, 등록박물관은 34개, 미술관은 149개 지자체에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지자체별 문화시설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합계
합계	828	740	171	214	229	2,182
평균	3.60	3.21	0.74	0.93	0.99	9.49
최대값	17	37	13	5	3	57
	경기수원시	서울종로구	서울종로구	전북전주시	경남창원	서울종로구
최소값	0	0	0	0	0	1
	서울서초구 포함 47지자체	서울 은평구 포함 34개 지자체	서울 성동구 포함 149개 지자체	서울 동대문구 등 52개 지자체	인천옹진군 등 5개 지자체	인천옹진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2년 12월 기준)

다. 인구규모별 문화시설

-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전국 평균 4.28개이며, 공공도서관이 1.63개로 가장 많고, 문예회관이 0.42개로 가장 적음

〈표 3-13〉 시도별 인구10만 명 당 문화시설 수

(단위 : 명/개)

구분	인구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전국	50,948,272	1.63	1.45	0.34	0.42	0.45	4.28
서울	10,195,318	1.38	1.07	0.31	0.15	0.24	2.93
부산	3,538,484	0.87	0.45	0.14	0.28	0.39	2.14
대구	2,505,644	1.07	0.55	0.12	0.35	0.32	2.43
인천	2,843,981	1.26	0.77	0.14	0.28	0.28	2.74
광주	1,469,216	1.15	0.68	0.47	0.47	0.34	3.13
대전	1,524,583	1.44	1.04	0.32	0.19	0.33	3.34
울산	1,147,256	1.04	0.67	0	0.34	0.44	2.52
세종	113,117	0.88	2.65	0	0.88	0.88	5.30
경기	12,093,299	1.52	1.05	0.29	0.23	0.26	3.35
강원	1,538,630	3.05	4.80	0.65	1.17	1.17	10.85

구분	인구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충북	1,565,628	2.29	2.74	0.44	0.83	0.76	7.09
충남	2,028,777	2.46	2.12	0.39	0.73	0.79	6.50
전북	1,873,341	2.62	1.81	0.16	0.90	0.75	6.24
전남	1,909,618	3.09	2.30	0.94	0.99	1.15	8.48
경북	2,698,353	2.29	2.35	0.25	0.92	0.85	6.67
경남	3,319,314	1.74	1.65	0.24	0.57	0.60	4.82
제주	583,713	3.59	9.93	3.08	0.34	0.34	17.3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인구통계 20,012, 12월 기준 재정리

주 : 전국평균 : 총시설수/전국인구, 시도평균 :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시설수의 평균값

- 지자체별로는 강원 영양군이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80개로 가장 많은 반면 서울 노원구가 0.85개로 가장 적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표 3-14〉 지자체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

(단위 : 개/10만 명)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합계
전국평균	1.63	1.45	0.34	0.42	0.45	4.28
최대값	10.00	50.00	10.00	10.00	10.00	80.00
	철원, 고성, 청송,영양,울릉	영양	진도	울릉, 영양	울릉,영양	영양
최소값	0.15	0	0	0	0	0.85
	충북단양	웅진외 34	웅진외 150	웅진외 51	해운대외 4	서울노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2012년 12월)

주 : 전국평균 : 총시설수/전국인구, 시군구평균 : 시군구별 인구 10만명당 시설수의 평균값

라. 문화시설 격차분석

- 문화시설 유형별로 지역별, 인구규모별로 문화시설 격차분석 결과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설치수가 많고 특히 군지역이 인구규모 대비 문화시설 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설 수는 농촌 > 중소도시 > 대도시 자치구 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과소지역평균시설 수 역시 농촌 > 중소도시 > 대도시 자치구 순으로 나타나 일부 대도시 자치구가 농촌보다 문화시설에 의한 문화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인 인구규모에 의하면 군지역이 자치구에 비하여 문화시설 확충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문화공간 이용률을 반영하는 결과임
- 2012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도시규모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전체 39.4%이며 대도시가 35.8%, 중소도시 45.5%로 중소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군지역 58.5%, 중소지역 53.1%, 대도시 50.2%로 나타남

〈표 3-15〉 지자체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 수

(단위 : 개/10만명)

구분	인구규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전국평균		1.63	1.45	0.34	0.42	0.45	4.28
중소 도시 (78)	평균	2.38	2.51	0.43	0.63	0.59	6.53
	과대지역수	31	21	18	33	32	28
	과소지역수	47	57	60	45	46	50(64.1%)
군 (83개)	평균	4.54	5.41	1.17	2.18	2.69	16.11
	과대지역수	37	25	26	36	28	30
	과소지역수	46	58	57	47	55	53(63.8%)
자치구 (69)	평균	1.33	1.24	0.39	0.31	0.39	3.66
	과대지역수	25	16	14	27	23	16
	과소지역수	44	53	55	42	46	53(76.8%)

주 : 평균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 당 시설수의 평균값

구* : 지방자치법 2조 2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에 한하며,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2. 문화시설 운영현황

가. 문화시설 1개당 평균 서비스 인구

- 문화시설 1개가 담당할 인구수는 전국평균 23,349명이며,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32,097명이고 비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8,452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시의 문화시설 평균 서비스 인구가 46,559명으로 공급 대비 문화시설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5,77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시설별로는 공공도서관이 전국 1개당 61,532명, 박물관 68,756명, 미술관 297,943명 및 문예회관 238,076명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시설 1개당 평균 서비스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도서관 및 박물관의 경우는 시설공급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시도별 문화시설 1개당 평균서비스 인구

(단위 : 명/개)

구분	인구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전국	50,948,272	61,532	68,489	297,943	238,076	222,482	23,349
서울	10,195,318	87,890	92,684	318,604	637,207	407,812	34,098
부산	3,538,484	114,144	221,155	707,697	353,848	252,748	46,559
대구	2,505,644	92,801	178,974	835,215	278,405	313,205	41,076
인천	2,843,981	78,999	129,271	710,995	355,498	355,497	36,461
광주	1,469,216	86,424	146,921	209,888	209,888	293,843	31,939
대전	1,524,583	69,299	95,286	304,917	508,194	304,916	29,893
울산	1,147,256	95,604	143,407	-	286,814	229,451	39,560
세종	113,117	113,117	37,706	-	113,117	113,117	18,852
경기	12,093,299	65,724	95,222	335,925	431,904	390,106	29,786
강원	1,538,630	32,737	20,792	153,863	85,479	85,479	9,213
충북	1,565,628	43,489	36,409	223,661	120,433	130,469	14,104
충남	2,028,777	40,576	47,180	253,597	135,252	126,798	15,369
전북	1,873,341	38,231	55,098	624,447	110,197	133,810	16,011

구분	인구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전남	1,909,618	32,535	43,400	106,090	100,506	86,800	11,787
경북	2,698,353	43,521	42,831	385,479	107,934	117,319	14,990
경남	3,319,314	57,229	60,351	414,914	174,701	165,965	20,745
제주	583,713	27,795	10,064	32,429	291,857	291,856	5,779
수도권	25,132,598	74,799	97,037	349,063	483,319	392,696	32,097
비수도	25,815,674	53,470	53,670	260,764	159,356	156,458	18,45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인구통계 2012. 12월 기준 재정리

○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별 문화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문화시설 1관 당 평균서비스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3만 이하 군단위에서 1관 당 평균 서비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는 군 지역 인구보다 5배 많고 문화시설 전체 수 역시 1.6배 많으나 문화시설 1개당 서비스 인구는 4.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만 이상의 구 및 100만 중소도시의 문화시설 1개당 문화시설 서비스 인구는 3만 이하 군단위보다 8~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7〉 문화시설 1개당 평균서비스 인구

(단위 : 명/개)

구분	인구규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전국		61,532	68,849	297,943	238,076	222,482	23,349
시 (78)	50만 이하	46,970	44,621	271,607	192,215	201,515	26,083
	50만~100만	75,965	103,589	379,827	414,357	607,724	48,232
	100만 이상	71,346	201,066	552,932	552,932	552,932	50,266
	전체	57,126	62,854	321,913	261,775	294,093	22,861
군 (83)	3만 이하	17,092	16,192	102,250	38,456	25,637	5,127
	3만~5만	23,063	18,993	75,972	49,674	39,137	6,457
	5만 이상	35,325	34,078	125,941	85,196	78,288	11,098
	전체	28,819	26,139	104,554	66,115	54,827	8,629
구* (69)	50만 이하	87,240	106,922	373,091	373,091	307,636	33,983
	50만 이상	94,364	203,826	727,949	636,955	566,182	49,472
	전체	88,749	119,740	419,091	411,471	342,893	36,56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인구통계 2012. 12월 기준 재정리

구* : 지방자치법 2조 2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에 한하며,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나. 문화시설 1개당 이용객 현황

- 실제 전국 문화시설 1개 당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은 344,693명, 박물관 125,134명, 박물관 76,816명, 문예회관 117,803명, 지방문화원은 23,271명으로 나타남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규모는 비슷하지만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적고 이용객은 많은 현상을 보여줌
- 이는 문화향수실태조사와 다른 결과로 문화시설 이용객 집계방법 등 조사 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여지나 결과적으로 이는 문화시설 이용율은 인구규모나 지역적 차이보다는 문화시설 운영 프로그램이나 접근성 등 그 외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나타냄

〈표 3-18〉 시도별 문화시설 1개당 평균이용객 수

(단위 : 명/개)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비고
전국	344,693	125,134	76,816	117,803	23,271	
서울	520,497	188,798	115,740	329,242	31,786	
부산	581,723	141,158	109,394	122,525	92,749	
대구	415,795	69,129	53,281	178,916	15,660	
인천	364,007	70,738	101,745	102,235	73,550	
광주	462,278	99,954	44,998	154,216	3,350	
대전	329,680	65,580	44,890	101,136	7,123	
울산	374,537	126,721	-	245,183	14,439	
세종	130,349	18,847	-	62,003	9,870	
경기	460,522	69,102	63,874	149,047	12,683	
강원	172,504	115,677	20,199	53,606	4,898	
충북	211,758	47,985	26,952	61,601	49,325	
충남	199,297	151,326	108,457	66,838	20,647	
전북	198,980	105,947	43,257	73,200	8,876	
전남	199,500	174,965	25,897	87,137	7,513	
경북	182,040	93,443	101,549	70,662	26,294	
경남	280,118	137,174	50,233	101,580	3,897	
제주	163,917	229,158	139,570	162,384	6,000	
수도권	470,887	120,077	89,030	197,290	27,753	
비수도권	258,513	127,857	67,934	92,289	21,53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재정리

다. 운영현황

- 문화시설의 경우 운영주체에 이용자 수, 직원 수, 운영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운영적인 측면에서 유료이용자가 문예회관의 경우처럼 20% 내외로서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최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문화시설 인력운영 측면에서 전문 인력 비율은 도서관이 46.90%로 가장 높고 미술관 20.60%, 평균 32.53%로써 시설 운영의 질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쟁점이 되고 있으나 문예회관 유료 관객율은 평균 20.13%이며, 문화원의 자체자금비중은 33.38% 등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3-19〉 문화시설 1개소당 운영현황

(단위 : 명, 명, 천원, %)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합계
평균이용자	344,693	125,134	76,816	117,803	183,762	
평균직원/전문	9.62/4.94	9.07/3.50	9.82/2.02	21.47/8.45	3.28/-	32.53%
평균예산	838,459	-	-	-	448,629	
자체자금비중	-	-	-	-	33.48	

- 남원 대표시설 5개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여 약 344억을 투자 조성하여 년 간 시설 유지관리비만 약 12억이 소요됨. 그러나 시설 관리비의 16% 정도인 약 2억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임

〈표 3-18〉 남원대표 5개 시설물 건립비용/유지비용

(단위 : 억)

시설물	국비	도비	시비	'11관리비	연간수익
국악의 성지	45	18.5	41.5	3.13	0(무료)
훈불문학관	16	10	23	1.63	0(무료)
항공우주천문대	9	2	35	2.86	0.35
춘향테마파크+향토박물관	78.05	13.36	52.78	4.66	1.72
계	148.05	43.86	152.28	12.28	2.07

자료 : 전북일보, 2012.5.28

- 전국 문화시설 과대지역인 종로구의 2014년 문화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224억 4177만원의 13.1%인 29억 4천만원이며, 시설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은 5%미만으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시설관리공단전출금 584,400만원(올림픽기념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유지관리)

〈표 3-19〉 종로구 문화과 예산편성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시설건립	종로문화재단 운영	문화원 지원	축제지원	사찰지원
예산	294,000	20,000	113,637	13,158	26,500	63,600
비중	100%	6.8%	38.7%	4.8%	9.0%	21.6%

라. 문화시설 1개당 가동률

- 문화시설 유형에 따라 가동률의 개념이 다르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휴관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하고 있어 공연장과 차이가 있음
 - 공연장의 경우, 전국 944개 시설(등록 공연시설 : 표 참고)에 포함된 1,188개 공연장 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프로그램의 평균가동률은 55.8%⁸⁾, 기타 행사일수를 포함한 평균 가동률⁹⁾은 67.4%로 나타남

〈표 3-20〉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구분		공연장수(개)	공연가동률(%)	전체가동률
전체		1,188	55.8	67.4
지역별	수도권	640	64.4	73.9
	비수도권	548	45.7	59.8
시설특성	중앙정부	25	96.8	99.5
	문예회관	341	34.8	52.9
	기타[공공]	256	34.6	56.1
	대학로	162	93.1	94.9
	민간[대학로 외]	404	69.4	73.7
운영주체	공공	556	37.7	57.0
	민간	632	71.7	76.5

출처 :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8) \text{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 = \frac{\text{공연일수} + \text{공연준비일수}}{365 - (\text{시설물 점검} \cdot \text{설비일수} + \text{연간휴관일수})} \times 100$$

$$9) \text{ 공연장 가동률(\%)} = \frac{\text{공연일수} + \text{공연준비일수} + \text{기타행사일수}}{365 - (\text{시설물 점검} \cdot \text{설비일수} + \text{연간휴관일수})} \times 100$$

3. 소결

- 문화시설 공급 및 설치에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인구 규모와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화서비스의 균형적 제공 문제였음
- 실제 공급현황 및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인구규모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및 군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에 의한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특히 비수도권의 문화시설 설치 수는 인구규모와 대비수도권에 비해 많아 문화시설을 통한 문화서비스 제고는 문화시설의 양적 수 보다는 질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므로 국민 문화향수 제고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문화시설 공급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4장 ●●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을 위한 모형개발



제1절

이슈 및 쟁점

1. 문화시설 구축형태

가. 신규시설 조성 요구와 기존문화시설 운영 부실 간의 갈등

- 타 시군에 비해 성장 동력, 문화시설 등이 미약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도시민에게 문화향유기회 제공하고, 문화시설과 타 도시기반, 산업시설 등과의 매개로 도시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지속적으로 층위가 다른 문화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국립산업기술관박물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복합공연장), 국립자연사박물관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하는 한편 지역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도서관, 중규모의 미술관/박물관, 문화센터 등을 추진함
- 한편, 문화시설의 운영상의 측면에서 콘텐츠 및 전문인력 등 운영계획 없이 무리한 문화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률 저조, 적자운영, 유지관리비 상승 등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음
 - 문화수용에 대한 시설충족을 신축보다는 기존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충족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수요에 대응한 문화시설 배치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2014년 자치단체장 문화시설 공약사항

강남구청장 ‘문학, 미술, 공연을 아우르는 예술인 창작공간마련 및 운영(서울시 신축 문화공연시설 유치), 울산시장 ‘590억 투자 명품시립도서관 및 중규모도서관(3~4개)건립, 이용자 중심 운영’, 화성시장 최형근후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경기도지사 남경필 ‘마을마다 어르신 문화즐김 센터조성’, 서울시 정몽준 ‘서울의 숲 문화시설 조성’ 등 여전히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조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1차 후보지로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터를 비롯해 북구 강동관광단지, 남구 울산대공원 3곳이 선정됨.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단순한 산업사 전시관이 아니라 울산의 과거 50년은 물론 지식기반 산업과 창조산업으로의 융합을 통해 미래 50년, 100년을 설계하는 극적인 교두보 및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함. 울산중구는 산업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산업단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타 구·군에 비해 성장동력이 미약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울산의 중심이자 종갓집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도 울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국립 공공시설이 유치필요(2014.7.14., 경성일보)

■ ‘부산박물관 비상을 위한 제언-전문인력 확충 수장고 늘려라’(2008.1.7., 부산일보), ‘일단치고보자... 콘텐츠 없는 박물관 난립’(2008.8.10., 한겨레신문), ‘돌지않는 풍차 지방공립미술관’(2009.12.30., 시사저널), ‘도내 공립박물관 전문성 상실’(2010.2.3., 충북인뉴스), ‘감굴박물관 적자 뱉나? 예산투입최소, 마케팅 강화관건’(2010.8.25.제주의 소리), ‘지역공립박물관...예산낭비’(2010.11.17kbs), 12개 공립 박물관 하루 평균 10명 미만 관람(2011.9.19., cbs 노컷뉴스), 천덕꾸러기 부평역사박물관(2011.10.10. 인천일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문제는 1) 무리한 건립 2) 콘텐츠(소장자료 및 전시 등) 및 인력부족 3) 적자운영 및 홍보부족 4) 관람객 저조 5) 시설낙후 및 공간부족 등으로 나타남(윤태석, 4.16 서울문화투데이, 정리)

■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우환 미술관은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대구시의회도 건립에 부정적인 기류여서 2015년 12월에 준공, 2016년 6월 개관은 정상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이우환 미술관은 유치 구상단계부터 대구미술관 활성화와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은바 있음. 건축비만 297억원, 미술품 구입비용 100억원을 합치면 400억원이 예산이 소요. 대구시안팎에서는 실제 건축이 시작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비는 20~30% 인상되고 연간 운영비 또한 대구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건축비 675억원과 진입도로 750억원이 투입된 대구미술관은 민간투자자로 건립돼 대구시가 원리금 896억원을 2030년까지 매년 약 44억씩 20년 동안 갚아야 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 운영비로 연간 약 116억원을 사용할.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가 시립미술관 하나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또 다른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우환 미술관을 새로 짓지 말고 시립미술관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여론이 형성됨(2014.7.03.blog.nver.com/gbdally)

■ 전남 32개 공립박물관 애물단지 전략

2013년 9월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립박물관 총 32개 운영지수는 2010년 136억8300만원, 2011년 151억9500만원, 2012년 159억9000만 등 모두 448억 6800만원의 적자 기록. 실제 여수시 A문화관 등은 최근 3년간 평균관람객이 1만명(1일당 30명 미만)에도 미치지 못했고, 영암군 왕인박사기념관 등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소장유물이 부족해 박물관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박물관 건립한 각 지자체에서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위한 사전평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과 사후평가를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박물관 확충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만 중점을 두고 운영한 것이 드러남 (광주일보, 2013.9.17.)

나.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수요 충족 가능성 확대

1) 기존 문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화적 기능 수행능력 저하

- 최근 문화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 기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현재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이 974개 44.6%로 사회적 요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전국문화시설총람기준 2,182의 문화시설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은 509개 23.33%이며, 건축물 내구연한인 30년이 경과된 시설은 210개 9.62%이고, 세법이 요구하는 건축물 내구연한인 4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은 255개 11.67%에 이름
 - 건축 설비시설의 경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에 불과하여 설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은 1,885개 86.3%에 이름

〈표 4-1〉 문화시설 개관년도(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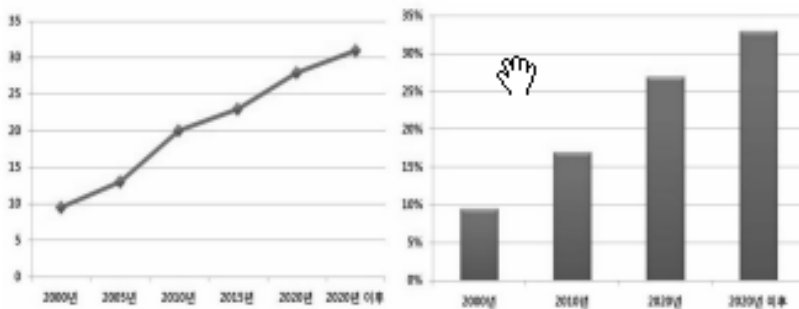
구분	전체	1959년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2
도서관	828	9	14	52	90	213	320	130
박물관	740	13	16	32	57	121	397	104
미술관	171	-	2	2	8	40	91	28
문예회관	214	-	1	3	30	68	85	27
문화원	229	20	78	13	25	67	18	8
전체(수)	2,182	42	111	102	210	509	911	297
비율(%)	100	1.92	5.09	4.67	9.62	23.33	41.75	13.61

2)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성장 및 비중 증가

- 한편, 세계 리모델링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리모델링 시장전망은 2000년 9억5천 만 원에서 2020년 28조원 달하며, 전체건설 시장의 30% 이상의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유럽시장의 경우 리모델링 건설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3-35%이며, 이탈리아 47%, 프랑스, 영국 등은 43%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시장의 비중이 높음

- 국내 전체 건축물의 리모델링 착공면적이 2002년 13.3%에서 2010년 18.5%로서 5.2% 증가하는 등 2000년 이후 주택부분보다는 도시지역의 사무실, 상업용건물, 병원 등 특수건축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함



[그림 4-1] 리모델링 시장 규모 및 전체 건설투자에 차지하는 비율

3) 유희공간(시설)의 활용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증가

- 박근혜정부의 문화시설 정책은 주민생활권 기반으로 하는 일상 속 문화공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희시설(공간)의 문화공간화사업으로 지역 내 유희 자원의 활용이 쟁점으로 부상됨
 - 극장 없는 기초자치단체 대상 작은 영화관 건립(유희시설 리모델링, 신축), 유희시설 및 노후문화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교정시설, 군부대, 범죄취약시설 등 사회적 취약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 등 사업이 추진
- 그 외 「도시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2012)」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정비법및촉진법」에 의한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으로 도시의 유희시설이나 역사문화/건축자원의 문화공간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2013년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개의 지역 중 12개의 지역이 문화예술을 연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 11개의 지역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조성을 제안하고 있음

〈표 4-2〉 도시재생 선도지역(2013) 사업현황

구분	도시명	사업내용	신축	유휴	기존
근린 일반 규모	경남창원	문화거리조성, 창작공예촌(빈점포이용), 축제, 역사 탐방		●	
	경북영주	한옥상가(근대건축물), 청년창업공예공방, CB		●	
	광주동구	예술마을,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문화의거리(공 방), 문화답사프로그램, 예술창업지원		●	
	서울종로	마을예술(벽화), 역사소재발굴, 축제		●	
	전남목포	근대유산 리모델링(전시관 등)		●	
	전북군산	전시관(근대), 철도관광연계, CB		●	
근린소 규모	강원태백	-			
	대구남구	창작지구조성, 박물관, 창작센터조성, 문화인력양성	●	●	
	전남순천	창작촌(+CB), 문화거리조성, 축제			
	충남공주	박물관조성, 역사콘텐츠개발, 문화유산보존	●		
	충남천안	문화예술 스튜디오, 다문화센터조성, 문화거리조성		●	●
경제 기반	충북청주	시민예술촌(행복주택), 아트팩토리(연초제조창)	●	●	
	부산중구	창조지식플랫폼조성, 특화가로조성,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청년문화사업활성화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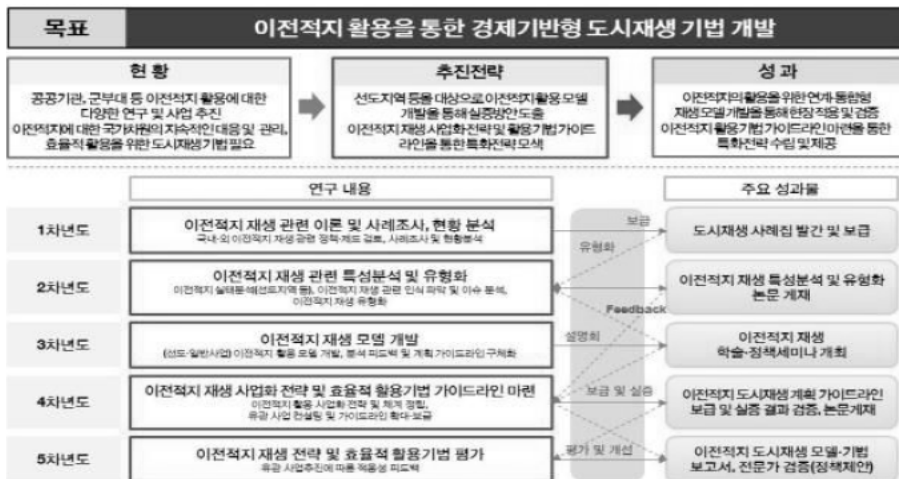
■ 소각장시설의 문화복지시설 전환추진

-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에 대한 도시발전 측면에서의 입지문제, 현 소각장 시설의 내구연한(15년) 도래,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방안을 검토
- 상무 소각장 문화시설 전환사업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번지
 - 부지면적 : 31,871㎡(건축면적 : 15,897㎡)
 - 공사기간 : 완전이전 시부터 2년간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시비+민간) 소요 전망

다. 새로운 문화시설 요구에 따른 시설구축 형태 결정을 위한 가이드 유무

- 도시마케팅 요소, 도시재생의 하나의 기법, 국민 삶의 질 향상의 하나의 요인, 개인 감성 및 자기개발 요건, 치유와 사회통합의 방법 등으로서 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문화시설과 성능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목적과 지향점과 달리 ‘건립’ 우선, 후 운영으로 추진된 시설은 부실 운영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시설 낭비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지역의 새로운 문화수요에 대응하여 신축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 문화 시설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문화시설조성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또는 기존시설 활용> 간의 비교를 통해 시설구축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또는 지침은 없으며, 아울러 기존 시설 활용에 있어 어떤 용도/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기법에 대한 연구 및 지침도 미비함



[그림 4-2] 도시재생 기법개발 단계 및 내용

- 2014년 국가 R&D ‘도시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의 세부과제로 도시재생기법인 이전적지 활용을 위하여 5년간 현황조사에서부터 이전적지 특성분석 및 유형화, 이전적지 재생모델개발 및 사례지에 적용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가이드를 개발하고 기법을 평가하는 <이전적지를 활용을 통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시설 구축형태에 대한 적절한 기법(지침)개발이 필요함

2. 문화시설 공급 및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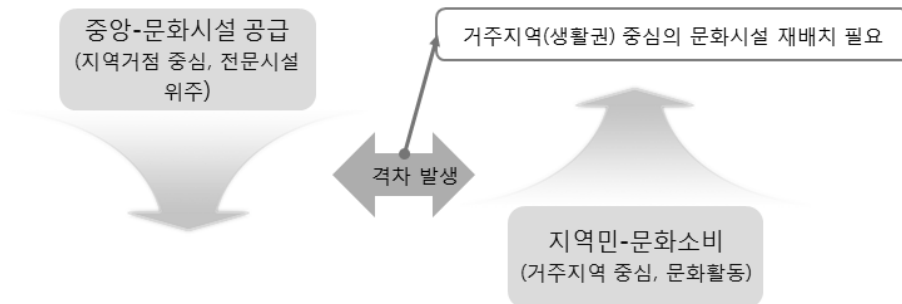
가. 공급자 중심, 성과목표에 의한 공급방식에서 오는 수요자 간의 온도차

- 현재 준용되고 있는 문화시설 공급기준은 OECD 주요국가의 평균문화시설 보유수를 목표로 인구규모에 따른 공급방식을 선택하여 목표연도까지 몇 개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도서관은 2018년까지 1,100개관 건립을 목표(4만 5천 명 당 1관), 미술관/박물관은 인구 5만명당 1개소 설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시설 확충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국민문화수요에 대비하여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전략적으로 일정 규모에 이르기까지 문화시설을 빠르게 공급하고자 할 때 유의미한 방식이었으나 이미 일정수의 문화시설이 공급되어 더 이상의 새로운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의 시설이용 행태를 미루어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됨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행사 주요선택 기준으로 ‘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이 40.9%로 2010년 조사 39.0% 대비 1.9% 증가한 반면, 관람비용의 적절성은 21.5%로 2010년 38.3% 대비 16.8%나 감소하고 거리근접성은 6.6%를 나타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실제 지역민의 문화시설 이용행태를 살펴보면¹⁰⁾ 거주지역내 위치한 예술공간 이용률이 70%이상이며, 특히 사설 문화센터(5.3회), 주민자치센터(4.8회), 복지회관(4.8회) 순으로 이용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외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은 박물관(28.9%), 문화원(24.2%), 민간공연장(22.3%) 순으로 나타남
 - 시설별 행사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공연장 순으로 높음
- 이에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지역거점 중심으로 이루어 있으며, 지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문화시설은 민간문화

10) 문화체육관광부, 2012문화향수실태조사, P173

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문화공간이 활용되고 있어 공급과 소비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현 정부의 문화정책 또한 일상생활문화를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과 향유 간의 온도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4-3] 문화시설 공급자 VS 수요자 간 격차

나. 문화시설과 유사문화시설¹¹⁾분류 및 관리체계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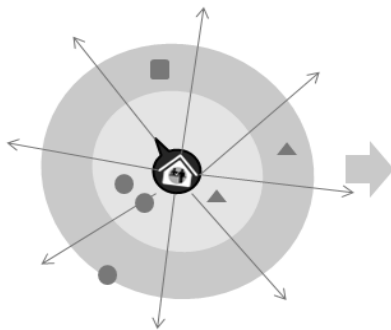
- 기존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문화 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이 지역에 보급되었으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새로운 문화수요에 대응하여 ‘누가, 어떻게, 무엇을’에 대한 정책 판단이 어려워 일부지역에서 중복시설, 과잉설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문화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시설의 분류와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하는 활동의 종류와 가능성, 근접도 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함
 - 실제 공급자 중심으로 시설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역시 관련 부서별로 시설을 유치/조성함에 따라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민의 관점에서는 생활 속 문화향유 공간과 거리가 있는 시설로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함

11) 법적으로 문화시설로 분류되지 않거나 타 부처에서 다른 용도로 설치한 것 중에서 문화예술 진흥, 향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공간으로 아트센터, 사설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 전시관, 홍보관, 복지회관의 문화교육관 등이 이에 해당됨



■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도산면 동부리 일대에 건설되는 국비 2천 450억 원, 도비 315억 원, 시비 735억 원 등 3천 5백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안동시의 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안동문화관광단지에 건설되고 있는 유교문화센타와도 중복투자가 문제되는 등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누군가의 의지에 의하여 예산은 확정되었고 곧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될 예정임

- 이에 문화소비자 관점에서 공공, 민간차원을 넘어 지역의 문화활동 가능 시설(문화시설+유사문화시설)등 통합 조사하여 지역민의 문화수요 대비 문화시설 충족도/부족부분 등의 분석을 통해 생활권에 따른 새로운 문화 시설 공급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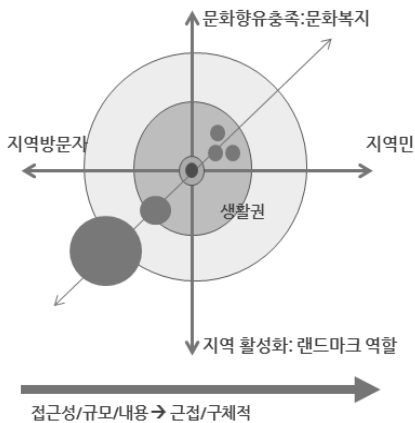
문화소비자 관점에서 생활활동범위와 연계하여 활동내용과 문화시설의 층위를 설정 ← 지역내에 분포된 공급주체별로 다양한 문화시설/유사문화시설을 생활권 별로 구분하여 조사: 시설현황 및 이용가능 문화활동 내용 등

〈표 4-3〉 문화시설 공급자 VS 수요자 측면에서의 유형분류

구분		수요자 측면: 이용자 활동 권역(예)		
		일상 생활권 문화시설	거점중심 생활권	광역권 문화시설
공급측면	공공운영	문화의집, 마을회관등	문화회관, 도서관	국공립 공연장 등
	민간운영	민간문화센터 등	사립 박물관 등	LG아트센터 등
	상업공간	농협문화센터 등	영화관	백화점 문화센터

다. 문화시설의 특수성 반영 여부

- 문화시설의 경우 설립목적에 따라 조성 위치를 비롯하여 건축계획,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 문화시설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기반 시설로 접근하였으며, 실제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 기준 또한 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시설 도입과 도시재생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시설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문화시설을 도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문화시설은 문화서비스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도 조성위치 및 건축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문화시설 공급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이러한 내용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의 서비스 대상이 지역민이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즉 문화복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 문화시설은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시설로 접근성이 높은 근린생활권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시설의 서비스 대상이 방문객(지역민을 포함하여 방문객을 고려하는 경우)이고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될 경우는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가진 차별화된 건축디자인의 전문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지역의 유휴공간(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구조 및 계획 변경이 용이한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전시 및 교류시설로 활용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활용 대상(공장 등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교통시설, 군사시설 등)에 따라 전환 가능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수한 요건이 적은 공원, 창작스튜디오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교류시설 등으로 주로 조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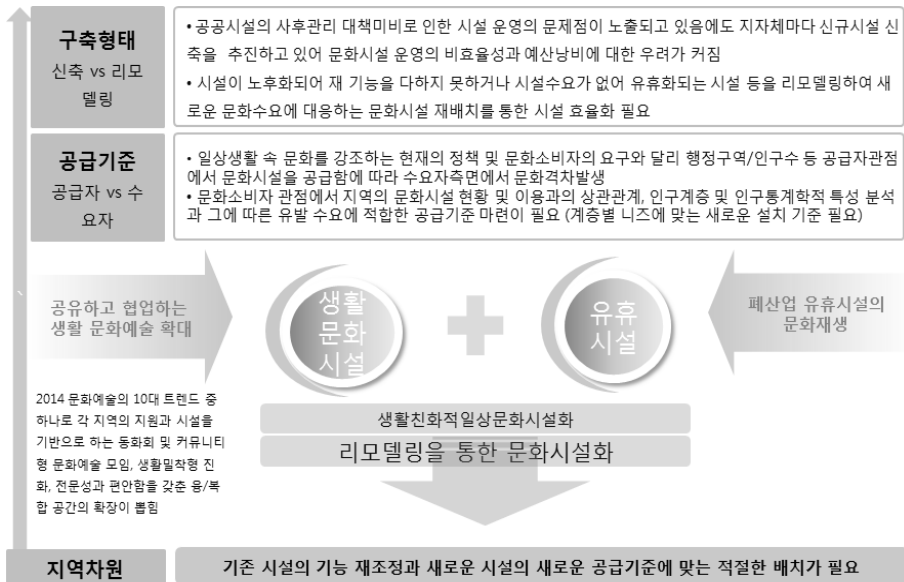


02 문화시설의 특수성

1	문화시설 설립목적
지역민의 문화복지 VS 지역활성화 측면 등으로 접근: 시설 형태, 서비스 내용 달라짐 - 지역민문화복지: 근접성, 소규모, 교육/체험/소통 중시 - 지역활성화: 랜드마크로서 건축형태, 특화내용 중시	
2	문화서비스 대상
지역민 대상 VS 방문객 대상에 따라 설치기준 다름 - 지역민대상: 소규모 복합화경향 - 방문객대상: 대규모 전문화경향	
3	문화서비스 내용(예술장르)
문화시설 유형에 따라 건축계획, 콘텐츠구성 및 공급주체, 방법 등이 달라짐 - 문화시설 유형에 따라 위치, 공간, 내용 달라짐	

3. 지역 및 수요자 관점에서 문화시설 재배치

-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급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수요와 문화시설 실태, 문화공간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유·휴·자·원 및 시설) 현황 등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시설 설치 및 배치 방안이 필요함
 - 현재 단일 시설 중심의 '○○시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수요에 대응하여 문화시설 및 이용 상황, 가용 가능한 지역시설 및 활용 방법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검토 제고
- 이렇게 지역차원에서 문화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중앙 모두 객관적으로 계획하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의 기능 조정 및 재배치를 위한 기준 및 가이드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지역의 문화수요에 대응한 문화시설 설치 방법 및 운영 등의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에서 지원해야하는 문화시설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보다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4] 지역차원에서 문화시설 설치 방향

제2절

모형개발 방향

1. 모형개발의 필요성

- 문화시설별로 OECD 주요국가의 평균 설치 수를 기준으로 인구수 및 행정 구역에 의한 최소기준으로 문화시설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수 보다는 지역 간의 수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인구대비 문화서비스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음
 - 문화서비스 인구 당 대도시의 자치구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비교 시 대도시의 자치구가 상대적 문화시설 과소지역으로 나타남
- 아울러 도시 간 인구이동이 증가 또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인구 계층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한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문화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서비스 수요 발생
 - 기존의 문화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주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하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등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함
- 최근 도시재생 및 도시브랜드 정책의 하나로 폐 산업시설이나 학교, 업무 시설 등 지역 유희자원을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대응 방안이 필요함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도시재생사업(건설교통부), 농어촌 문화공간 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 전개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 모형개발의 방향

가. 기본 가설

1) 신규(신축)과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은 다른 기준을 가진다.

- ‘문화시설 기능 조정과 문화시설 재배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문화시설 간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문화시설 기능 조정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리모델링은 크게 시설낙후가 원인이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 용도는 존치하고 기존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형태 또는 물리적 낙후 정도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시설 활용도(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형태 등이 있음
 - 문화시설 재배치는 한 지역의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소/과잉 기능을 분류하고 상호 겹침 없이 재분배 또는 조정하는 형태로 신축과 리모델링이 동시에 가능함
- 실제 지역 내에서 문화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신규로 발생하는 문화수요와 기존 문화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신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축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함
 - 신규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는 신축, 기존시설 활용이 있으며 기존 시설은 문화시설과 지역 내 유희자원(시설 및 공간)으로 구분 가능함
- 그렇다면, 문화시설 신축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기존시설을 활용한다고 하였을 경우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가? 문제가 도출됨
 - 신축의 경우는 용도가 정해졌다는 가정 하에 ‘위치’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며, 기존시설 활용의 경우는 위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도와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2) 문화시설의 유형별 설립 목적 및 서비스 대상에 따라 설치 기준 등이 다르다.

○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비스 대상의 범위, 시설형태 및 규모, 위치 등이 달라짐

- 최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설립이 가져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략적 문화시설 계획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브랜드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략적 문화시설의 경우 디자인 형태에서부터 설립위치, 콘텐츠, 운영방법 등 모든 측면에서 특화/차별화를 지향하고 있음
- 특히 도심중심부 또는 재생을 요구하는 지역 중심부에 시설을 위치시켜 방문객 유인 및 도시경관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파리 퐁피두 센터임



■ 퐁피두센터

유흥시설이 대부분이었던 슬럼화된 마레지구에 1969년 '예술관 사회교육을 위한 문화센터'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

- 1971년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하여 독특한 디자인의 렌조피아노와 리처드로저스의 설계로 1977년 개관
- 낙후지역을 문화예술로 재생함으로써 지역의 슬럼화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각광받으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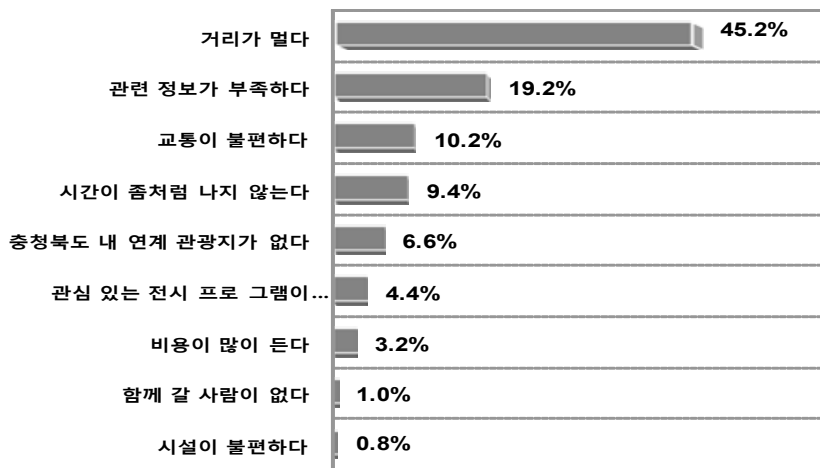
3) 문화시설 이용은 일상 생활권과 문화집적도, 거리와 관계있다.

○ 2012년 문화향수실태 조사결과 70% 이상이 거주 지역 내에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고 타 시설과 연계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선호함

- <표 3-5>에서 같이 이용율이 높은 시설일수록 생활중심지에 있는 확률이 높고 다중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아 시설 이용과 시설의 위치,

생활권 및 타 시설과의 연계활용 가능성이 상관관계가 있음

- 실제 충청북도 내 박물관/미술관 이용에 대한 조사결과 ‘거리가 멀다’(45.2%), 관련정보가 부족하다(19.2%), 교통 불편(10.2%), 시간 부족(9.4%), 충청북도 내 연계 관광지의 부재(6.6%),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4.4%), 비용 문제(3.2%) 순으로 나타나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거리와 교통, 연계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됨



[그림 4-5] 충청북도 내 박물관/미술관 이용시 애로사항

4) 인구계층 및 인구구조에 따라 문화수요가 다르다.

- 2012년 문화향수실태 조사결과 성별, 연령대 별로 선호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¹²⁾
 - 성별 예술행사 직접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여자(6.4%), 남자(4.7%)로 차이가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직접참여 의향이 7-7.8%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문화예술교육 등에 경험율은 낮은 편임
 - 문화시설 방문 의향은 여자(41.3%), 남자(33.5%)이며, 10-30대 연령의 방문의향이 40%로 중장년층에 비해 높음

12)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희망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남, 여 그리고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며, 20-30대는 공연관람 및 영화관람 등 전반적인 문화활동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남

〈표 4-4〉 희망 참여 프로그램(최고 사례수)

구분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문학강좌		●					●		
공연관람		●		▲	▲				●
미술전시	●					●			
영화관람	●		●	▲	▲				
예술교양강좌	●							●	
예술창작프로그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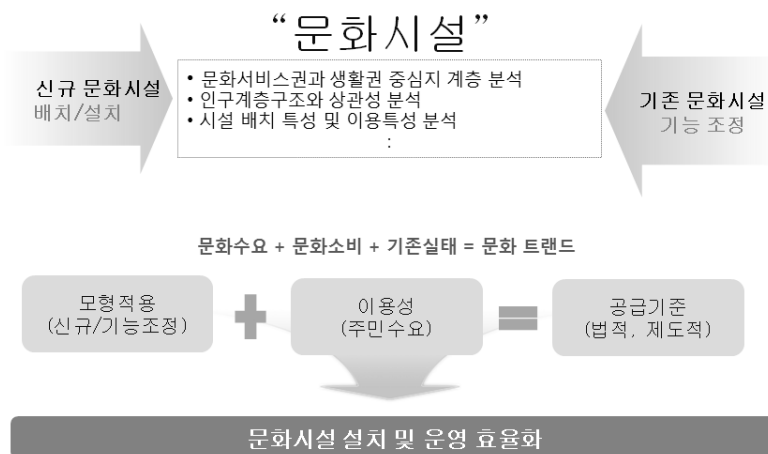
〈표 4-5〉 문화예술교육 경험(최고 사례수)

구분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문학교육	●		●						
미술교육	●		●						
서양음악교육	●			●					
전통예술교육	●							●	
무용교육	●						●		
연극교육	●			●					
뮤지컬교육	●		●						
영화교육		●	●	▲	▲	▲			
대중음악교육		●					●		▲
역사문화유산교육		●	●						

나. 모형개발 틀

1) 개발방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과 기타 사업에 의해 설치 조성된 유사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관련 지역문화시설 기능 조정 및 배치에 따른 신규 시설 배치 및 공급 기준 마련
 - 문화시설 정책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따라 문화수요, 생활권, 인구계층 구조, 접근성, 문화서비스 이용권 및 공급권 등을 고려한 새로운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로 있는 문화시설과 별도로 중앙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유사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 실태 등을 조사하여 신규 문화시설 설치 기준을 조정함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유희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 내 문화시설 기능 및 재배치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꾀함
 - 신규시설 설치에 앞서 기존 문화시설 및 유희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자원의 효율화 및 시설 중복 최소화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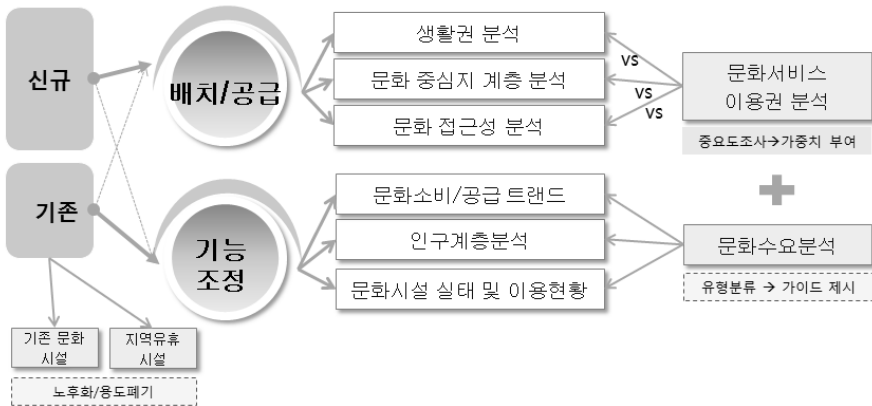


[그림 4-6] 기본방향

2) 모형개발 틀

- 문화시설 기능조정 및 배치를 위한 본 연구는 신규문화시설의 공급 및 배치를 위한 모형과 기존문화시설의 기능조정을 위한 모형으로 구분함
 -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을 충족하는 방법은 새로운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으며, 새로운 문화시설 확충 방법은 신축 또는 유희공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문화시설 조성방법은 신축과 기존시설 리모델링으로 구분 가능함
-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모형은 ‘시설이용’과 ‘시설위치’ 간의 상관성을 중요 결정 요인으로 설정함
 -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화소비주체의 생활권, 생활중심지와 문화중심지 계층, 문화시설 접근성(교통체계), 현재 문화소비이용권 등을 분석하여 향후 일상의 문화이용권 내에서 문화시설 우선 설치 방향으로 유도
 - 특히 문화중심성은 문화공급 및 수요 밀집도를 의미하기에 타 문화시설 연계 이용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짐
 - 이때, 문화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지역균형도 차원과 문화시설의 상징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위치를 결정함
- 문화시설 기능조정 모형은 ‘인구계층’과 ‘문화수요’간의 상관성을 중요결정 요인으로 설정함
 - 문화시설 및 가용 가능한 지역 내 유희자원을 토대로 시설위치를 고려하여 지역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한 기능조정 모형(기법)을 개발함

- 현재의 공급기준을 벗어나 신규 문화시설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설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유희시설의 문화공간화) 등에 따른 공급(배치 중심)기준 및 기능 조정을 위한 모형 개발
- 공급 및 배치모형: 문화서비스 이용권(생활+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을 활용한 모형 개발
- 기능 조정 모형: 문화수요(인구계층분석 등에 의한)분석을 활용한 모형 개발



[그림 4-7] 모형개발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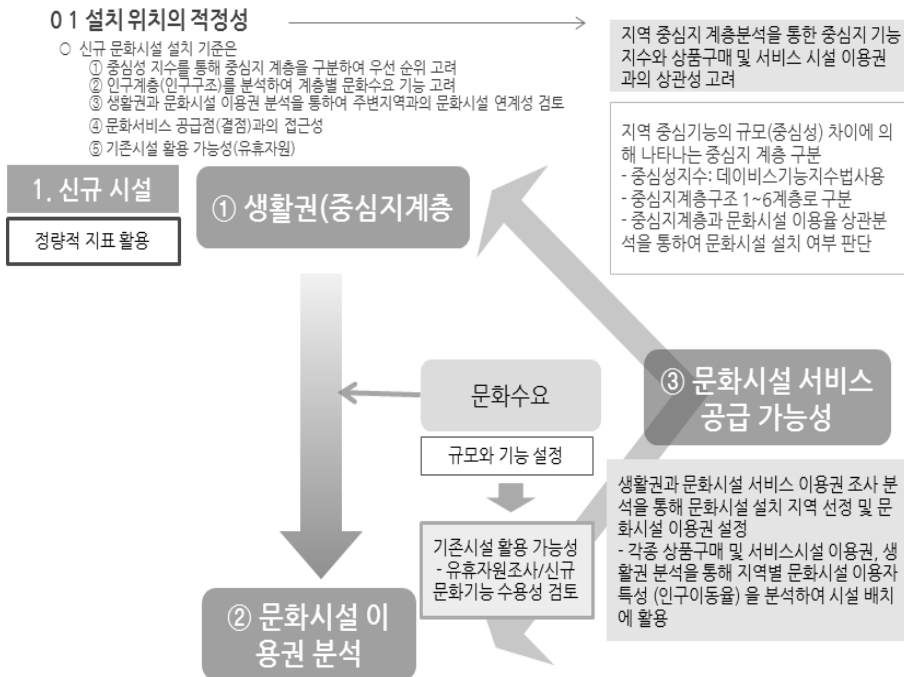
제3절

모형개발

1. 신규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모형

가. 분석개요

-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모형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시설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생활권과 생활 중심지계층, 교통접근성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문화이용권을 설정하고 시설의 적정 위치를 판단함
- 문화중심지 계층 및 문화시설접근성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 등 제고로 공급 우선 지역 결정 자료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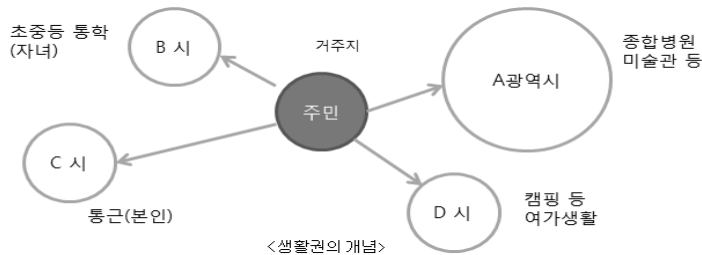


[그림 4-8] 조사 및 분석 내용

나. 문화생활권 분석

1) 개념

- 전국 어디서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의 설정함
- 주민 및 지자체의 자율적인 주도아래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서비스 이용 공간을 설정하여, 고차서비스·복합서비스·기초생활 서비스의 기능을 분담(지역발전위원회, 2013)



[그림 4-9] 생활권의 개념

2) 구성기준

- 생활권 설정 시 접근성, 기능적·지리적 관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자체 협력의지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간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
- 구성은 정량적 및 정성적인 근거자료로 지자체 간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생활권으로 구성(지역발전위원회, 2013)

〈표 4-6〉 지자체간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종류

구분	정량지표	정성지표
연계성 기준 지표 종류	- 지자체간 통근통행지표 -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권 - 산업·경제 연계지표 등	- 지자체간 연계협력 의지 - 연계협력 실적 등 사회적 통합성 -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

3) 분석방법

- 지역 간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분석을 수행함

① 역사/문화적 동질성

- 문화권은 인문지리학 및 인류학적 개념에서 본래 문화요소의 지리적 분포를 밝혀 공간을 구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어, 동질적인 문화적 특성이 발견되는 공간적인 권역을 말함¹³⁾
 - 행정구역 개념보다 관습/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구분되어 접근하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문화권과 관계가 있음

② 통권연계구조 및 통근권

■ 분석방법

- 지역 간 연계성과 중심성은 지역 간의 관계, 지역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
- 따라서 전국 230개 시·군·구의 통근통행 O-D표를 이용하여 동일권역으로 묶이는 시·군·구를 계층적으로 선정함
 - 일반적으로 O-D행렬에서 $x_{ij} \neq x_{ji}$ 이기 때문에 도착과 출발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i 지역과 j 지역 간의 통근통행량은 $\frac{(x_{ij} + x_{ji})}{2}$ 로 계산함
 - 지역의 인구가 크면 통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크기를 고려하기 위하여 야간인구 대비 통근통행량을 계산함

$$\frac{(x_{ij} + x_{ji})}{(P_i^N + p_j^N)}$$

13) 지역문화의 공통분모적 특성을 광역적으로 접근하여 적정화한 하나의 공간단위이고, 권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엄격하게 선적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분, 중첩도 인정해야 된다.

-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을 사용하고, 통근통행 O-D행렬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

〈표 4-7〉 통근통행 O-D행렬

D O		지 역						출발 합계	재택자	야간 인구
		D_1	D_2	...	D_j	...	D_n	X^O	H	P^N
지 역	O_1	x_{11}	x_{12}	...	x_{1j}	...	x_{1n}	X_1^O	h_1	P_1^N
	O_2	x_{21}	x_{22}	...	x_{2j}	...	x_{2n}	X_2^O	h_2	P_2^N
	$\vdots$	$\vdots$	$\vdots$	$\ddots$	$\vdots$	$\ddots$	$\vdots$	$\vdots$	$\vdots$	$\vdots$
	O_i	x_{i1}	x_{i2}	$\ddots$	x_{ij}	$\ddots$	x_{in}	X_i^O	h_i	P_i^N
	$\vdots$	$\vdots$	$\vdots$	$\ddots$	$\vdots$	$\ddots$	$\vdots$	$\vdots$	$\vdots$	$\vdots$
	O_n	x_{n1}	x_{n2}	...	x_{nj}	...	x_{nn}	X_n^O	h_n	P_n^N
도착합계	X^D	X_1^D	X_2^D	...	X_j^D	...	X_n^D			
재택자	H	h_1	h_2	...	h_j	...	h_n			
주간인구	P^D	P_1^D	P_2^D		P_j^D		P_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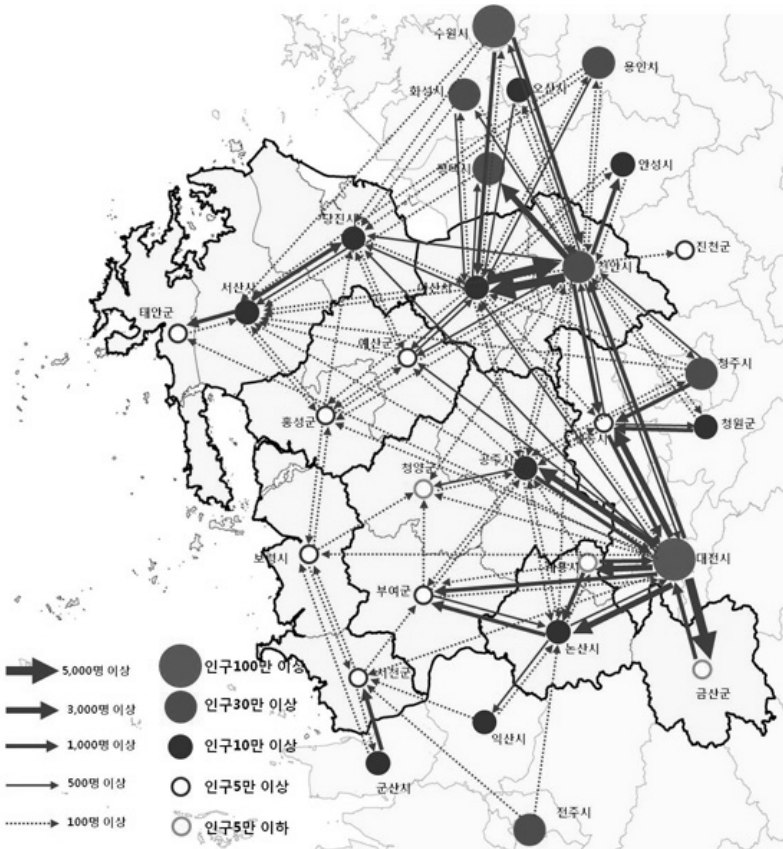
▷▷ 시/군 단위에서 일상문화생활권에 대한 분석은 읍/면/동 단위로 통근/통행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통행량 조사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는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과 연계하여 조사/분석 방안 필요함

■ 사례분석¹⁴⁾

○ 충청남도 및 주변 시/도간 시/군 통근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충청남도 및 주변 시도 간의 시군 통근통행량 분포에 있어서 대전, 천안, 청주가 가장 큰 결절로 나타남
- 시군별로 보면, 천안아산은 연계가 가장 강한 한편, 경기 남부의 시군과의 연계도 강함. 다음으로 대전과 금산, 공주, 논산, 계룡 간의 연계가 강하며, 서산당진-태안 및 논산부여 간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서천은 군산과의 연계가 강하고, 보령홍성예산청양은 주변지역과의 통근밀도 자체가 낮음

14) 김정연, 충청남도 및 시군별 중심지계층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13 분석틀 및 분석자료를 토대로 문화시설 공급에 필요한 생활권 및 문화서비스이용권, 문화생활권 등에 대한 모형을 개발함



[그림 4-10] 충남 및 주변 사도의 사군간 통근통행량 분포도

③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

■ 분석방법

-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읍면동별로 가능한 30부씩 이상의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은 생활필수품, 생활편의시설, 농업물품, 가전제품, 진료, 종합병원, 경제활동, 친지방문 및 친지모임, 각종 사회모임, 문화여가체육활동, 민원행정서비스 등 일상생활 활동과 연계한 주요요소를 추출하여 진행함

- 이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품구매권의 O-D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의 O-D그림을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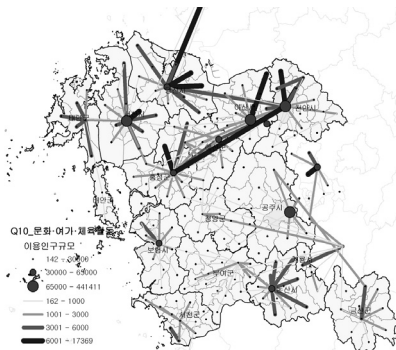
■ 사례분석

- 문화여가체육활동은 문화행사, 취미강좌, 헬스 등을 말하며, 고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გი지역 읍면의 경우 59%, 자გი지역 사군청 소재지의 경우 31%, 주변지역이 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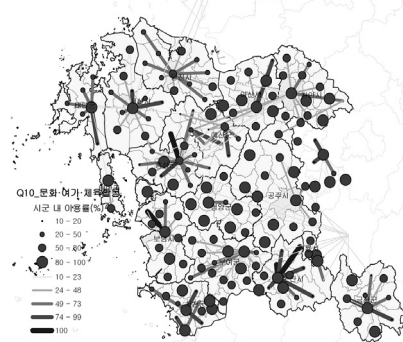
- 일부도시에서 자기 읍·면 이용과 시·군청 소재지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이며, 특히 예산군의 경우 주변지역 시·군청 소재지에서 31%의 이용비율을 보임

〈표 4-8〉 문화/여가/체육활동분석결과

Q10	해당시·군			주변지역		
문화·여가·체육활동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시·군청 소재지	읍·면	시·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59%	3%	31%	0%	3%	3%
천안시	75%	-	25%	-	-	-
공주시	68%	3%	17%	-	3%	9%
보령시	79%	1%	20%	-	-	-
아산시	73%	-	24%	-	-	3%
서산시	52%	1%	47%	-	-	-
논산시	39%	6%	47%	5%	1%	1%
계룡시	88%	3%	3%	-	-	8%
당진시	47%	-	48%	-	2%	4%
금산군	62%	10%	27%	-	-	1%
부여군	63%	-	34%	-	2%	1%
서천군	60%	8%	30%	-	2%	-
청양군	83%	-	15%	-	1%	1%
홍성군	44%	-	47%	-	3%	6%
예산군	19%	12%	33%	-	31%	6%
태안군	53%	4%	41%	-	3%	-
세종시	68%	-	24%	-	4%	5%



Q10-1_문화여가체육활동(이용인구 규모)



Q10-2_문화여가체육활동(시·군 내 이용률)

④ 시/군간 산업연계구조

■ 분석방법

- 시·도단위 지역산업연관표¹⁵⁾에 대해서 생산물혼합기법(Product Mix Method)¹⁶⁾을 이용하여 시·군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 시범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시·군단위에서 지역 간, 산업 간 재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 문화상품 및 인력, 산업의 이동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수요와 문화공급(시설외 콘텐츠, 인력, 산업 등)간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례분석

- 대부분의 지역이 시·군 모두 자기 시·군의 중간재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산업 이동비율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표 4-9〉 지역별 중간재화 조달비율(예)

지 역	지역별 순위(%)							
	전산업	정밀기계	1차 금속	전기전자	수송	문화산업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천 안	아산 (11.6%)	아산 (11.1%)	아 산 (10.0%)	아산 (15.9%)	아산 (23.3%)	아산 (14.7%)	아산 (11.0%)	아산(8.0%)
	세종(2.9%)	세종(2.8%)	당진(9.3%)	세종(3.8%)	서산(3.9%)	세종(4.9%)	공주(6.2%)	공주(6.8%)
	당진(2.7%)	당진(2.3%)	공주(4.2%)	당진(2.5%)	당진(3.8%)	공주(4.1%)	논산(4.3%)	논산(5.2%)
아 산	천안 (24.5%)	천안 (29.0%)	천안 (20.0%)	천안 (35.2%)	천안 (24.7%)	천안 (15.0%)	천안 (24.4%)	천안 (16.8%)
	당진(7.6%)	당진(6.2%)	당진 (19.9%)	당진(5.5%)	서산 (10.7%)	서산(9.0%)	서산(7.0%)	당진(8.7%)
	서산(6.8%)	서산(3.9%)	서산(5.1%)	세종(4.2%)	당진(7.1%)	당진(6.4%)	당진(6.5%)	예산(7.3%)

⑤ 생활권 설정

- 현재의 생활권은 지역별항목별(통근통행, 상품서비스이용, 산업연계 등)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상생활 문화소비 및 문화서비스권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15) 지역산업연관표는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경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하며, 세분화된 지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역의 경제상황과 비교, 검토될 필요가 있음

16) 생산물혼합기법은 지역의 세부 산업구성을 이용하여 상위 산업의 기술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역이 세분화되어도 산업간 기술구조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가정함

다. 생활중심지 및 문화중심지 계층분석

1) 개념

- 중심지계층의 개념은 생활인프라 공급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으로 중심지 상호간의 중심성의 차이, 즉 중심지가 수행하는 3차 산업 기능 보유정도에 대한 중심지간 차이를 말함
 - 중심지 계층은 인구규모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중심지가 주변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심지의 인구규모, 중심기능 유형의 수, 중심기능의 시설수(기능체수)를 변수로 이용함
 - 독일의 경우, 중심지 체계에 따른 중심지 위상을 구분하고, 각 중심지에 걸 맞는 생활서비스 공급 지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

〈표 4-10〉 독일 브린덴부르크 주의 생활서비스 표준

구분	소중심지	하위중심지	중위중심지	상위중심지
주민수	1,000이상	3,000이상	20,000명이상	100,000명이상
중심지세력권 주민수	최소 5,000명이상	최소 7,000명이상	최소 35,000명 이상	최소 200,000명이상
공공교통 수단접근성	약 30분	약 30분	약 60분	약 90분
문화시설	-	강당 도서관	다목적 강당, 영화관, 박물관, 도서관	극장, 회의장/콘서트홀, 다수의 박물관, 학술도서관
스포츠시설	대소의 운동장 스포츠시설	학교스포츠시설 체육관, 대소의 운동장	관중석구비스포츠시 설, 대운동장 및 육상시 설, 관중석구비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관중석 구비 스타디움 기 타 여러 스포츠 종목을 위한 특정시설
보건사회시설	의사, 약국	다수의 의사	정규및기초진료가능병 원, 전문의, 공공보건 시설, 양로원, 각종 장 애시설	중환자진료병원, 전문 클리닉, 다수의 전문의
공공기관	행정사무소		하위 주관청 또는 지법	상위 주관청 또는 주법원

자료 : 김현호외(2008) 재정리

- 문화중심지는 생활중심지와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시설(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 문화창작시설(스튜디오, 공방 등), 관련 물품 판매시설(악기점, 화방 등)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집적도(중심도)를 측정함

2) 분석방법

- 중심성 지수는 일정 중심지가 주변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중심지의 인구규모, 중심기능 유형의 수, 중심기능의 시설수(기능체수)를 변수로 이용함(박영한, 1975)
- 분석방법은 데이비스(W. K. D. Davies)의 기능 지수법을 사용하여 기능 지수를 구하고, 군집분석에 의하여 계층을 구분함¹⁷⁾
 - 중심기능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하며, 각 기능에 대한 입지계수를 구함

$$C = \frac{t}{T} \times 100 = \frac{1}{T} \times 100$$

C : 기능 t 의 입지계수

t : 기능 t 의 하나의 시설수

T : 중심지체계 내에 있는 기능 t 의 모든 시설수

- 각 중심지가 보유하는 일정 기능유형의 시설수에 그 기능의 입지계수를 곱하여 그 중심지의 일정 기능유형이 가지는 중심성의 양을 얻은 후 그 중심지의 총체적인 중심성인 기능지수를 구함

$$F_a = \sum A_t \times C_t$$

C_t : 기능 t 의 입지계수

A_t : 기능 t 의 시설수

F_a : 중심지 A 의 기능지수

17) 일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능의 중심성의 양은 그 장소에 입지한 시설수에 비례하며, 연구지역 전체가 폐쇄시스템(closed system)있다는 조건 아래 특정기능의 시설수가 많을수록 그 기능의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게 됨(김정연, 1999)

3) 데이터 작성

- 이용 자료는 한국전화번호부(주)에서 발행하고 있는 2013년도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 또는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들을 구분한 후,
 - 사군별 동부지역 및 읍면별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
 - 생활중심지¹⁸⁾와 문화중심지로 구분, 중심지 분석한 후 상관관계 파악함

〈표 4-11〉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의 구분(2013년 전화번호부)

no	전화번호부 시설명	no	전화번호부 시설명	no	전화번호부 시설명
1	PC방	26	병원(종합)	51	자전거
2	가구	27	병원/의원	52	잡화점
3	가전제품수리(전파사)	28	보일러	53	제과점
4	가전제품판매	29	사료	54	조명기구
5	건강식품제조/판매	30	사무기기	55	주방가구
6	건강원	31	사진	56	주방기구
7	귀금속/시계/장신구/금은방	32	사회복지시설	57	철물점
8	금융업(새마을금고/신협/은행)	33	서점	58	침구류판매
9	꽃집(화원)	34	세탁소	59	카센타
10	내의	35	술집	60	커튼
11	노래방	36	슈퍼마켓	61	커피전문점
12	농기구	37	신발판매	62	컴퓨터/주변기기
13	농약판매	38	아동복/유아복	63	컴퓨터수리
14	다방	39	안경점	64	통신/전화서비스
15	닭집/치킨센터	40	약국	65	통신관련서비스
16	당구장	41	예식장	66	패스트푸드
17	동물병원	42	오토바이/부품-판매/수리	67	편의점
18	등산용품/장비	43	우유/분유	68	피부미용
19	떡/한과/유과	44	우체국/우편취급소	69	학교-초등학교
20	목공소	45	운동기구/경기용품	70	학교-대학교
21	목욕탕/사우나/찜질방	46	유리/거울	71	학교-중.고등학교
22	문구/사무용품	47	음식점	72	화장품판매
23	미용실	48	의류	73	관공서
24	방앗간/정미소	49	이발소	총 73개 시설	
25	병원(일반)	50	자동차부품판매		

18) 김정연, 충청남도 및 사군별 중심지계층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13 업종구분을 따름

〈표 4-12〉 문화중심성을 나타내는 업종구분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1	도서관	도서관	17	학원	연기
2		서점	18		댄스스포츠
3		문구/사무용품	19		무용/발레
4	박물관	박물관	20		꽃꽂이
5	미술관	미술관	21		기타
6		화방/화실	22	공연장	국악
7		화랑/갤러리	23		연극극장/공연장
8	문예회관	액자/그림/표구점	24		공연티켓예매
9		문예회관	25		악기판매/대여
10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26		국악기판매
11	문화의 집	문화의 집	27	영화관	영화관/자동차/전용극장
12	문화센터	문화센터	28	기타	사회복지시설
13		공예품	29		상담소
14		목공예	30		아동센터
15		유리공예	31		체험학습장
16	학원	공예	32		평생교육원

○ 입지계수는 예를 들어 총 시설수가 100개인 도서관의 입지계수는 $1(=1/100 \times 100)$ 이고, 총 시설수가 1인 영화관의 입지계수는 $100(=1/1 \times 100)$ 이며, 이는 어떤 업종이 전체 시스템에서 갖는 중심성은 100이라고 보며, 만약 수요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의 중심기능시설에 대해 균일하다면, 어떤 특정한 기능의 시설수가 많을수록 그 기능의 중심성은 낮은 것으로 가정함

〈표 4-13〉 입지계수 분석 방법(예시)

시설 중심지	도서관	서점	박물관	문예회관	영화관	문화의 집	합계
중심지A	50	10	5	10	1	2	78
중심지B	30	5	3	10	—	1	49
중심지C	10	5	2	7	—	1	25

시설 중심지	도서관	서점	박물관	문예회관	영화관	문화의 집	합계
중심지D	10	—	—	3	—	—	13
합계	100	20	10	30	1	4	165
입지계수	1	5	10	3.3	100	25	

- 중심지별 기능지수는 각 중심지가 보유하는 기능유형별(도서관, 서점, 박물관 등) 시설 수에 그 기능의 입지계수를 곱하여 그 중심지의 일정 기능유형이 가지는 중심성의 양을 얻은 후 그 중심지의 총체적인 중심성인 기능지수를 구함

〈표 4-14〉 기능지수 분석 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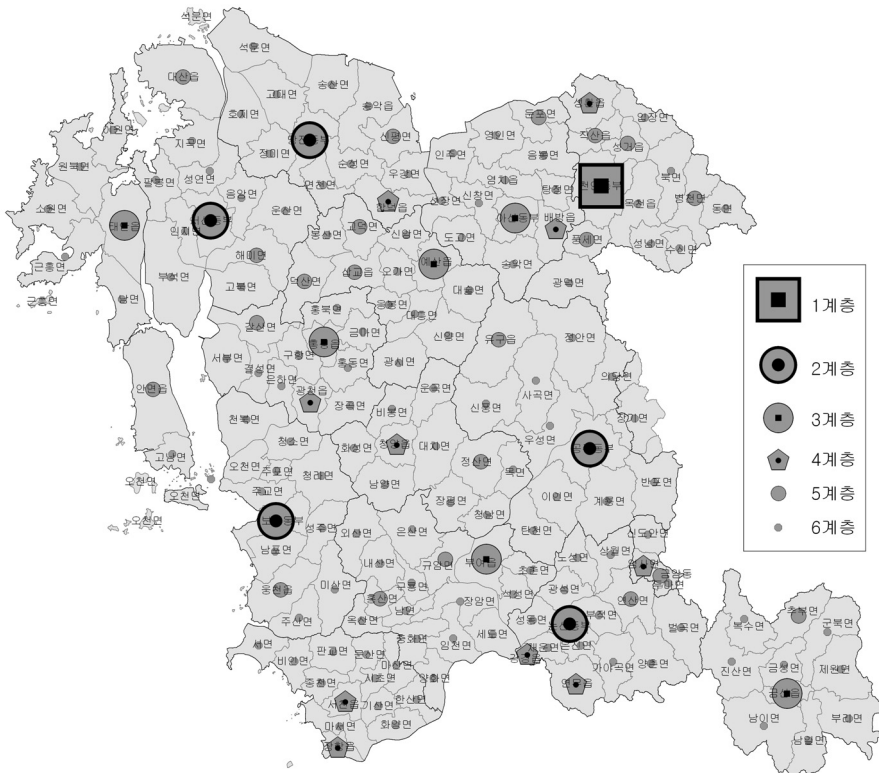
시설 중심지	도서관	서점	박물관	문예회관	영화관	문화의 집	기능지수
중심지A	$50 \times 1 = 50$	$10 \times 5 = 50$	$5 \times 10 = 50$	$10 \times 3.3 = 33$	$1 \times 100 = 100$	$2 \times 25 = 50$	333
중심지B	$30 \times 1 = 30$	$5 \times 5 = 25$	$3 \times 10 = 30$	$10 \times 3.3 = 33$	—	$1 \times 25 = 25$	143
중심지C	$10 \times 1 = 10$	$5 \times 5 = 25$	$2 \times 10 = 20$	$7 \times 3.3 = 23.1$	—	$1 \times 25 = 25$	103.1
중심지D	$10 \times 1 = 10$	—	—	$3 \times 3.3 = 9.9$	—	—	19.9
합계	100	20	10	30	1	4	
입지계수	1	5	10	3.3	100	25	

- 이렇게 얻은 중심지 기능지수 값의 배열 상에서 자연적 단절점(natural breaks)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에서 계층을 구분하거나, 자연적인 단절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의해 계층을 구분함

■ 사례분석

○ 충청남도 전체에 대해 생활중심지를 6계층의 기능지수를 나누어, 시군별로 기능지수 분석을 수행하였을 경우 4계층으로 분류 되며, 공간분포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¹⁹⁾

– 생활중심 1계층의 천안시를 대상으로 생활중심지 계층을 분석하면 1~4층으로 분석되며, 1계층은 천안시 동부며, 2계층은 천안 성환읍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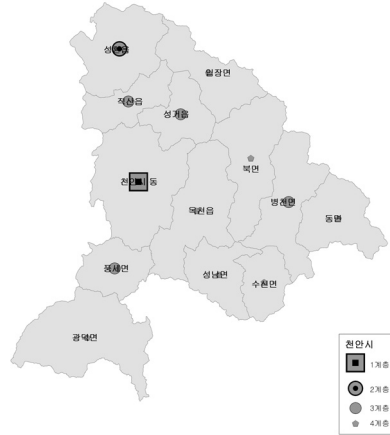


[그림 4-11] 충청남도 중심지의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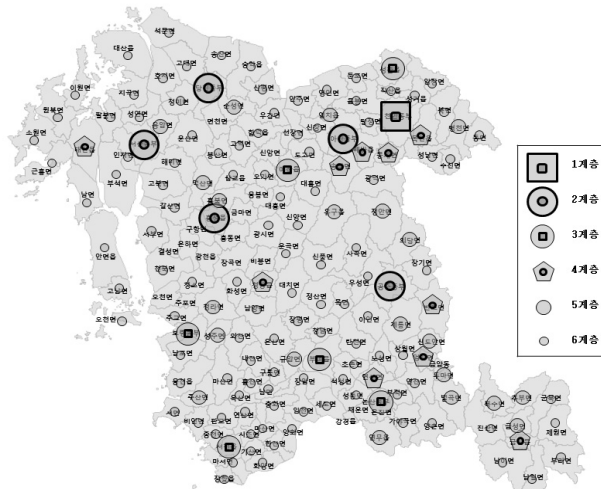
19) 김정연, 오충청남도 및 사군별 중심지계층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13 충남지역 중심지계층지수 분석 사례

〈표 4-15〉 천안시의 중심지 계층구조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계층	중심성 비중
천안시 동부	6,123.31	1	85.05
성환읍	399.88	2	5.55
병천면	160.37	3	2.23
직산읍	146.60	3	2.04
성거읍	97.32	3	1.35
풍세면	87.41	3	1.21
입장면	72.13	4	1.00
목천읍	28.34	4	0.39
수신면	24.84	4	0.35
성남면	20.42	4	0.28
광덕면	15.00	4	0.21
동면	14.55	4	0.20
북면	9.83	4	0.14



○ 충청남도 전체에 대해 문화중심지를 6계층의 기능지수를 나누어, 시군별로 기능지수 공간분포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2] 문화중심지 공간분포

〈표 4-16〉 천안시의 문화중심지 계층구조

행정구역	시설 수	기능지수	비중(%)	계 층
천안시	715	3100.61	100.00	
동부	598	2448.33	78.96	1
성환읍	36	274.86	8.86	2
병천면	13	73.62	2.37	3
직산읍	13	20.74	0.67	4
성거읍	16	37.24	1.20	4
풍세면	1	33.33	1.07	4
입장면	6	10.14	0.33	4
목천읍	22	144.09	4.65	3
수신면	2	3.46	0.11	4
성남면	3	8.53	0.28	4
광덕면	2	35.89	1.16	4
동면	1	2.56	0.08	4
북면	2	7.82	0.25	4



- 생활중심지계층분석과 문화중심지계층분석결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생활중심지에 문화시설 또는 유사시설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배치모형 적용 시 생활중심계층으로 검토 가능함
 - 다만,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유사시설 자원 조사를 토대로 문화시설 기능 및 재배치를 위해서는 문화 중심성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때 가능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기 보다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라. 문화접근성 분석

1) 개념

- 문화접근성은 지역중심지와 문화시설간의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접근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교통수요 방법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교통수요 분석은 일반적으로 통행발생, 분포,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의 전통적인 4단계 분석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2) 이용자료

- 교통수요 분석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수의 분석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중 국내에서는 EMME/3, TransCAD, Cube, Voyager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분석 시 이용되는 기초 입력자료는 공로 및 대중교통 네트워크 자료, O-D matrix, VDF(Volume Delay Function) 함수, TPF(Ture Ponalty Function) 함수 등으로 구성됨
- 위 자료를 바탕으로 4단계 수요 분석을 통해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데, 최근에는 교통수요 분석과 함께 토지이용 모형 및 환경 영향분석 모형 등과 통합, 분석하는 경향이 있음

3) 분석방법

- 문화접근성 분석을 위하여 실제 도로망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지의 읍·면·동별 지역 중심에서 기초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을 분석하며,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계획 소프트웨어인 EMME/3를 이용 가능함
 - 도시교통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구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완벽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의 유지를 위한 기능 및 효율적 자료 관리를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
- 읍·면·동별 지역중심에서 개별시설까지의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는 EMME/3의 통행배정모형(trip assignment)을 적용하여 분석함
 - 통행배정모형에서 최단경로 선택을 위한 각 링크의 통행비용은 교통량 - 지체함수(VDF : Volume Delay function)로 표현함

- (구간거리 X 가중치) 항은 유로도로를 통행할 때의 금전적 비용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text{일반화 비용 } T = T_0[1 + \alpha(V/C)^\beta] + \text{구간거리} \times \text{가중치}$$

단, T : 링크통행시간(일반화비용, 분)

T_0 : 링크자유통행시간(시간비용, 분)

V : 링크교통량($pcu/시$)

C : 링크용량(pcu)

α, β : 파라미터

가중치: (통행요금/ km)/[차종별 시간가치]

- 즉, 시설별 통행시간은 교통혼잡(congestion)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 통행시간으로 도로위계에 따른 자유속도와 차로당 용량을 고려하여 교통량 - 지체함수식에 의거 산출됨
- 도로위계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및 도시고속화 도로로 구분되며, 1차로, 2차로, 3차로 이상에 따라서 설계속도는 다르게 고려함

4)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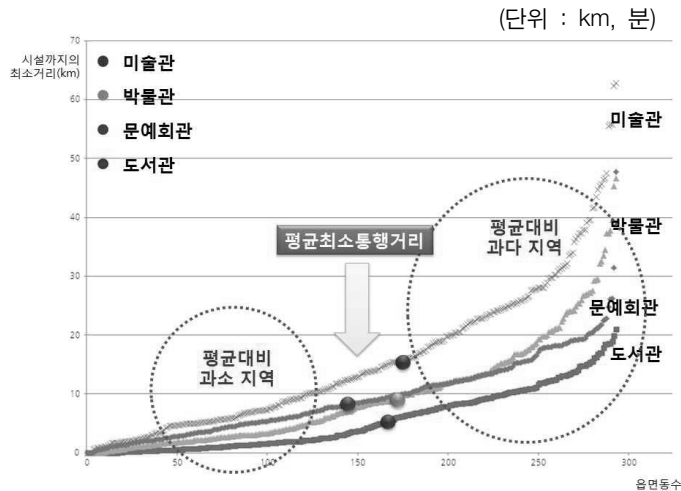
- 지역별 교통 네트워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지역중심에서 문화시설별 교통접근성을 분석함

〈표 4-17〉지역별 교통네트워크 체계분석 대상

구분		지자체			분석내용
존	내부존	도	시/군	읍/면/동 대상	생활중심지에서 부터 문화시설 간 교통접근성

- 읍·면·동별 교통존의 지역중심에서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박물관)별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최소통행거리를 분석하여 최소통행거리, 최대 통행거리를 산출함

- EMME/3의 통행배정모형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위계와 차로 수에 따른 설계속도를 고려한 시설별 자동차 최소통행시간을 산정함



자료: 이소영·박진경(2014),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4-13] 지역중심과 문화시설 간 최소통행거리 예

마. 상관성 분석

1) 개념

-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추측 통계기법으로 상관 계수 분석의 매체는 상관 계수임
- 상관 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어느 점에 위치하며 이 계수의 절대 값이 1이면 두 변수의 관계는 완벽함을 의미하고, 0이면 두 변수는 상관성이 없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이 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우면 두 변수의 상관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우면 두 변수의 상관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계수가 0에서 0.30 사이에 있으면 약한 관계, 0.30에서 0.70 사이에 있으면 보통 관계, 0.70에서 1사이이면 강한 관계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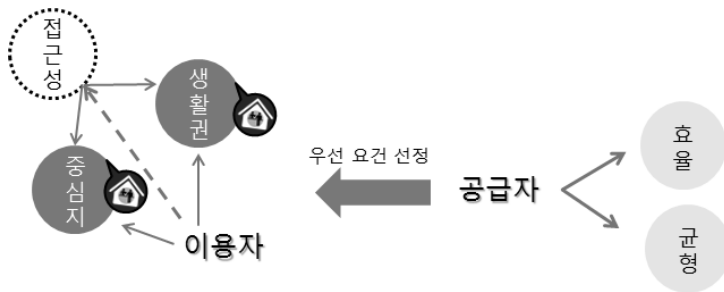
2) 상관계수 계산

- 상관계수의 계산은 두 개의 변수의 합성 절차를 통해 계산하며, 두 개의 변수간의 분산 상황이 어느 정도 직선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함
- 시각적으로는 2개의 변수의 조합을 2차원의 좌표축 상에 나타낸 경우 어느 정도 깨끗한 직선을 그리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2개의 변수 X 와 Y 가 $(X_1, \dots, X_i, \dots, X_n)(Y_1, \dots, Y_i, \dots, Y_n)$ 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상관계수 r 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r = \frac{\sum X \cdot Y - \frac{\sum X \cdot \sum Y}{N}}{\sqrt{(\sum X^2 - \frac{(\sum X)^2}{N}) \times (\sum Y^2 - \frac{(\sum Y)^2}{N})}}$$

3) 상관성 분석

- 상관계수의 해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변수의 관계의 강약이며, 다른 하나는 관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두 변수의 관계의 강약은 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우면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며, 두 변수의 관계의 방향은 계수의 값이 양수이면 두 변수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해석함. 즉 두 변수의 관계가 정의 관계이면 한 변수의 변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의 변수 값 또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시설의 공급 및 배치에 있어 문화시설 이용과 생활권, 문화시설 이용과 중심지계층, 문화시설 이용과 교통접근성 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우선 결정 요인을 선정하여 나감
 - 향후, 용인 가능한 서비스 접근성, 선호하는 시설형태,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률, 이용가능한 문화시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만족도 저해요인, 개선사항에 대한 이용자와 주민대상 설문 등을 통하여 모형을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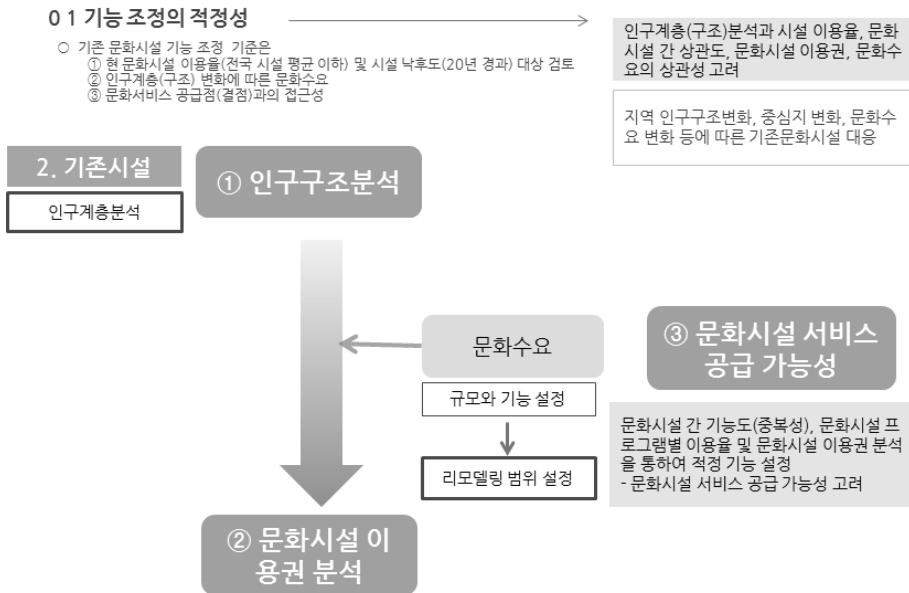
[그림 4-14] 모형 설정시 검토사항

구분		검토 내용	비고
1	생활권	행정구역과 달리 주민 문화이용권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는가?	
2	중심성	생활/문화중심성은? 이용효율을 제고하는가? vs 지역 균형을 제고하는가? 생활중심성과 문화시설의 유형/운영프로그램/이용과 관계가 있는가?	
3	접근성	접근성은? 접근 소외 지역은 없는가? 문화시설 유형 및 규모, 목적에 따라 심리적 접근 거리는?	
4	상관성	1,2,3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가? 시설 목적과 서비스 대상과 접근성 및 이용성 측면에서 상관성은 없는가?	

2. 기존문화시설의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모형

가.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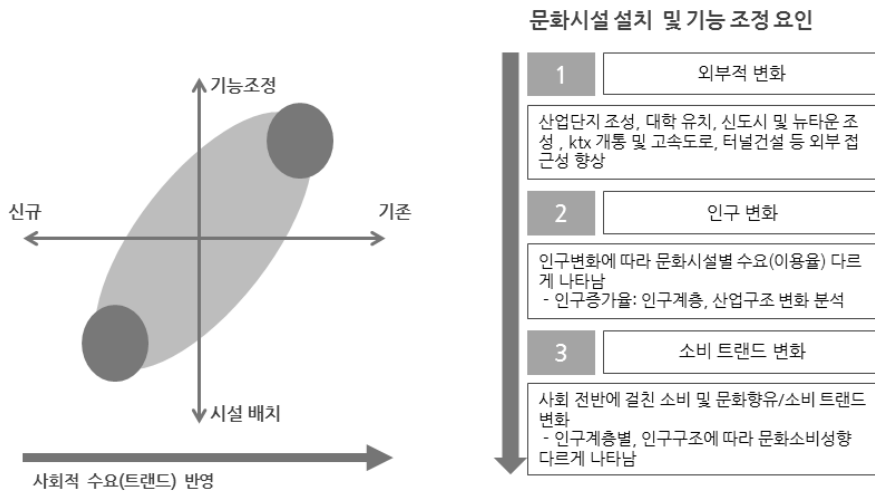
- 문화시설의 기능 조정 및 재배치 결정요인은 신규(신축)시설과 달리 ‘새로운 기능’을 기존 시설에 어떻게 대입하는 가 하는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은 시설의 물리적 상태, 지역의 문화수요 및 이용행태, 주변 문화시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판단함
 - 일차적으로 지역의 인구계층분석을 토대로 문화수요분석과 지역문화시설 및 유흥자원 조사를 병행하여 새로운 문화수요 또는 과소 공급되고 있는 문화기능에 대한 기존시설의 수용 가능성 분석함
 - 문화시설 기능 조정 부분은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나 가능한 계량지표에 의한 객관적 분석을 지향함



[그림 4-15] 기능조정 모형 분석내용

나. 문화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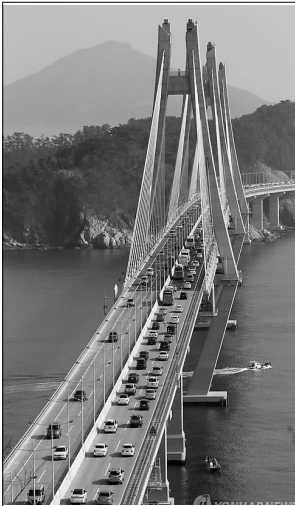
- 문화시설의 기능 조정은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화시설 기능 조정과 재배치 원인을 분석하여 그것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
 - 문화시설 기능 조정: 문화시설 개별 단위로 접근
 - 문화시설 재배치: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
- 문화시설의 기능조정 및 재배치 요인은 일차적으로 지역 외부적 변화요인과 내부적 변화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외부적 변화요인: 산업단지/신도시 조성 등, KTX/고속도로 개통 등
 - 내부적 변화: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 시설이용실태
 - 사회적 변화: 생활행태 및 문화소비 행태변화
- 외부적 변화는 내부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내부적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양상을 추적하는 것은 문화시설 기능 및 재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요소가 됨



[그림 4-16] 문화시설 기능조정 및 재배치 방향 및 내용

1) 외부적 변화요인

-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조성이나 KTX 및 고속도로 개통 등은 지역 내 생활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
 -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경우, 연계하여 주택단지, 상점 및 백화점 등 배후시설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인구구조, 산업 및 경제구조, 소비구조 등에 변화를 초래함
 - 특히 인구적인 측면에서 20-50대의 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가족과 젊은 인구 유입에 따른 0~10대의 청소년의 증가가 나타남
- 외부적 변화요인에 따라 지역 내 변화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이를 추적 분석하여 문화수요 및 소비추이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거가대교(거제도-부산연결) 개통(2010.12)

2010년 12월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 개통 이후 두 지역은 아직도 특수를 누리고 있음. 1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거제시민들은 의료, 쇼핑, 외식 등 생활 각 부문에서 선택의 폭이 커짐. 부산 롯데백화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11월 거제지역 고객(롯데카드 및 멤버스 실적 고객 기준)은 개통 이전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부산 시내 롯데백화점 4개 점포의 전체 구매고객 증가율인 24%의 8배 수준임. 거가대교 개통 3년 만에 부산지역 백화점을 찾는 경남지역 고객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거제지역 고객이 김해, 양산, 창원에 이어 네 번째 큰 손 고객임.

반면, 거제시에서는 오히려 부산과 가까워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함. 지난 1월 22일에는 거제와 부산을 잇는 시내버스까지 개통해 두 도시 간의 왕래는 더욱 쉬워짐. 거제를 찾은 관광객 수는 2012년 508만이었는데 2013년에는 780만명으로 65% 정도 증가함(연합뉴스, 2014.2.6.)



■ 고속 성장 당진, 새로운 문화수요계층 유입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황영철강, 동부철강 등 6곳의 대형철강업체 뿐 아니라 협력 업체 400여 기업 이전 또는 예정됨. 대형아파트, 대형마트, 종합병원, 학교 등 개발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도시변화에 따라 당진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젊은 문화수요층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화기능 필요성 제기, 리모델링 요구를 받고 있음 (당진군청/인터뷰)

2) 내부적 변화요인

- 인구구성비, 소득 및 학력 등 타 요인에 의해 문화수요 및 참여 실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기능을 설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구계층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함
 - 일차적으로 지역 인구증감을 예측하여 미래적 관점에서 인구규모에 대응한 문화시설 기능조정 및 재배치 계획 수립
 - 전국적으로 2014년 현재 2000년 대비 여성비율은 3.2% 증가하여 각각 50%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0-14세는 -13.3%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24.3% 증가 하고 있어 문화시설 기능조정 시 인구계층 및 계층별 속성(특성)에 따른 고려

〈표 4-18〉 지역규모별 인구증감율(2014.6 기준)

구 분	2000년(A)		2010년(B)		2014년(C)		증감(C-A)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증감률
전 국	46,136	100.0	50,516	100.0	51,234	100.0	5,097	11.05
5만 미만	1,520	3.29	1,704	3.37	1,832	3.58	313	20.57
5~10만	3,941	8.54	3,333	6.60	2,994	5.84	-947	-24.03
10~20만	6,787	14.71	5,568	11.02	5,655	11.04	-1,132	-16.68
20~30만	7,239	15.69	7,977	15.79	7,758	15.14	518	7.16
30~40만	9,838	21.32	6,902	13.66	7,961	15.54	-1,877	-19.08
40~50만	6,156	13.34	9,255	18.32	8,466	16.52	2,310	37.53
50만 이상	10,655	23.10	15,776	31.23	16,568	32.34	5,913	55.49

〈표 4-19〉 전국성별/연령별 인구증감율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비고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 인 구		46,136	100.0	47,279	100.0	48,580	100.0	51,234	100.0	2.8
성별	남 자	23,159	50.2	23,624	50.0	24,167	49.7	25,629	50.0	2.3
	여 자	22,978	49.8	23,655	50.0	24,413	50.3	25,605	50.0	3.2
연령 별	0 - 14세	9,639	21.0	8,986	19.1	7,787	16.2	7,337	14.3	-13.3
	15 - 64세	32,973	71.7	33,690	71.6	34,779	72.5	37,511	73.2	3.2
	65세 이상	3,372	7.3	4,365	9.3	5,425	11.3	6,386	12.5	24.3

3) 문화소비 트렌드

- 최근 개인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하비홀릭²⁰⁾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좋아하는 취미에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모으고 심취하여 물질/경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와 연계하여 1인 1 취미시대를 맞아 가능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예술창작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음
- 공간적 선호는 한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멀티 플렉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민간/공공 모든 영역의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음

20) 하비홀릭(hobbyholic)은 취미를 뜻하는 Hobby와 광적이라는 의미의 Holic의 합성어로 특정취미와 관심사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

〈표 4-20〉 문화소비 트렌드

구분	내용
하비홀릭	좋아하는 취미에 전문가 수준으로 심취, 물질/시간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행태
수작업/창작	3D TV/영화 등 첨단기술시대이 주류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직접 손으로 만들고, 창작하려는 인구 증가
멀티플렉스	기존 단일 기능의 공간에서 문화, 외식, 쇼핑, 교류, 소통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 지향



■ 멀티플렉스의 놀라운 진화

이제 더 이상 극장이 아니라 문화놀이터로 변모하고 있음. 극장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도 바뀌고 있음. 영화 감상을 넘어, 영화관을 찾는 것 자체가 바야흐로 '문화체험' 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극장에서 비즈니스, 공연, 전시, 학교수업이세미나, 쇼핑과 외식, 어린 자녀와 책도 읽을 수 있음. 한국 대도시의 멀티플렉스는 문화플랫폼이자 콘텐츠 발신지로 변모(해럴드경제, 2013.9.13.)

■ 미래부, 2017년까지 ICT DIY 창작인구 50만 명으로 확대

'미래부는 4만명 수준인 ICT DIY 창작 인구를 2017년까지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문가도 현재 300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창작활동을 통해 1000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이를 위해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지원 △개방형 표준 및 플랫폼 개발·보급 △국제협력 지원 등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선정, ICT DIY 포럼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임(ETNEWS.COM, 2014.7.9.)

다. 문화시설 조사 및 유희자원(시설) 조사

- 문화자원 조사는 현재 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유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 시설조사와 앞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 가능한 시설 즉 지역내 위치한 유희자원(시설 및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1) 문화시설 조사

- 문화시설은 지역 내 문화시설에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유사문화시설과 민간, 상업적

영역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현황을 조사함

- 지역 내 문화시설은 장르별, 주체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개별 시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함
 - 조사는 지역에서 새롭게 도출되고 있는 신규 문화기능에 대한 수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4-21〉 문화시설 실태조사표(안)

구분		조사내용
시설개요		시설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개관연도, 설립주체
시설현황 (㎡, %)	시설형태	신축, 리모델링(전 용도: 공장, 공공기관, 발전소 등)
	시설면적	총면적, 주요실 면적
	이용율	총이용율(가동율), 주요실 이용율(이용빈도)
	개선점	노후도, 시설교체/추가필요시설, 잉여공간 여부 등
이용자현황	이용자수	전체이용자수, 연령/성별, 지역(거주지역) 별 구분
	이동수단	교통수단 및 시간, 거리
	선호공간	공간별 만족도 및 선호도
	선호프로그램	만족도 및 선호도
	신규요구기능	새롭게 요구/필요한 기능 및 프로그램
시설운영현황	예산	전체예산, 예산비중(국/지/자체예산으로 구분)
	인력	전체인력, 전문영역별 인력
	개선점	시설 운영 측면에서 문제점

2) 유희자원 조사

- 지역 내 유희자원(시설 및 공간) 전체는 용도별, 소유주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개별시설은 다음과 같이 조사함
 - 조사는 지역에서 새롭게 도출되고 있는 신규 문화기능을 수용하여 문화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표 4-22〉 유휴자원(시설 및 공간) 실태조사표(안)

구분		조사내용
시설개요		시설명, 주소
		준공일, 소유주
시설현황	시설용도	건축법에 의한 시설용도
	시설특성	이전, 폐쇄 등 현재 시설발생 원인 적시
	시설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층별면적, 주요시설
	시설실태	불량파악, 진단, VE진단(시설현황 사진 첨부)
행정이행 저촉여부	법규검토	문화시설로 용도전환 가능 여부, 기타 법적 저촉 여부
	소유권	소유권 이전 가능성, 소유주와의 협의 가능성
	실행가능성	매입 비용(매입 등 비용)
	기타 계획	다른 사용계획 여부
활용가치	종합검토	상징성, 역사성, 경제성 등 고려

다. 문화수요조사

- 문화수요조사는 문화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지역주민 조사의 경우 인구계층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를 함
 - 문화시설 이용자 대상으로는 해당 시설의 기능조정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조사는 지역 내 문화시설 배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시설 이용자조사는 각 시설에서 진행한 ‘시설만족도조사’를 기반으로 시설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진행함

〈표 4-23〉 문화수요조사(지역주민)표(안)

구분		조사내용
일반특성		성별, 연령, 거주, 직업, 학력, 년 수입
문화시설 이용현황	시설이용	경험시설, 선호시설(만족도), 문제점
	이용빈도	주/월/년 단위 횟수
	접근성	교통수단, 거리
	참여프로그램	주요 이용 프로그램 내용

구분		조사내용
문화시설 이용수요	희망시설	지역 내 필요시설, 규모, 형태
	접근성	선호위치, 교통수단에 따른 수용 가능 거리 및 시간
	희망 프로그램	선호 프로그램, 참여형태

라. 기능변경 및 재배치 방안 검토

- 지역의 외/내부적 변화에 의한 문화시설 기능조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 문화시설 및 유흥자원, 문화수요 조사를 토대로 기능 변경 안을 검토함

1) 문화시설

- 특히 문화시설 노후화가 심하거나 이용률이 전국 또는 지역 평균 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또는 인구계층 변화가 특정 연령대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나이가 경우 지역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기능을 제고함
- 이때, 주변의 문화서비스이용권과 공급권을 고려하여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여 나감

〈표 4-24〉 문화시설 기능변경 고려시점

구분	내용	비고
시설 이용율	전국 평균 이용률 보다 낮은 경우 예)합천문예회관 → 교육/체험시설 위주 리모델링 계획 추진(학교주변지역에 위치)	중심지 기능, 수요조사
인구계층변화 (인구비율편차)	인구계층,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전국평균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예) 거창읍의 경우 인구의 1/4 학생	인구계층분석, 수요조사

〈표 3-25〉 문화시설 기능변경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비고
문화서비스 이용권	생활권과 연계, 주변지역 이용에 대한 고려	생활권
문화서비스 공급권	문화서비스 공급자와의 접근성고려 - 예술단체, 예술인, 강사 등의 지속적 공급가능성	문화서비스결점

- 인구계층별로 문화향유 및 소비특성이 다르므로 문화시설의 기능 조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경험과 수요가 많고 특히 창작프로그램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아 작업실, 연습실, 동아리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65세 이상의 경우, 문학 강좌 또는 대중문화(노래교실), 전통공연(풍물 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 가벼운 레크레이션이나 취미와 부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2~40세 특히 여성의 경우, 문화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세대로 전문문화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임

1	청소년/학생
청소년/ 학생 계층 증가/다수 지역 → 예술교육 확대 - 동아리방, 교육실, 체험실, 연습실, 회의실, 직업교육 및 청년창업지원실 등 위주의 공간 리모델링 - 예술강사, 예술단체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원할 공급 - 거창읍 학교 밀집지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	
2	20-40 대 문화소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외부인력 유입에 따른 20-40대 신 문화소비계층 증가지역 → 고급 문화예술 향유 지향(문화수요조사 선행) - 공연, 전시 등 다수 향유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리모델링 - 다양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제공 예) 당진시의 경우, 문예회관 등에서 신흥 이주민에 의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	
3	노령인구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노령인구 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 → 노인여가문화복지 확대 -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 노인 커뮤니티 시설, 노인여가/소독시설(시니어 팜 카페 등), 여가레크레이션, 취미교실, 직업교육실 등 - 여가복지사,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강사, 인생2모작을 위한 직업교육 등 진행 가능하도록 연계	

[그림 4-17] 인구계층(구조)에 따라 시설기능조정안

2) 유희자원(시설 및 공간)

- 지역 내 발생한 신규 문화수요와 기 조사된 유희자원을 토대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나감
 - 활용 가능시설(자원)의 특성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의 유희 자원 활용사례²¹⁾를 참고하고, 이때 유희공간(시설)을 활용하는 의의와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1) 부록 1참조

- 유휴자원을 활용 위한 방법은 크게 ① 건축물의 틀과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
 ② 건축물의 물리적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유휴 공간(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가정 하에
 건축물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함
- 건축물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물리적 변화를 통해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외관과 구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보존, 변형, 복원 등의 수법이 해당됨
 - 건축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활용,
 증축, 용도변경 등이 있음

〈표 4-26〉 유휴공간(시설) 활용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일부 활용	보존	대상건축물의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한 후 외관, 구조, 상징적/의미 있는 요소 등 일부 또는 전체 보존	
	변형	새로운 기능도입에 따른 외관/장식/구조/공간 일부 변형	
	복원	훼손된 원형 복원 또는 파손/훼손된 일부 복원	
전체 활용	활용	상태가 온전하여 특별한 변형/수리 등 없이 사용	
	증축	새로운 기능 충족을 위하여 수직/수평, 별도 증축	
	용도변경	기존 용도와 다른 새로운 용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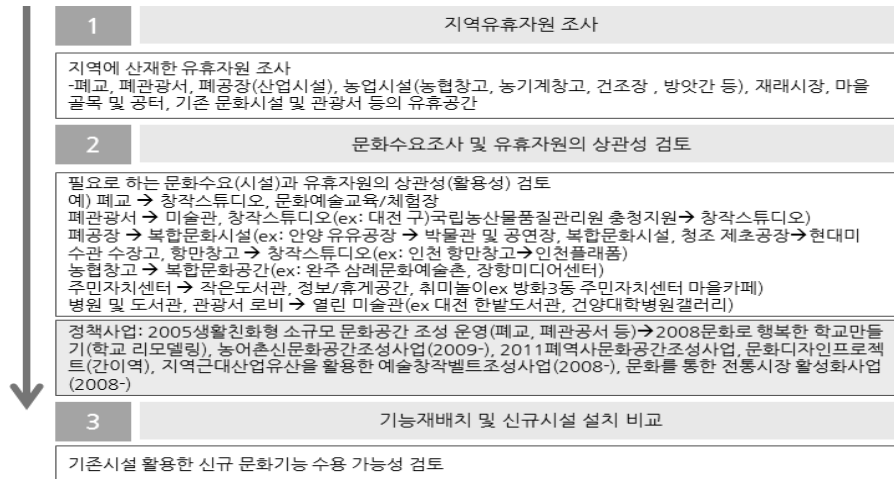
- 유휴공간(시설) 활용은 수요창출 → 사업목적설정 → 대상공간(시설)검증
 → 타당성 판단 → 기본계획수립 → 설계 → 시공 → 운영 단계를 거치며,
 특히 기본계획 수립 시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와 문화예술공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가치와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²²⁾

22) 박수정,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2006, p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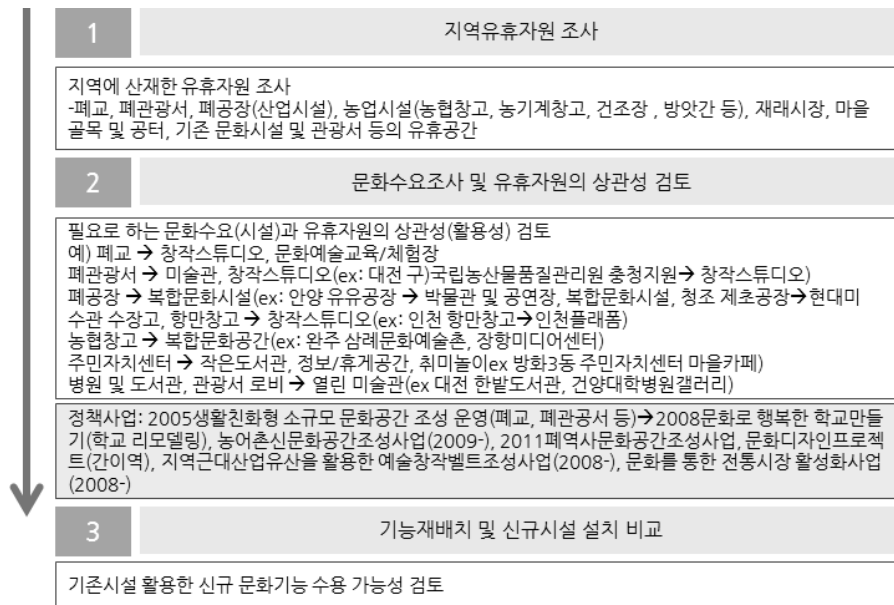
〈표 4-27〉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비고
유휴 자원의 활용	장소성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기억과 심리적 접근성 활용	
	정체성	지역의 랜드마크, 역사적/문화적/장소적 상징으로서 부각	
	환경성	폐시설의 재활용 가치 강조, 문화공간 재생과정에서 생태계 보존 및 활용, 자연과의 조화, 친환경재료 사용 등	
문화 예술 공간	창의성	문화예술의 속성, 창의적 영감/재능 발현 기능성 제공, 공간/콘텐츠/프로그램/소통의 장소/기회 제공	
	교육성	문화공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요소 구현, 문화예술체험/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예술성	문화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아름다움(건축, 공간, 조경 등), 문화적 다양성, 예술가 및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 가능성	
	놀이성	놀이로서 문화예술 접근, 오감놀이를 통한 미적/감수성 향상 기능성 제고	

- 지역의 문화수요에 대응하여 유휴공간(시설)을 문화공간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유휴자원조사 → 문화수요조사 및 유휴자원의 상관성 검토 → 타 사례 조사/분석 → 타당성 검토(신규시설로 설치하는 것과 비교 검토)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예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 검토) → 실행의 단계로 진행
- 유휴공간(시설)활용은 환경성, 장소성, 정체성 등의 가치가 높지만 특정 문화시설 활용 등에 있어 공간적/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조성 및 운영 측면에서 경제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결정 과정이 필요함



[그림 4-18] 신규기능 재배치-유휴자원 활용



[그림 4-19] 신규기능 재배치-유휴자원 활용

제5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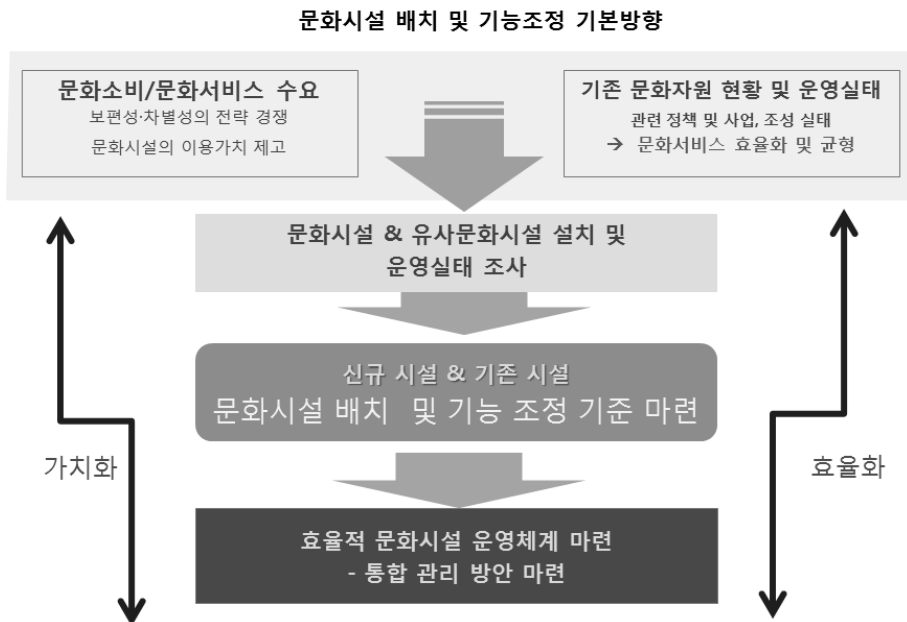
정책과제



제1절

기본방향

1. 기본방향



[그림 5-1] 정책 방향

-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과 기타 사업에 의해 설치 조성된 유사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관련 신규 시설 배치 및 공급 기준 마련
 - 문화시설 정책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따라 문화수요, 생활권, 인구계층 구조, 접근성, 문화서비스 이용권 및 공급권 등을 고려한 새로운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주체로 있는 문화시설과 별도로 중앙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유사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 실태 등을 조사하여 신규 문화시설 설치 기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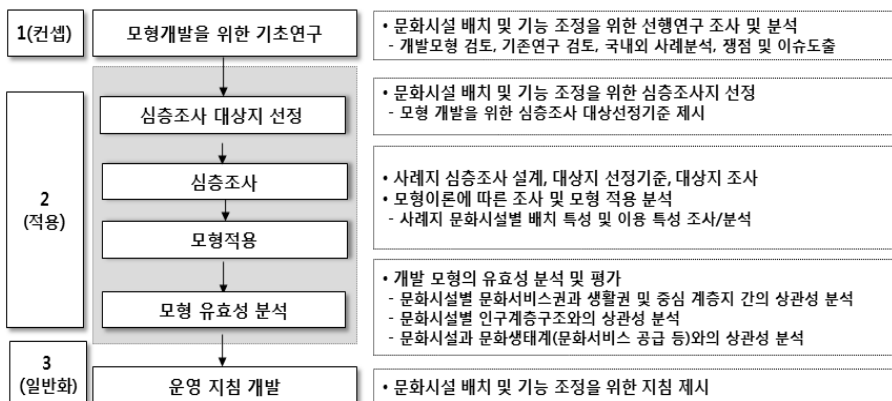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유헥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에 따른 예산 등 최소화
 - 신규시설 설치에 앞서 기존 문화시설 및 유헥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자원의 효율화 및 시설 중복 최소화
- 범 부처 문화시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각 시설별로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조사/연구/전시/공연/커뮤니티 독서 등)에 따라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시설(유사문화시설 포함)로 분류하여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 모색
- 각 시설별로 설치 등록 또는 신고하는 등의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에서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문화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방안 모색

제2절

정책과제

1.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의 실증화

- 본 연구는 최근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규 문화시설 공급 기준, 노후화되었거나 이용율이 저조한 문화시설의 기능 조정, 새로운 문화 수요에 대응한 유희공간의 활용 등을 포괄하여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에 창출되는 문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방법과 공급자적 관점에서 지역균형 및 국민의 문화복지, 국가정책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였으나 개념적인 측면이 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편임
-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검토하고 있는 문화시설 공급모형이나 문화시설 기능조정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 심층사례 분석을 통하여 컨셉모형을 구체화하고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일반화하여 나감
 - 모형개발에서 적용, 일반화 단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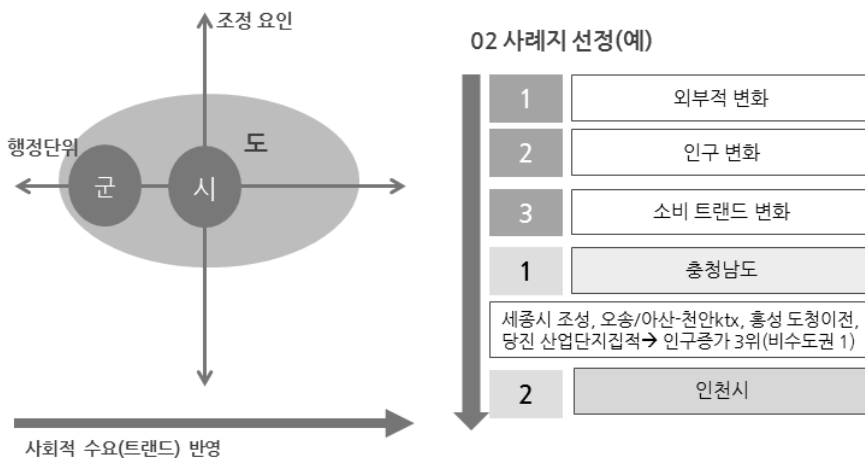


[그림 5-2] 모형 일반화 단계

가. 심층사례 분석을 통한 모형의 구체화 작업

1) 사례지 선정

- 컨셉 모형의 구체화 및 검증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진행하며, 사례지는 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적합한 곳으로 선정함
 - 사례지에 대한 심층조사/분석을 통하여 모형개념을 구체화하고 정형화하여 나감
- 사례지 선정은 최근 외부적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 인구변화가 뚜렷한 곳이나 문화시설이 타 시도보다 증가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함
 - 최근 일상생활 중심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와 군, 읍면동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 군, 읍, 면 동을 포함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도 단위 1곳과 수도권의 시 지역 1곳을 선정함



[그림 5-3] 사례지 선정방향

2) 조사/분석

- 심층조사사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와 분석을 진행함
 - 조사는 기초조사, 문화시설 및 유흥자원조사, 문화수요조사 등이 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기능에 대하여 신축 또는 기존시설 활용을 결정함
 - 조사는 가능한 지역 내 있는 문화시설 및 유사문화시설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석은 신축의 경우, 문화시설 위치 설정을 위한 분석으로 생활권분석, 중심지분석, 접근성 분석을 진행함
- 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신규문화시설 공급에 필요한 기준설정 모형을 검증하는 한편 기존 문화시설 및 유흥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일반화하여 나감
 - 공급모형과 조정모형, 조사 자료 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도출하여 교정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



[그림 5-4] 조사/분석내용

나.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된 모형을 정책적으로 또는 사업화에 있어 적용하기 해서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시설 공급 결정 단계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문화 시설 계획 수립에 필요함

〈표 5-1〉 업무지침 내용(안)

구분	내용	
정책지침	목표 및 방향	문화시설 공급 목표 및 방향
	공급기준(우선순위)	시설별 공급기준 및 우선순위, 제외대상 등
	계획지침 내용	계획서 확인 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사전준비, 사업비조달 등
	진행방법 및 일정	업무처리 일정
계획지침	사업개요	사업배경 및 목표
	기초조사	인구조사/문화시설/유흥자원 조사/문화수요-트렌드조사
	생활권, 중심계층, 접근격차	대상지의 문화생활권 설정, 문화중심계층, 문화접근성격차
	제안시설	제안시설 개요 및 내용
	사업비 검토	총사업비, 사업비조달계획

-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문화시설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유흥공간 문화공간화를 위한 업무가이드라인, 관련 사업비 분석 기준 등 세부 영역별로 지침을 마련하여 나감
 - 현재 문화시설 리모델링이나 유흥시설 문화공간화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계획 준비에서부터 사업화단계에 이르기까지 판단기준 등이 모호하여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각 영역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기능을 충족시키는 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함

2. 전국 문화시설 노후화 실태조사 추진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문화시설이 44.6%에 이르는 등 문화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신규 문화시설 확충에 비해 시설 리모델링사업 및 시설정비 사업비는 부족한 편임
 - 새롭게 요구되는 문화기능에 대응 하기위해 신축시설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
-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각종 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문화시설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임
 - 건축적 노후화 및 안전시설, 설비시설 노후화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통하여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노후화된 문화시설 활용 공연장 등 운영정책 본격화

사용하지 않는 관공서 건물이나 노후화된 문화시설을 활용해 공연장이나 전시관,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정책이 본격추진(2014.2,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노후가 심각

지난 2001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하자보수건수는 총 177건에 달하고 특히 건축물 유지와 안전에 영향이 큰 방수·배수처리 개보수 관련 하자처리건수도 무려 48건에 달하는 데 시설의 하자보수 부분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공종별 보수건수와 금액은 각각 851건에 13억원 이상을 투자해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함. 소리문화의전당 회의장과 전시장의 옥상상태는 준공 당시 방수 및 배수처리시설의 부실로 동절기에 빠지지 않은 물이 결빙을 반복하면서 옥상에 들뜸 현상이 발생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중장기적인 노후화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이는 시설의 노후화나 장비의 피로도를 제때 개선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발생해 차후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 (데일리전북, 201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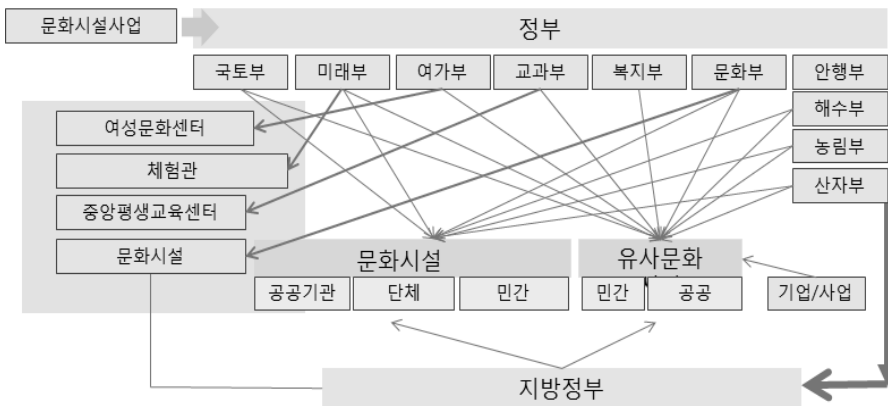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지난 1988년 개관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대형공연 등 현대적인 공연을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115억 원을 투입한 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을 최근 완료해 최신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공연장으로 바뀌어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

3. 문화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1) 협력체계 구축

- 지역차원에서 문화예술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 외에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이외에 안전행정부, 국토건설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부, 여성부, 미래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 건립된 전시관, 홍보관, 생태자원관, 체험관, 교육관, 창작스튜디오 등이 존재함
 - 이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아트센터, 공방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 및 유사문화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음



[그림 5-5] 문화시설 설립 관계도

- 실제 문화시설의 공급정도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시설 및 시설이용도, 효용도를 함께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시설이 건립되고 있는지 상호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아울러 효과적인 국가재원 활용을 위해서도 문화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제도정비 및 개선

- 문화시설을 통합관리 운영차원에서 문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도 및 관계법 개선/정비함

① 문화시설 분류 등 재정비

- 문화시설 분류체계 정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법을 포함하여 건축법,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각 부처에서 유사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법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함

② 문화시설 설치규정 재정비

- 일상생활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수의 문화시설의 경우 관계법을 적용하기 모호하거나 관계법에 의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시설을 설치함에 따르는 법적 규제 등을 조사하여 완화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단, 다중이용시설로서 시설안전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완화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검토
 - 시설설치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를 조사/정리하여 사례집 발간

〈표 5-2〉 법적 고려 사항

구분	내용	
리모델링	주차장	기존용도에서 문화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주차대수 확보 문제가 대두
	대수선	대수선, 증축 등 건축허용범위
	높이	층고 기준 등 층죽 어려움
신축	용도	복합용도로 설치할 경 용도결정 (주 용도에 따라 법적 규정 달라짐)
	지구	문화시설 설치 가능 지역 완화

3) 문화시설 조성 지원센터 설립

- 전국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2012.12월 현재 2,182개로 작년 대비 110개소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외에도 아트센터나 전시관, 체험관 등 공공 또는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비례하여 문화시설 부실운영에 대한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문화시설 조성단계에서부터 문화시설 조성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문화시설 조성의 적정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컨설팅, 문화시설 조성 후에는 시설운영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함
 - 지역의 유휴공간 및 시설의 문화공간화, 문화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전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함
 - 문화시설 지원센터는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안하는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문화시설 조성 가이드 및 교육, 문화시설 운영 및 경영 컨설팅, 문화시설 실태 및 현황조사, 문화시설 트렌드 분석 등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수행



[그림 5-7] 문화시설 조성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참고문헌

- 김문환·양건열(1998), 한국문화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세훈(2001), 문화기반시설증장기확충및발전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연진(2009), 유희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의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21: 185-207
- 김정연(2014), 농촌 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충남
발전연구원
- 김홍규(2011), 공공문화시설건립타당성사전평가제세부운영방안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08),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09-2013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 제 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 라도삼(2002),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문화예술대표지표분석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도서관통계조사지표개선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박경귀(2013), 2013년도문예회관운영평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박정한(2012),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레림·김근영(2010), 서울시 도시문화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개발학회 추계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139-153.
- 심재춘(2005), 복합문화시설의 입지결정요소 조사분석. 『대한건축학회』 21(10):
105-112
- 우주희(2009),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윤소영·정상철·조주현(2013), 민간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
관광부
- 윤지혜(2012), 복합문화공간의 시대별 특성과 활성화 방안연구, 단국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용·하창현(2007),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기준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이소영·박진경(2014), 지역맞춤형 기초생활시설 공급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태(2004), 전국문화기반시설최소기준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열(2011),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양·이상복·김홍렬·배경재·윤종옥(2012),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지표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위원회(2014),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보도참고자료
 최재황·차성중·송기홍·한종엽·이용미(2012),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해외동향분석-미래사회에대비한각국의문화정책
 허은영(2010), 문화시설운영효율성지표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2013), 문화향수실태조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등록박물관/미술관현황-e나라지표 www.index.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한국박물관협회 www.museum.or.kr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www.kocaca.or.kr
 한국문화원연합회 www.kccf.or.kr

부 록

1. 기존연구 유희공간(시설) 사례정리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백나영	로테르담 체육공원	자투리 땅	• 도심의 도로 한가운데 형성된 소공원 • 스케이트보드 볼과 같은 레크레이션 기능이 강조된 공간 • 보행자의 이동로 제공
	프랑크푸르트 수공예박물관	자투리 땅	• 도심의 건물들 사이 녹지와 함께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미적 효과를 줌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박수정	영등포 공원	OB맥주 공장	• OB맥주 공장이 1997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 • 서울시 공원 녹지 확충 5개년 계획으로 1998년 약 18,660평의 공원 조성 • 기존의 경부선 철로, 산길을 이용하는 등 역사적 시설물을 활용했으나 조형미가 결여 • 맥주 구조로 사용되던 담금술을 남겨 기억과 장소성을 보존
	독일 델타뮤직 파크	제철소	• 1985년 문을 담은 뒤스부르크의 제철소를 주변 전체를 녹지로 조성 •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인근 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 • 제철소에서 사용하던 야적장의 기둥을 활용하여 놀이터로, 폐수정화시설은 생태환경실험장으로 활용
	라인엘베 과학공원	주물공장	• 1985년 폐 주물공장을 주정부가 구입해 공장의 기계들은 매각하고, 부지와 시설물들은 과학공원으로 조성하여 1995년 개원 • 1995년 독일 건축 어워드에서 건축상 수상 • 주택단지과 근접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조깅코스와 산책로로 각광을 받음
	일본 노리타케 가든	도자기 공장	• 명품 도자기 회사 노리타케 사가 1970년대 생산공장을 이전 •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001년 자사의 빈 공장부지에 25억 엔을 투입하여 노리타케 가든을 조성 • 기존의 산업현장 흔적을 보존한 채 조성하여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신장 및 홍보효과 얻음 • 공원의 나무를 시민기부를 통해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인 의식과 참여 의식 고취 • 나고야 시 도시경관상, 도시공원상 및 녹색도시상 수상
	프랑스 퐁피두센터	슬럼지역	• 유희시설이 대부분인 슬럼화 된 마레 지구에 1969년 '예술과 사회교육을 위한 문화센터'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 • 1971년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하여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의 설계 후 1977년 개관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유희 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객수정	프랑스 퐁피두센터	슬럼지역	• 낙후지역을 문화 예술로 재생함으로써 지역의 슬럼화를 극복하고, 세계적 관광지로서 경제적 효과를 얻음
	미국 매트리스 팩토리	매트리스 공장	• 설립자 루더롭스키는 소장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폐업한 매트리스 공장을 개조하여 갤러리로 사용함 • 미국 피츠버그의 비영리 교육단체 미술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레지던시형 미술관으로 평가받음 • 작가들의 장기간 체류와 문화교류가 가능 • 작업장과 전시장소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짐 • 워크숍과 강의, 투어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삶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기회를 제공
	호주 파워하우스	전기 발전소	• 1971년 시드니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달링 하버의 재개발에 따라 1961년 중단된 울티모 발전소를 약 2만㎡의 파워 하우스 박물관으로 조성, 1988년 개관 •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테마 아래 울티모 발전소의 내부공간을 개조 •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시회와 프로그램 들을 열도록 함 • 장학금을 도모하고, 인턴십과 협력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 과의 소통의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대전 창작센터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 199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면서 2006년부터 대전 시립미술관 창작센터로 활용함 • 도심 가운데 위치하여 접근성이 유리함 • 지역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미술 문화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구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함
	영국 커스터드 팩토리	커스터드 제조공장	• 1990년 베니 그레이에 의해 버려진 커스타드 공장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재활용 • 근처의 여러 건물들로 계속 확장하면서 소규모 클러스터를 형성, 다양한 예술문화단지를 지향하고 있음 • 베틀시장과 댄스 스튜디오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음
	일본 오다이바	쓰레기 매립지	•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임해부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기존의 쓰레기 매립지를 현대적이고도 최신 트렌드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수많은 쇼핑센터와 놀이시설 전시관 등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꼽힘 • 공간 콘텐츠와 프로그램 콘텐츠의 적절한 비율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미와 방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삼덕제지공장	삼덕제지공장	• 2003년 삼덕제지공장 전재준 회장이 안양시에 부지 기증 • 설계과정에서 기존 공장의 흔적을 철거하여 장소성 결여 • 공원의 시설물을 시민기부를 통해 조성하여 시민의 주인 의식과 참여 의식 고취
	만안공원	가축위생사업소	• 1998년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3400여 평이 공원 부지로 계획 • 2001년 제1회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웹 콘테스트에서 금상 수상, 2004년 '제 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 숲 우수상 수상 • 기존시설의 철거로 장소성의 결여
	테이트모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 1947년 길버트 스콧 경이 설계하고, 1981년 문을 닫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활용하여 조성됨 • 세계적인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무롱이 설계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을 보존한 채 감각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로 디자인됨 • 본래의 장소성을 간직하여 지역 주민의 장소애착을 유지·형성하고, 10년 이상 지속된 신중한 계획 과정을 통해 런던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획득함 • 일부 기획전을 제외한 모든 전시를 무료로 제공하며, 관람객을 위한 휴게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학교 교육의 일부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 함께 조성된 밀레니엄 브리지를 통해 템스 강의 남과 북을 연결, 융합시키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음
	영등포 문래 예술공간	철재상가	• 과거 공장과 창고 지대였던 문래동에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과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대규모 유휴공간이 발생함 • 2002년부터 문래동 철재상가의 공실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기 시작 • 현재는 50여 개의 단체, 130여 명의 예술가가 활동하는 예술 창작촌으로 변모함 • 2007년에는 '문래예술공단'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발족하고, 공연예술 행사를 통해 내·외적 차원의 소통이 시도되고 있음 • 다양한 장르의 국내, 해외 예술가들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외국 전시와 행사에 초청되는 등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미와 방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인천미술문화공간	대흥공사, 삼우인쇄 외	• 인천시는 ‘개항기 근대 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의 하나로 해안동 1가에 자리한 두 개의 블록을 복합 예술창작 ‘미술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예술창작과 교육, 향유·유통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꾀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류와 확산을 통해 도시문화의 활성화와 재생을 목표로 함 • 근대건축물(등록문화재 포함)을 보전하며 활용함으로써 장소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외부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 모색
	미국 P.S.1	폐교 공립초등학교	•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있는 폐교였던 공립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1971년에 현대미술작가를 위한 스튜디오로 활용함 • 1998년 레노베이션으로 재출범했으며, 1999년 MOMA가 운영하고 있음 • P.S.1의 프로그램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모범으로 활용되고 있음 • P.S.1은 1년 체제 프로그램 외에 자체 기획 프로그램과 순회전시회를 실시하고, 16개국의 공공·민간 예술 원조기관과 제휴하고 있음 • 지원 교육 프로그램, 학예사, 미술연구가, 운영전문가 등과 인턴십 제도, 입주 작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함 • 1986년 이후 미술가들이 주도해 학생, 성인, 가족 단위,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작가들이 창작 활동 이외에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과 연계해 현대예술의 이해와 감상의 폭을 넓힘으로써 잠재적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있음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방직공장, 재해대피소	• 1996년 방직공장과 재해대피소를 총면적 9만7000㎡의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함 • 365일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가나자와 시민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방당 2명의 디렉터와 자원봉사자가 있어 시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함 • 부지 내에 작인대학을 함께 건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음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유흥공간 문화적 활용의 의미와 방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방직공장, 재해대피소	• 연간 30여만 명의 이용자 중 30%가 외국인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일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며, 외부와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탈리아 조나 토르토나	제강공장, 송전소 등	• 과거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산업구조의 개편과 도시의 팽창으로 이전하면서 이적지는 유흥공간으로 방치됨 • 예술가들이 작업실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발달하기 시작함 • 국제적 행사와 교류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유명 기업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현재 밀라노 디자인을 대표하는 그룹의 본사들과 30여 개의 회사들이 입주한 디자인의 메카가 됨 •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창조와 전시, 즉 작업공간과 이벤트, 쇼룸의 공존은 복합적 문화공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조나 토르토나 협회는 2003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시도함
	중국 다산쯔 798	군수공장	• 1970년대 베이징의 근대화를 이끈 군수면적 공장이었으나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공장의 경쟁력 약화와 베이징 정비계획을 계기로 공장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슬럼화 공간으로 방치되었음 • 1990년대에 대학교수가 방치된 공장 한 곳을 임대하여 작업실로 사용하고, 1990년대 중반 왕푸징에 있던 중앙미술학원이 인근으로 옮겨오면서 교수와 학생들의 창작 스튜디오로 재조명됨 • 다산쯔 798는 공장에서 가까운 입지 조건과 저렴한 임대료 덕에 예술가들의 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유리한 지역이자, 바우하우스 시대의 설계로 지어져 기능적·미적으로 뛰어나 창작 아틀리에로 활용하기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됨 (곽수정, 2006: 86) • 다산쯔 798 공장 관리주 측의 부동산 재개발 계획으로 예술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예술가들과 해외의 예술협회의 요구로 2004년 '문화창의 산업특구'로 지정됨 • 2003년 '새로운 798 건설'이라는 대형 행사에 100여 개의 화랑이 참여하고 3000여 명의 관중이 몰리면서 외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매년 4월과 5월 사이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 의의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중국 다산뜨 798	군수공장	• 현재 3만평 규모의 면적에 화랑과 스튜디오 270여 개가 구성되어 있어 중국 현대미술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으나,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으로 초기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임 • 다산뜨798의 활성화 사례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성화의 모델이 됨으로써, 인근 지역인 지우창과 차오장디를 예술 특구로 계획하도록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됨
산업유산으로서 폐정수장의 공원화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선유도공원, 서울숲, 서서울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다혜	서울숲	경마장, 정수장, 골프장	• 이명박 서울시장의 환경분야 '생활권 녹지100만평 늘리기' 사업 추진으로 독섬 일대를 생태 숲으로 조성 •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의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 • 여가 문화 공간 제공, 도시 숲으로서 기후완화, 대기정화, 소음감소, 자연생태계 회복 기능
	서서울호수공원	신월 정수장	• 신원정수장 가동 중단 후 서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친환경공원 • 기존 정수장의 흔적과 문화 및 자연요소들을 활용하여 몬드리안 정원, 미디어벽천, 재생정원 등을 조성 • 소리분수, 100인의 식탁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테마를 갖춘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산업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조연주	영국 발틱 현대미술관	제분공장	• 발틱 제분공장은 화재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1982년 문을 닫음 • 게이츠헤드 시의회에 의해 1992년에 지역 재생의 일환으로 아트센터를 건립 • 발틱 제분공장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 미술의 특징에 맞도록 설계되어 2002년 개관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 장소성을 표현하기 위해 옛 건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외벽의 캐릭터를 보존하고, 사일로 건물의 상징적인 그리드에 따라 현재의 공간을 구성 • 접근성을 개선하고 외부 환경과 연계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술관 외부에 게이츠헤드 밀레니엄 브리지와 발틱 광장 조성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도시 재생을 위한 유류산업 시설의 컨버전 방법에 관한 연구, 조현주	독일 루르박물관	탄광 보일러실	• 1986년 탄광이 폐쇄된 후 정부는 무공해 산업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줄페라인 수직갱도12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탄 세척공장을 박물관으로 활용, 2008년 개관 • 석탄산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산업현장인 동시에 건축적 보존가치로 2001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2010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되어 국제적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 함 • 참여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화 시대의 장치를 보존하여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도시재생 맥락에서의 유류 산업시설 재 활용 계획 방법 연구, 김현주	신안 소금박물관	석조창고	• 석조창고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전시 공간의 확충을 위해 의도적으로 목재 트러스 구조를 보존하고 노출함 • 이로써 오래된 구조체 재료의 물성이 주는 구조미 전달
	문경 석탄박물관	갱도	• 실제 갱도를 전시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갱도 보존과 함께 갱도 내부의 구조체를 함께 전시함 • 이로써 다른 시설물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짐
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작 스튜디오 연구, 신정미	안양 석수시장	재래시장	• 재래시장의 유희공간에서 지역작가와 기획자들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장과 창작공간이 공생하고 있음 • 석수시장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아빠! 시장통 미술관'을 운영을 통해 재래시장을 적극적인 소통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음 • 시장이 생활 속의 예술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상인과 예술가 상호간 긍정적인 이미지 생성되었으며 갤러리에 대한 인지도 상승하게 됨
	신당창작아케이드	지하상가시장	•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상가 유희공간에 2009년 조성된 공방촌으로 현재 다양한 영역의 공예작가들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음 • 작가에게 창작공간과 창작비를 지원하고, 오픈스튜디오, 체험, 공공미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창작공간을 유리문으로 만들어 공방임과 동시에 전시 공간 역할을 하는 '시장 속 갤러리'를 형성하고 있음
	미국 패킹 디스트릭트	육류 가공업단지	• 1884년 푸드마켓으로 시작되어 1950년 정육점이 번성하다가 1960년에 이르러 급속도로 슬럼화 됨 • 소호에서 발생한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의해 미트패킹 지역에도 예술가들이 유입되기 시작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 스튜디오 연구, 신정이	미국 패킹 디스트릭트	육류 가공업단지	- 아침에는 육가공업자의 일터, 낮에는 예술가와 지역 상인들의 작업 공간, 밤에는 클럽활동을 통해 혐오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육가공업과 문화예술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됨 - 건축물의 외관과 기존의 용도 등 역사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미국 토르페도 팩토리 아트센터	어뢰공장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마리안 랜딩함에 의해 예술도시로의 계획안이 발표되고 어뢰공장을 미술교육 스튜디오로 활용 - 학생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미지 상징이 형성되고 있음
	독일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맥주공장	1989년 독일 연방정부가 계획한 폐 맥주공장지구의 재개발에 반발하여 예술가들이 예술공간화 함 - 이후 약 1억 마르크의 투자자금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 문화예술 공간과 더불어 서비스업과 문화산업 등 관련 업체를 입주시킴으로써 문화·경제적 재생을 이루어 지속가능성을 획득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 스튜디오 연구, 신정이	독일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맥주공장	- 모든 건물은 과거의 장소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커뮤니티 지속성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음 - 다양한 공간구성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밀착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함
	독일 우파 파브릭	영화현상소	- 베를린의 버려진 영화현상소를 1965년 예술가들이 점거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장주들의 장기거주 제안으로 1979년 조성된 마을단위의 복합문화공간 - 공간 리노베이션과 생태적 문화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길드를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룸 - 경제적 편익을 노동의 대가로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생을 이룸
서울시 컬처 노믹스 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김다연	금천 아트팩토리	인쇄 공장	- 아트 팩토리 사업은 폐 공장, 창고 등을 예술가와 주민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재생시켜 새로운 문화 지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 - 금천구 독상동의 유흥산업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2009년 개관 - 예술가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 해외작가 교환,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글로벌 미학과 지역성을 실험하는 국제 레지던시

구분	현황		주요내용
	활용현황	기존시설	
서울시 컬처 노믹스 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김다연	금천 아트팩토리	인쇄 공장	• 시민문화 진흥을 위해 직장인 밴드, 커뮤니티 아트, 지역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문화산업을 위해 인접산업단지과 연계하여 신상품 창작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홍대 복합문화예 술공간	서교 동사무소	•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옛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개관 • 홍대 지역의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술가를 위해 정기공모 방식으로 기획단계에서 행사개최 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을 함께 지원함 • 시민문화진흥을 위해 주민노래교실과 시민문예강좌를 진행 • 지역문화 산업을 위해서 정기 아트마켓을 열고 있음
	연희 창작스튜디오	시사편찬 위원회	• 서울시 최초의 문학인 전용 집필촌으로서 숙소를 포함한 집필실을 지원하고 있음 • 시민문화진흥을 위해 월 1회 연희목요낭독극장과 연희문학 학교, 미래문학인 등을 운영 • 문화산업을 위해서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
	성북 아트팩토리	성북 보건소	• 보건소 건물을 재활용하여 예술치유와 시민창작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예술교육단체를 위한 7개의 스튜디오와 시민창작실 3곳을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소통, 문화예술체험, 예술가와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음
유 휴 공 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창작공간 개선방안 연구, 오세경	독일 타헬레스	백화점	• 베를린의 백화점 건물을 개조하여 1900년 작가들에 의해 조성되었고, 2000년 베를린 시의 운영체제 변경으로 공적 기관의 국제 현대예술센터로 거듭남.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 • 현대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획·작업공간 및 전시공간의 용도로 사용함 •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작가들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문화예술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대중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함

ABSTRACT

Kim, Hyojeong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has been sharply increased since 2000, and forms and types of cultural facilities has been diversified. However, some cultural facilities run differently than its initial purpose, so it does not perform its function well;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ich has been used in different forms or has low utilization.

In addition, due to uncertainty of cultural facility supply standard and over or under supply of facilities in regions, regional disparity of cultural demands has been occurred. Because of this reason, some problems such as low utilization of cultural facilities or the phenomenon of cultural isolation have began to emerge.

Thus,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supply standards for new cultural facilities and the functional effectiveness for existing facilities by developing the facility allocation and functional readjustment models for both new and existing cultural facilities.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김 효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김 정 연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보조

정 연 동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재학)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인 박 광 무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4년 7월

발 행 일 2014년 7월

인 쇄 인 크리홍보주식회사

ISBN : 978-89-6035-475-3 93300

